

정책연구

2018-01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효과성 연구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효과성 연구

2018. 3.

<차 례>

요약	i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내용	5
II. 청년구직지원금 개요 및 현황	7
1. 개요	9
2. 참여자격 및 사업 참여 제외자	10
가. 참여자격	10
나. 사업 참여 제외자	10
3.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절차	11
4. 선정자 현황	12
가. 인구학적 특성	12
나. 실업기간	12
다. 경기도거주기간외 기타	13
5. 유사 지원정책	15
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5
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17
다. 인천광역시 ‘청년사회진출사업’	18
라. 성남시 ‘청년배당’	18
III. 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분석	21
1. 조사 설계	23
2. 조사 도구	25
가.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	25
나. 진로장벽	26
다. 구직효능감	26

라. 사회적지지 인식	26
마. 취업스트레스	27
바. 생활만족도	27
3. 조사개요	28
4. 조사결과	30
가. 취·창업 준비 및 구직활동	30
나. 취·창업 목표	32
다. 직업훈련 및 자격증	34
라.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준비도	36
마. 진로장벽	39
바. 구직효능감	43
사. 사회적지지 인식	47
아. 취업스트레스	50
자. 생활만족도	54
차.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55
타.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57
파.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사회적지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	59
하.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59
거.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62

IV. 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FGI	65
1. 조사배경 및 조사방법	67
2. 조사내용	68
가. 현재 상황 및 애로사항	68
나. 참여 전 상황에 대한 리뷰	68
다.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제도에 대한 세부평가	68
라.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의 효과	68
마.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제도의 장·단점 및 개선사항, 전반적인 평가	68
바. 취업자 추가질문	68
사. 전담상담사 추가질문	69
3. 조사결과	70
가. 참여자	70
나. 전문상담사	81
4. 소결	86

V. 청년구직지원금 효과 분석	89
1. 조사개요	91
2. 조사도구	93
3. 조사결과	94
가. 구직지원금 사용 현황	94
나. 취업자 현황	96
다. 취·창업 준비 및 구직활동	99
라. 심리적 요인	103
VI. 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만족도	111
1. 조사내용	113
2. 응답자 특성	115
3. 조사결과	116
가. 참여자 만족도 요약	116
나. 구직활동 및 취업에 도움 여부	117
다. 지원에 따른 가장 큰 도움 사유	118
라.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118
마. 항목별 만족도	119
바. 전반적 만족도	127
사. 기대충족도	128
아. 개선 사항	129
4. 요약	130
VII. 결론 및 제언	133
1. 참여자 분석 및 참여전후 비교	135
2.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137
참고문헌	139
부 록	141
부록 1. 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사전조사 설문지	143
부록 2. 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사후조사 설문지(A타입_사전설문 참여자대상)	152
부록 3. 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사후조사 설문지(B타입_사전설문 미참여대상)	161

〈표 차례〉

<표 II-1> 성별에 따른 연령별 분포 및 최종학력 분포	12
<표 II-2> 실업기간에 따른 연령별 분포 및 최종학력 분포	13
<표 II-3> 경기도거주기간外 기타 분포	13
<표 II-4>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대상별 유형화	15
<표 II-5>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지원금 지급 요약	16
<표 II-6> 청년층 대상 주요 유사 사업 현황	19
<표 III-1> 조사내용	24
<표 III-2> 조사대상자의 특성	28
<표 III-3> 취(창)업 준비 및 구직활동 관련	30
<표 III-4> 취(창)업 목표 관련	33
<표 III-5> 직업훈련 및 자격증 관련	35
<표 III-6> 성별에 따른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	36
<표 III-7> 실업기간에 따른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	37
<표 III-8>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	39
<표 III-9> 연령에 따른 진로장벽	40
<표 III-10> 최종학력에 따른 진로장벽	41
<표 III-11> 실업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42
<표 III-12> 성별에 따른 구직효능감	43
<표 III-13> 연령에 따른 구직효능감	44
<표 III-14> 최종학력에 따른 구직효능감	45
<표 III-15> 실업기간에 따른 구직효능감	46
<표 III-16> 성별에 따른 사회적지지 인식	47
<표 III-17> 연령에 따른 사회적지지 인식	48
<표 III-18> 실업기간에 따른 사회적지지 인식	49
<표 III-19>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50
<표 III-20> 연령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51
<표 III-21> 최종학력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52
<표 III-22> 실업기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53
<표 III-23> 생활 만족도	54

<표 III-24>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에 따른 집단 분류	55
<표 III-25>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56
<표 III-26>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58
<표 III-27>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사회적지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	60
<표 III-28>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61
<표 III-29>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63
<표 IV-1> 참여 전 생각	71
<표 IV-2> 선발조건	72
<표 IV-3> 지원금액/기간/방식(체크카드)	73
<표 IV-4> 선발방식	74
<표 IV-5> 구직활동보고서	75
<표 IV-6> 전담상담사	76
<표 IV-7> 취업성공수당	77
<표 IV-8> 참여 후 변화	78
<표 IV-9> 취업에 도움 여부	80
<표 IV-10> 선발(전담상담사)	82
<표 IV-11> 구직활동 및 취업 도움 여부(전담상담사)	84
<표 IV-12> 애로사항(전담상담사)	84
<표 V-1> 사전사후설문 최종분석대상자의 특성	91
<표 V-2> 응답자 특성(B타입)	93
<표 V-3> 취업자 현황	96
<표 V-4> 목표 일자리 취업여부	97
<표 V-5>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정도 사전사후 비교	100
<표 V-6>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한 지출비용 사전사후 비교	101
<표 V-7>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한 투자시간 사전사후 빈도표	102
<표 V-8> 진로장벽 사전사후 비교	103
<표 V-9> 진로장벽 사전사후 비교(미취업자)	104
<표 V-10> 연령에 따른 자기명확성 부족 사전사후 비교	104
<표 V-11> 구직효능감 사전사후 비교	105
<표 V-12> 구직효능감 사전사후 비교(미취업자)	105
<표 V-13> 연령에 따른 구직강도 사전사후 비교	106
<표 V-14> 사회적지지 인식 사전사후 비교	106
<표 V-15> 사회적지지 인식 세부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	107
<표 V-16> 사회적지지 인식 세부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미취업자)	107
<표 V-17> 취업스트레스 사전사후 비교	108
<표 V-18> 전반적 생활만족도 사전사후 비교	108

<표 V-19> 전반적 생활만족도 사전사후 비교(미취업자)	108
<표 V-20> 최종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 사전사후 비교	109
<표 VI-1> 만족도 조사내용	113
<표 VI-2> 응답자 특성	115
<표 VI-3> 참여자 만족도 요약	116
<표 VI-4> 구직활동 및 취업에 도움여부	117
<표 VI-5>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118
<표 VI-6> 선발기준	119
<표 VI-7> 구직활동계획서	120
<표 VI-8>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121
<표 VI-9> 지원금 지급방식	122
<표 VI-10> 구직활동계획서	123
<표 VI-11> 지원금 사용범위	124
<표 VI-12> 취업성공수당	125
<표 VI-13> 전담상담사	126
<표 VI-14> 전반적 만족도	127
<표 VI-15> 기대충족도	128

〈그림 차례〉

[그림 III-1]	준비분야	31
[그림 III-2]	구직활동기간 중 직접적 지원횟수	31
[그림 III-3]	구직활동기간 중 최종면접 횟수	32
[그림 III-4]	목표관련 일자리경험 기간	34
[그림 III-5]	희망직무	34
[그림 III-6]	자격증 유형	36
[그림 V-1]	구직지원금 사용 현황	94
[그림 V-2]	계획에 따른 사용 여부	95
[그림 V-3]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	95
[그림 V-4]	목표일자리에 취업하지 않은 주된 이유	98
[그림 V-5]	취업일자리 유형	98
[그림 V-6]	취업일자리 종사상 지위	99
[그림 V-7]	취업일자리 월평균임금	99
[그림 V-8]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정도 사전사후비교(B그룹)	100
[그림 V-9]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한 지출비용 사전사후비교(B그룹)	101
[그림 V-10]	구직활동 경험여부 비교	103
[그림 V-11]	일자리직접지원 및 최종면접 횟수 비교	103
[그림 VI-1]	참여자 만족도 요약	116
[그림 VI-2]	지원에 따른 가장 큰 도움 사유	118
[그림 VI-3]	개선사항	129
[그림 VI-4]	개선사항_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준비도에 따른 집단비교	130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실업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가운데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청년 실업률 하락을 위해 다양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들이 학업-취업-결혼의 생애 주기 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취업난의 장기화로 졸업을 미루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이나 취업 준비 중인 아르바이트생, 취업가능성에 실망하여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등 노동시장 바깥에 머무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을 마치고 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한 과도기가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경제적·심리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비용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된다.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할 경우 구직활동에 할애하는 물리적 시간과 연속성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취업준비기간은 더 장기화되고 이는 다시 노동시장 성과의 하락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밖 청년(disconnected youth)들은 소득상실, 취업능력 잠식, 생애소득 감소,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로 보아서도 청년층의 비노동력화와 유희화는 커다란 손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에 진입하여 일자리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의 주체로 이행하는 불안정한 기간을 청년개인이 전부 책임질 것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을 가지고 개입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청년구직지원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청년층에게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구직활동을 장려하여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의 참여자를 분석해 봄으로써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 제도의 보완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유사사례 분석, 사전사후 설문조사, FGI 등을 실시하여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취업과 직접적인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직활동과 관련한 심리·정서, 인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후 비교결과 노력의 정도, 구직준비 시간과 비용, 직접적인 구직 활동, 준거요인으로 설정한 진로장벽, 구직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인식, 생활

만족도 등에서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구직지원금의 수혜를 받게 되면서 경제적인 도움은 시간적 여유로 이어지고 또 이렇게 생겨난 여유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해주었으며 더 나아가 자신감, 해보고자 하는 의지 등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과 의지는 실질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졌으며 사회와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에게 시간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여 구직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회와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청년구직지원금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정책시행 초기 일부에서 제기된 퍼주기식 청년정책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청년들의 미스매치로 인한 취업준비의 장기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식의 조언보다는 그들이 처한 여건이나 교육에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이 경기도 공감정책 1위로 선정된 것과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청년 내부의 다양성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시행을 기대해 본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실업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가운데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 시기는 전 생애 관점에서 교육과 훈련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첫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의 직업과 직장의 선택은 향후 경력경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제껏 청년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일꾼으로서 인력양성의 대상이었으며 졸업을 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간주 되어 왔다. 하지만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은 그리 쉽지 않으며 특히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의 진입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하여는 저성장에 따른 경제의 일자리창출 능력 저하와 양질의 일자리의 부족, 기업의 경력직 선호, 고학력화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청년실업을 하락을 위해 다양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들이 학업-취업-결혼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에코세대라 불리우는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취업난의 장기화로 졸업을 미루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이나 취업 준비 중인 아르바이트생, 취업가능성에 실망하여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등 노동시장 바깥에 머무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은 10%대에 발표되고 있지만 노동시장 바깥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을 포함하면 청년들의 실질실업률은 3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김도균, 2017).

한편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청년구직자들의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정책들이 주로 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개인보다는 기업지원을 통해 혜택을 주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개개인의 니즈가 다르고, 정규직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공부분 등을 선호하여 취업준비가 장기화되어가는 청년층에게는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도 구직자에게 상담, 교육, 알선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적위주의 운영, 서비스 제공의 질 등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한 과도기가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경제적·심리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의

경우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비용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된다.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할 경우 구직활동에 할애하는 물리적 시간과 연속성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취업준비기간은 더 장기화되고 이는 다시 노동시장 성과의 하락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또한 청년층 실업자의 경우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실업과 소득보장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용보험 제도이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청년들에게는 고용보험이 안전망으로써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도 밖 청년 또는 사회 밖 청년(disconnected youth)들은 소득상실, 취업능력 감소, 생애소득 감소,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비노동력화와 유희화는 우리 사회전체로 보아서도 커다란 손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에 진입하여 일자리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의 주체로 이행하는 불안정한 기간을 청년개인이 전부 책임질 것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을 가지고 개입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고용복지개념이 바로 ‘구직안전망’이다. 구직안전망의 개념은 교육에서 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상담에서 알선까지 단계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구직기간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이행 과정의 위기가 생애 전반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기회의 제공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정준영, 2016).

청년들의 구직안전망으로써 대표적인 것이 바로 EU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이다. 2013년 시작된 청년고용프로그램의 주요한 특징은 전통적인 실업자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실업을 예방하거나 장기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개입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 교육 단계에서부터 중도 탈락이나 NEET족이 될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임희정 외, 2017).

이러한 가운데 국가정책의 틈새에서 새로운 안전망으로서 시도되는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청년층에게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구직활동을 장려하여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된 청년구직지원금의 참여자를 분석해봄으로써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에 따른 효과를 검증해 보고 제도의 보완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이 취업과 직접적인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직활동과 관련한 심리·정서, 인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사사례 분석, 1,2차 참여자 사전·사후 설문조사, 관련자 FGI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에 참여한 청년들의 인구학적 변인이나 개인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1차) 지원 전·후의 구직활동의 빈도, 진로장벽, 구직효능감, 사회적지지 인식, 취업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등의 차이 비교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일차적으로 검증한다.

셋째,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전·사후를 비교하여 정책의 효과를 보완적으로 검토한다.

넷째,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의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참여자 및 전문상담사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정책의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Part II에서는 2차 참여자집단과 탈락자 집단의 사전·사후 비교를 통하여 참여자 개개인의 변화 외에 추가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한다.



II. 청년구직지원금 개요 및 현황

1 개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실업 청년의 취업역량제고, 구직활동 및 구직능력 향상을 위해 6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차원의 청년지원 사업이다. 특히 적극적인 구직활동의사가 있는 중위소득 80%이하(2차 : 150%이하)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 시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과 창업관련 활동을 한 후 정기적으로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적극적 구직활동 소명과정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때 취업과 창업 활동에 대하여서는 직접적인 구직활동이외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취업능력 향상과 관련된 각종 사업 참여,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포괄적 취·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 개개인의 역량과 욕구에 기초해 필요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바지카드를 통해 구직활동지원금을 체크카드형태로 제공하여 참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되 유해활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담상담사를 두어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리 외에 지원금 사용, 취업정보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1차의 경우 2017년 5월 29일~6월 9일까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총 5,392명이 지원하였다. 이중 1,2차 평가를 통하여 대상기준 적합여부,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총 3,240명이 선정되었으며 2017년 7월 28일 1차 구직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본 연구 Part I 은 이들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추가로 2차 모집이 진행되었는데 2017년 9월 15일~9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646명이 신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900명이 선정되어 6: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1,900명에게는 2017년 11월 24일 첫 구직지원금이 지급되었다.

2 참여자격 및 사업 참여 제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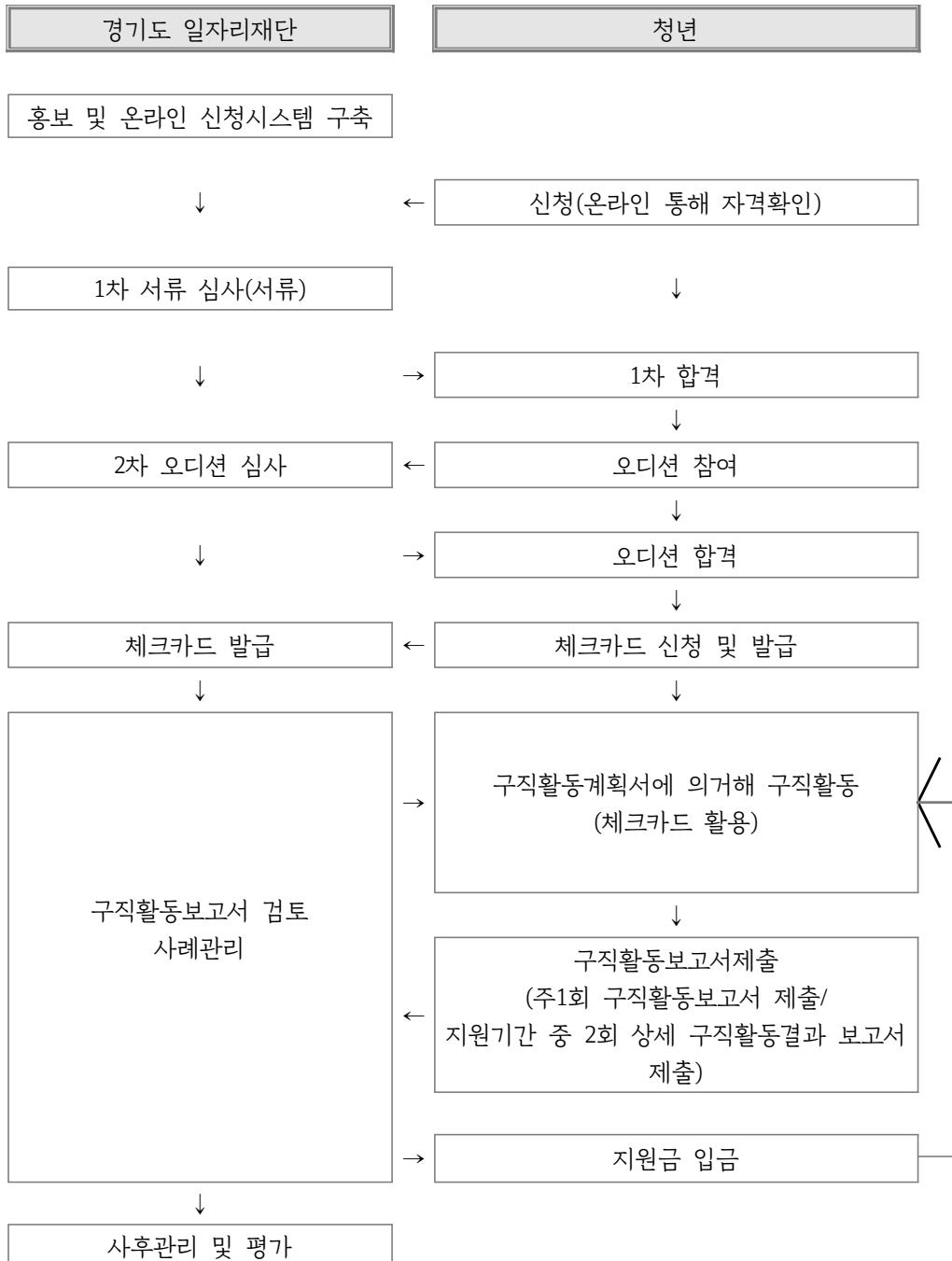
가. 참여자격

- 경기도 내 거주기준 : 경기도 1년 이상 거주(2017년 기준 : 2016.5.30 이전 거주자, 2차의 경우 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로 변경)
- 연령 : 만 18세 이상~34세 이하(1982.5.30~1999.5.29)로서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청년
- 소득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2차는 150%로 확대)인 가구로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

나. 사업 참여 제외자

- 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단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대학교 최종학기,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야간 대학원생 참여 가능)
-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주당 36시간 이상 상용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재정지원일자리 사업포함)
-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3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절차



4 선정자 현황

가. 인구학적 특성

- 여성의 비율이 58.3%로 남성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25.6세로 21~25세의 비율이 5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21~25세가 6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남성의 경우 26~30세가 4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종학력의 경우 남녀 모두 4년제>전문대>고등학교>대학원이상 졸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 성별에 따른 연령별 분포 및 최종학력 분포

(단위: 명, %)

구분	연령				최종학력				전체
	18-20세	21-25세	26-30세	31-34세	고등학교 졸업이하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졸업	대학원 졸업이상	
남	40	477	655	146	149	210	927	32	1,318
	3.0%	36.2%	49.7%	11.1%	11.3%	15.9%	70.3%	2.4%	41.7%
여	78	1,119	491	151	143	351	1,272	73	1,839
	4.2%	60.8%	26.7%	8.2%	7.8%	19.1%	69.2%	4.0%	58.3%
전체	118	1,596	1,146	297	292	561	2,199	105	3,157
	3.7%	50.6%	36.3%	9.4%	9.2%	17.8%	69.7%	3.3%	100.0%

나. 실업기간

- 실업기간의 경우 전체적으로 6개월 미만이 50.6%로 가장 높았으나 연령별로는 분포가 상이하였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늘어났다.
- 학력별 실업기간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1년 미만의 실업자가 64.7% 였지만 고등학교이하 졸업자의 경우 1년 미만의 실업자가 45.2%인 반면 29.8%가 2년 이상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실업기간에 따른 연령별 분포 및 최종학력 분포

(단위: 명, %)

구분	연령				최종학력				전체
	18-20세	21-25세	26-30세	31-34세	고등학교 졸업이하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졸업	대학원 졸업이상	
6개월 미만	88 74.6%	990 62.0%	456 39.8%	65 21.9%	111 38.0%	276 49.2%	1,166 53.0%	46 43.8%	1,599 50.6%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1 0.8%	162 10.2%	154 13.4%	44 14.8%	21 7.2%	69 12.3%	258 11.7%	13 12.4%	361 11.4%
1년이상~ 2년미만	16 13.6%	207 13.0%	209 18.2%	46 15.5%	35 12.0%	88 15.7%	337 15.3%	18 17.1%	478 15.1%
2년이상~ 5년미만	12 10.2%	186 11.7%	243 21.2%	71 23.9%	63 21.6%	85 15.2%	344 15.6%	20 19.0%	512 16.2%
5년이상	1 0.8%	36 2.3%	32 2.8%	20 6.7%	24 8.2%	18 3.2%	41 1.9%	6 5.7%	89 2.8%
해당없음	0 0.0%	15 0.9%	52 4.5%	51 17.2%	38 13.0%	25 4.5%	53 2.4%	2 1.9%	118 3.7%
전체	118 3.7%	1,596 50.6%	1,146 36.3%	297 9.4%	292 9.2%	561 17.8%	2,199 69.7%	105 3.3%	3,157 100.0%

다. 경기도거주기간外 기타

- 전체 대상자중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자가 2,343명이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17.9년이었다.
- 그 외 세대주 714명, 장애인 29명, 취업성공패키지 포기자 227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II-3〉 경기도거주기간外 기타 분포

구분	빈도(명)	퍼센트(%)
경기도거주기간		
1년이상~3년미만	284	9.0
3년이상~5년미만	183	5.8
5년이상~10년미만	347	11.0
10년이상	2,343	74.2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세대주	해당없음	2,443	77.4
	세대주	714	22.6
장애인	해당없음	3,128	99.1
	장애인	29	0.9
취업성공패키지	해당없음	2,930	92.8
	취성패포기	227	7.2
전 체		3,157	100.0

5 유사 지원정책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취업이나 창업활동 등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정책들이 청년들의 ‘빠른 취업’이란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청년들의 미취업기간 단축을 위한 구직활동이나 취업지원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외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을 들 수 있는데 본 장에서는 이들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2009년 저소득층과 기초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애로계층의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통합형 고용서비스정책이다. 이후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2012년부터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소득기준 미적용)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실업자까지 범위를 확장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참여자의 소득과 대상별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패키지 I 은 기초 보장수급자,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 연령을 지원하고, 패키지 II는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II-4〉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대상별 유형화

구분	패키지 I	패키지 II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30%) - 차차상위이하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 만 18~34세 이하 미취업청년 - 만 35~69세 이하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자료: 고용노동부(2018).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 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로 참여수당 또는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함으로써 단계별 과정에 성실한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실비 보상적 지원을 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해마다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진행자를 제외한 취업률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의 위상 또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무역량 관련 훈련 제공 및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의 경제적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지원에 기여도가 높다가 평가받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정책방향이 최대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양지윤 외,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진행함으로써 제공하는 정보와 훈련의 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그 훈련의 내용에 있어서도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청년층의 다양한 직업이나 진로를 경험하거나 결정하는데 있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표 II-5>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지원금 지급 요약

구분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급요건	지급액
참여 수당	사전단계 (2주)	패키지 I	(요건) 센터 3회이상 방문상담 - 1일 20,000원(최대 3회)	6만원 (지원한도)
	1단계	패키지 I	(요건) 센터 3회이상 방문상담 및 IAP 수립한 경우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추가 10만원 - 중소기업탐방(3일이상) 참여 추가 10만원 - 중소기업탐방(2일이하) 참여 추가 5만원 -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수료 추가 10만원 - 단기·취업특강 2회 참여 추가 5만원	15만원(기본) + α ->최대25만원
		패키지 II (청년)	(요건) 센터 3회이상 방문상담 및 IAP 수립한 경우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추가 5만원	15만원(기본) + 20만원 (지원한도)
훈련 지원 수당	2단계	패키지 I · II	(요건) 훈련 출석일수가 단위기간 총 소정 출석일수의 80% 이상 - 지원기간 : 최초 훈련개시일로부터 6개월 - 지급단위기간 : 1개월 단위 - 지급금액 : 18,000원(1일)	최대 월 284천원 (지원한도)
참여 실비 수당	3단계	패키지 I · II	(요건) 취업상담·알선을 위해 센터·위탁기관 방문 시 월 1회 20,00원 지급(총 3회) - 기간만료 마지막 상담일 이후 지급 - 3단계 초기상담일 제외, 취업시 취업전 상담일에 대해 지급	최대 6만원 (지원한도)
청년 구직 촉진 수당	3단계	패키지 I · II 34세이하	(요건) 상호협약체결하고 구직활동이행계획을 수립후 이행결과 시 월 30만원 지급 - 지급단위: 상호협약체결 ~ 1개월(총3회)	최대 90만원 (지원한도)

자료: 고용노동부(2018).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주거비, 기본적인 생활비 등으로 인해 구직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은 자발적인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2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였다. 2017년부터는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신청서 평가 시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을 5 대 5 비율에서 가구소득 60점, 미취업 기간 40점을 배정하여 선발을 하였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2016년 3,000명에서 2017년 5,000명으로 지원 폭을 넓혔으며, 2018년에도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30시간 이상의 일을 하며 정기 소득이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자 및 타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자,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사회활동 욕구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지원금은 서울시 시금고인 우리은행 카드로 ‘청년수당’이란 명칭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별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접비는 구직활동비로써 학원 수강료, 시험응시료 등을 말하며,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간접비는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기타 여가생활비 등으로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기존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인해 중복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 서울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교육훈련과 취업알선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서울시의 사업은 구직 및 사회활동 욕구는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정책을 수립하였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제한적인 훈련과 지원금이 단계별 요건을 충족해야 제공되는 사업인 반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진로와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금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은 어떤 청년들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떠한 자원을 각각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청년층의 연령을 만 29세로 제한한 기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청년수당을 사용하는데 있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관리자와 사용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인천광역시 ‘청년사회진출사업’

인천시는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7년 5월 취업활동비와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인 ‘청·사·진’을 시행하였다. 인천시의 ‘청년사회진출사업’ 역시 ‘수당’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의 정책들과 유사하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인천시의 청년취업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인천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었으며, 이와 같은 점을 강점으로 ‘인천시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안내하였다.

청년사회진출사업은 크게 구직활동비와 취업성공수당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되는데 먼저 구직활동비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의 3단계의 참여중인 미취업 청년 중 신청일 현재 거주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직활동비는 20만원씩 3개월간 총 60만원이 지급되며, 교통비, 교재구입비, 자격증 접수비, 면접복장 대여비, 사진 촬영비에 사용할 수 있다. 취업성공수당은 2016년 또는 2017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에 참여 또는 수료한 자 중 2017년 이후 취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연도 3개월 이상 유지자에게 지급하였다. 대상자들 역시 거주지가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이며, 만 18세~34세 이하 청년들이다. 구직활동비와 다르게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회 20만원을 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하지만 인천시의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한 연계사업이었으나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된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이 중복되었다. 또한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업에 대한 지원율이 낮았으며, 실업률 상승에도 큰 효과를 기여하지 못하고 사업은 2017년 12월로 모두 종료되었다.

라. 성남시 ‘청년배당’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배당’을 시행하였다.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도입한 정책으로 재산·소득·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청년배당’ 사업은 지원금액과 상관없이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있어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할 수가 없고, 성남시의 재정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 성남시는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가맹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 내 미수령자에게는 소급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행 결과 2016년 1만 7천 949명(103억원), 2017년 1만 603명(105억원)에게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성남시는 2018년에도 1만 940명(109억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교 1~3학년인 만 16~18세 청소년에게 학교 급식비 지원 차원에서 1인당 연 5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청년배당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보다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상품권이라는 유가증권을 지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깡으로 불리는 상품권 뒷거래나 타인에게 양도된다는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24세인 청년층 모두에게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의 경우 청년배당을 지급받으면서 소득의 증가로 기초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기에 선정대상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II-6〉 청년층 대상 주요 유사 사업 현황

사업명	내용	지원대상	시사점
취업성공 패키지	단계별 취업 과정을 통합 제공하고 구직, 훈련 취업성공 수당 지급	만 18~34세	-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지속 - 포괄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미비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에 거주(1년)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수당	만19~29세 미취업자	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한 설명 미흡 만 29세 이하의 선정 기준에 대한 근거 부족
청년사회 진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또는 수료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비 또는 취업성공 수당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I·II 유형 참여 또는 수료자 중 만34세 이하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 수행 홍보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 미흡한 사전준비로 인한 사업 내용 및 대상 중복
청년배당	성남시에 거주(3년)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상품권 지급	만24세 청년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상품권 사용의 불투명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미비



III. 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분석

1 조사 설계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은 청년구직난이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가 있지만 시간과 경제적인 문제로 구직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배제되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들에게 정액의 현금과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경기도의 중요한 청년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년구직지원금의 기본 목표는 경제적 자원의 부재를 해결하여 심리·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구직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목표설정, 진로장벽, 구직효능감, 사회적지지, 취업스트레스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실업기간으로 분류하고, 개인특성요인으로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준비를, 종속변수로 진로장벽, 구직효능감, 사회적지지, 취업스트레스를 준거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청년구직지원금 정책이 청년들의 전체적인 생활만족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생활만족도를 포함하였다.

조사는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 구직효능감, 사회적지지, 취업스트레스, 생활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조사된 세부내용은 <표 III-1>과 같다. 다음으로 구직지원금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FGI 및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가 전·후 각 변인에 대한 변화와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형태로 조사가 디자인되었다.

이후 2차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질 Part II에서는 청년구직지원금 2차 참여자와 대조군(2차 신청자 중 탈락자)을 구성하여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비교를 통하여 청년구직지원금이 청년들의 구직관련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1〉 조사내용

범주 구분	주요내용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권역, 연령, 교육수준(최종학력), 실업기간
취업준비 및 구직실태	취(창)업 목표 설정여부 및 설정시기, 직무관련 경험, 구직활동 경험 여부, 노력정도, 취(창)업 준비 및 구직활동시간, 월평균 지출 비용,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직업능력향상 교육/훈련여부 및 비용부담, 자격증 유무 및 개수, 자격증 취득비용 부담, 취(창)업 준비 및 구직활동 애로사항
	구직지원금 사용처, 취업관련사항(사후)
개인심리적요인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 진로장벽, 구직효능감, 사회적지지 인식, 취업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만족도(사후)	도움여부, 선발 및 운영방식, 전반적 만족도, 기대충족정도, 개선사항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에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개별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가.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

청년정책을 설계하려면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하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설계는 무엇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구직지원금의 경우 청년대상의 무분별한 복지가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자금이 부족하여 구직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그들이 적극적인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을 통해 직업의 획득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의 획득, 즉 취업의 성취는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이정애, 최웅용, 2010). 동기 이론 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Locke(1968)의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목표는 개인의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로써 인간 행동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고 과업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목표가 집중력과 방향성을 결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목표가 구체적이고 어려울수록 ‘잘하자’, ‘최선을 다하자’와 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목표보다 수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연구들에서도 목표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김운중, 2015). 그리하여 참여자 선발 시 구직활동계획서를 통하여 그동안의 구직노력과 함께 구직목표의 명확성과 실현가능성,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척도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목표의 명확성 3문항, 구직준비도 4문항으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척도의 신뢰도¹⁾는 0.887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목표가 명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 신뢰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뢰계수 추정법 중 가장 알려진 방법은 Cronbach의 알파계수이며 0.60이 넘으면 신뢰도가 만족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진로장벽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은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 요인들과 환경과 사건 등의 외적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이러한 내외적 요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진로발달,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김은희, 2010; 김민정, 2016).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은영(2001)이 개발한 진로탐색장애검사척도 45개 문항 중 총 23문항을 발췌하여 자기명확성부족, 직업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미래불안의 4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신뢰도는 0.848이다

다. 구직효능감

구직효능감은 다양한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그 과정에서 지각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는 등 과제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이나 취업성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병숙, 2007).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미시간 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에서 제작한 Job II Survey(1991) 문항과 구직효율성 진단검사를 토대로 김보인(2009)이 작성한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897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직효능감이 큰 것을 의미하며 하위요인으로서는 원하는 직무, 직업 등에 대하여 얼마나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뜻하는 구직목표,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직장 또는 직업을 찾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원동력인 구직동기,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실제로 이행하는 구직활동의 정도를 뜻하는 구직강도, 마지막으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구직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의 구직역량인 구직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라. 사회적지지 인식

사회적지지는 사회적지지망의 기능적,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실제상황에서 제공되는 지지 정도와 네트워크 안에서 사회구성원을 통해 물질적, 정보적, 정서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와 욕구의 충족 정도를 반영해 주는 사회관계와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진로결정과 실행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미경·김영숙·이현립, 2008).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조사도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연구(서복경, 2017)에서 사용된 사회심리적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의 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0.760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지원에 대한 유대감, 신뢰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는 미취업 스트레스 증후군이라 할 수 있으며 취업 실패가 반복되거나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신체적 스트레스를 말한다(김명옥, 2011). 개인은 각 시기별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때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면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지만 과도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행동이나 구직효능감 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을 참고하여 황성원(1998)이 제작한 문항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을 7문항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이중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종 5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0.761이며 취업불안스트레스, 취업압박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다.

바.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란 개인이 선택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스스로의 인생을 판단함에 있어 가치 있고 성공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긍정적인 감정과 안녕감을 말한다(이옥순, 2011).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과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도 측정하고 있는 ‘주거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건강,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0.840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조사개요

본 연구의 모집단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1차 선정자 3,157명이며 사전설문조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22일~8월 31일(10일간) 까지 메일과 문자로 링크를 배포하여 조사하였으며 1,947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61.7%를 기록하였다. 분석 대상자 현황은 <표 III-2>와 같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6:4정도였으며 평균연령은 25.6세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졸업자가 72.5%이며 대부분이 미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업기간의 경우 1년 미만자가 63.8%였으나 2년 이상 실업상태로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17.2%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 응답자의 분포는 1차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사업 참여자전체의 분포를 비교적 잘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III-2>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자	782	40.2
	여자	1,165	59.8
연령별	18-20세	66	3.4
	21-25세	1,001	51.4
	26-30세	639	32.8
	31-34세	241	12.4
권역별	남동부	195	10.0
	남서부	323	16.6
	동부	244	12.5
	북동부	307	15.8
	북서부	253	13.0
	중부	335	17.2
	중서부	290	14.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7	7.6
	전문대 졸업	319	16.4
	4년제 대학 졸업	1,411	72.5
	대학원 이상 졸업	70	3.6

구 분		빈도(명)	퍼센트(%)
결혼상태	미혼	1,860	95.5
	기혼	83	4.3
	기타	4	0.2
실업기간	6개월미만	783	40.2
	6개월이상-12개월미만	459	23.6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303	15.6
	24개월이상	335	17.2
	무응답	67	3.4
전 체		1,947	100.0

4 조사결과

가. 취·창업 준비 및 구직활동

구직활동 노력정도를 묻는 질문에 96.3%가 노력하는 편이라고 스스로를 평가 하였으며 응답자의 30.5%가 하루에 취(창)업 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하여 6시간 이상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비용은 50만원~100만원 40.4%, 30~50만원 39.1%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지출 비용은 44.49만원이었다. 취·창업 준비 및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으로는 취업준비 자금 및 시간적 여유 부족을 꼽았으며 스펙부족>자기명확성 부족>취업관련 정보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력서제출, 입사시험 응시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79.6%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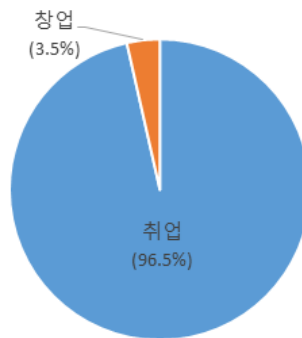
<표 III-3> 취(창)업 준비 및 구직활동 관련

구 분		빈도(명)	퍼센트(%)
구직활동 노력정도	노력하는 편	1,875	96.3
	노력하지 않는 편	72	3.7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 시간	2시간 미만	350	18.0
	2시간~4시간 미만	477	24.5
	4시간~6시간 미만	527	27.1
	6시간 이상	593	30.5
월평균 지출비용	20만원 미만	145	7.4
	20~30만원	158	8.1
	30~40만원	401	20.6
	40~50만원	361	18.5
	50~100만원	786	40.4
	100만원 이상	96	4.9
취(창)업 준비 및 구직활동 애로사항 (1순위기준)	취업준비 자금 및 시간적 여유 부족	1,317	67.6
	자기명확성 부족	125	6.4
	스펙(직무경험, 자격증 등) 부족	290	14.9
	취업 관련 정보 부족	115	5.9
	구직활동 의지 부족	17	0.9
	창업자금 부족	51	2.6
	기타	3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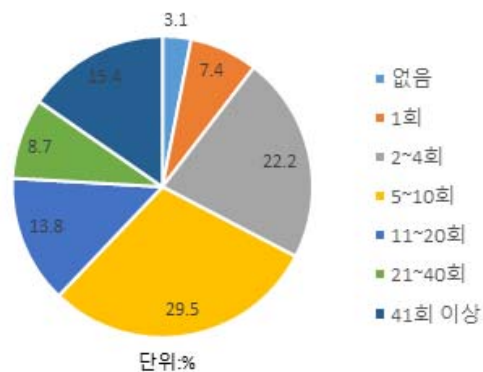
구 분		빈도(명)	퍼센트(%)
구직활동 경험여부 (직접적 구직활동)	경험있음	1,550	79.6
	경험없음	397	20.4
전 체		1,947	100.0

구직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참여자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3.5%정도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구직활동기간 동안 일자리에 직접 지원한 횟수는 5~10회가 29.5%로 가장 많았지만 41회 이상 지원한 참여자도 15.4%이다 보니 평균적으로는 20.3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종면접까지 본 경우는 평균 3.3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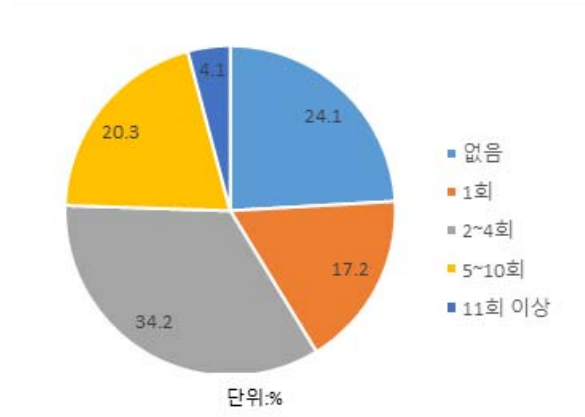
[그림 III-1] 준비분야



[그림 III-2] 구직활동기간 중 직접적 지원횟수



[그림 III-3] 구직활동기간 중 최종면접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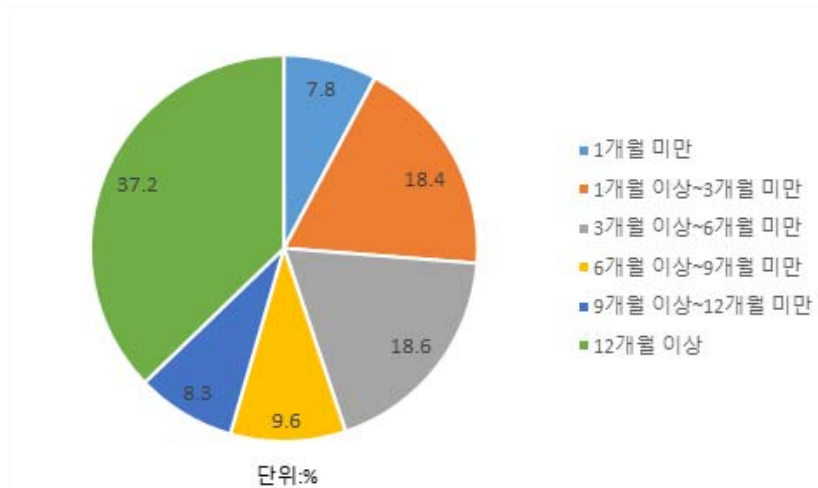
나. 취·창업 목표

대부분의 참여자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를 설정한 시기는 고학년이나 졸업 즈음 44.6%, 졸업이후가 41.9%였다. 희망직장의 경우 대기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16.7%, 정부투자기관/공기업 14.5%, 중소기업 11.0%의 순이었다. 설정한 목표와 관련한 일자리 경험의 경우 63.8% 참여자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기간은 12개월 이상 37.2%, 1~6개월 37.0%였으나 희망입사형태는 85.5%가 신입이라 답하였다. 희망직무는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관리직,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임금의 경우 3,000만원이상~3,500만원미만이 2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00만원이상~2,500만원미만>2,500만원이상~3,000만원미만의 순이었다. 평균희망임금은 2,948만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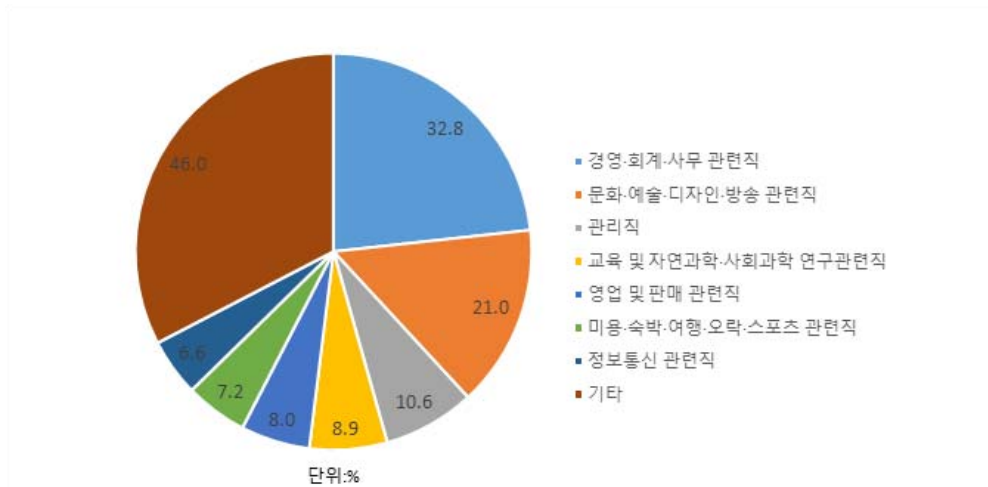
<표 III-4> 취(창)업 목표 관련

구 분		빈도(명)	퍼센트(%)
목표설정여부	설정	1,871	96.1
	미설정	76	3.9
목표설정 시기	저학년(1~2학년)	187	9.6
	고학년/졸업즈음	869	44.6
	졸업이후	815	41.9
	미설정	76	3.9
희망직장	대기업	582	29.9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325	16.7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283	14.5
	(재단, 사단) 법인단체	81	4.2
	중소기업	214	11.0
	외국계기업	129	6.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90	4.6
	연구기관(국립/사립)	22	1.1
	특정 회사나 소속되지 않음	157	8.1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28	1.4
	기타	36	1.8
희망입사형태	신입	1,664	85.5
	경력	229	11.8
	미응답(해당없음)	54	2.8
목표관련 일자리경험여부	있음	1,193	63.8
	없음	678	36.2
	미설정	76	
희망임금	1,500만원미만	16	0.8
	1,5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	63	3.2
	2,000만원이상~2,500만원미만	454	23.3
	2,500만원이상~3,000만원미만	401	20.6
	3,000만원이상~3,500만원미만	556	28.6
	3,500만원이상~4,000만원미만	236	12.1
	4,000만원이상	221	11.4
전 체		1,947	100.0

[그림 III-4] 목표관련 일자리경험 기간



[그림 III-5] 희망직무



다. 직업훈련 및 자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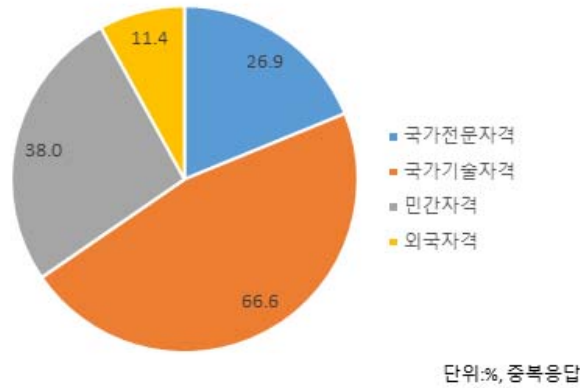
직업능력향상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참여자의 35.7%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비용은 본인>정부부담/기타>부모님의 순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이나 훈련비용을 스스로 조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격증의 경우 73.1%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2.97개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격증 유형은 국가기술자격이 가장 많았으며 민간자격>국가전문자격>외국자격을 순으로 나타냈다. 취득비용과 관련하여 교육·훈련비용과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5> 직업훈련 및 자격증 관련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직업능력향상 교육 및 훈련여부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음	695	35.7
	받은 경험 없음	1,252	64.3
직업능력향상 교육 및 훈련 비용부담	본인	304	15.6
	부모님, 가족, 친지	157	8.1
	정부부담/기타	234	12.0
	해당없음	1,252	64.3
자격증 유무	있음	1,424	73.1
	없음	523	26.9
자격증 개수	1개	294	15.1
	2개	384	19.7
	3개	343	17.6
	4개이상	403	20.7
	없음	523	26.9
자격증 취득비용 부담	본인	919	47.2
	부모님, 가족, 친지	469	24.1
	정부부담/기타	36	1.8
	해당없음	523	26.9
전 체		1,947	100.0

[그림 III-6] 자격증 유형



라.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준비도

참여자 선발 시 구직활동계획서를 통하여 그동안의 구직노력과 함께 구직목표의 명확성과 실현가능성,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참여자들의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의 평균값은 각각 4.06, 3.89로 나타났다.

<표 III-6> 성별에 따른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목표의 명확성	나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남	782	4.14	0.87	2.563 *
		여	1,165	4.04	0.90	
	나는 직업에 대한 선택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남	782	4.14	0.76	3.185 **
		여	1,165	4.03	0.80	
	나는 미래직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남	782	4.14	0.80	4.330 ***
		여	1,165	3.97	0.88	
구직 준비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취업계획이 확실한 편인 것 같다	남	782	3.82	0.89	2.531
		여	1,165	3.71	0.91	
	나는 취업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나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였다	남	782	4.09	0.69	3.127 **
		여	1,165	3.98	0.71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나는 내가 설정한 취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한다	남	782	3.78	0.87	-0.071
		여	1,165	3.78	0.82	
	나는 내가 설정한 취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남	782	4.06	0.77	2.127
		여	1,165	3.98	0.75	
	전 체			1,947		

*p<0.1, **p<0.05, ***p<0.00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성별에 따른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나는 직업에 대한 선택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나는 미래직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취업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나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였다 등에서 남성의 평균값이 높았다.

<표 III-7> 실업기간에 따른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목표의 명확성	나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6개월미만	783	4.04	0.916	3.004 **	a,c<d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4.10	0.859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4.03	0.891		
		24개월이상	335	4.20	0.866		
	나는 직업에 대한 선택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6개월미만	783	4.06	0.816	2.368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4.04	0.775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4.05	0.770		
		24개월이상	335	4.18	0.753		
	나는 미래직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6개월미만	783	4.02	0.856	0.715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4.03	0.871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4.02	0.836		
		24개월이상	335	4.10	0.840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구직 준비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취업계획이 확실한 편인 것 같다	6개월미만	783	3.76	0.922	0.919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3.73	0.878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3.71	0.910		
		24개월이상	335	3.82	0.902		
	나는 취업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나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였다	6개월미만	783	4.03	0.692	0.102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4.03	0.737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4.04	0.711		
		24개월이상	335	4.01	0.711		
	나는 내가 설정한 취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한다	6개월미만	783	3.76	0.876	0.576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3.81	0.819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3.81	0.838		
		24개월이상	335	3.78	0.802		
	나는 내가 설정한 취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6개월미만	783	4.00	0.785	0.535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4.01	0.778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4.03	0.709		
		24개월이상	335	4.06	0.746		
전 체			1,947				

*p<0.1, **p<0.05

주: 1.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2. a. 6개월미만, b. 6개월이상-12개월미만, c.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d. 24개월이상

연령과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실업기간에 따라서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항목에서 24개월이상 미취업상태로 있는 집단이 6개월미만,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명확한 자신의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장기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 요인들과 환경·사건 등의 외적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의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기업문화로 인하여 여성의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높은 진로장벽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남성의 평균값이 자기명확성부족, 직업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미래불안 등 하위항목 모두에서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비교적 자기명확성의 점수는 높지 않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있어서 자기명확성부족이나 직업정보부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III-8>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진로 장벽	자기명확성부족	남	782	1.90	0.534	-8.281 ***
		여	1,165	2.10	0.530	
	직업정보부족	남	782	2.04	0.572	-6.402 ***
		여	1,165	2.21	0.569	
	경제적 어려움	남	782	2.42	0.454	-6.695 ***
		여	1,165	2.56	0.430	
	미래불안	남	782	2.42	0.594	-8.432 ***
		여	1,165	2.64	0.530	
전체			1,947			

***p<0.00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연령과 최종학력에 따른 진로장벽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집단 간에 하위요인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명확성부족의 설문문항을 보면 ‘나는 우유부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어렵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내리고 난 후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피하고 싶다’, ‘나는 일하는데 필요한 주장성이 부족하다’, ‘나는 좋지 않은 성격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다’ 등으로 18~25세 집단이 26~30세 집단보다 부족함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이상 졸업자

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자기명확성부족의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21~25세 집단은 26~34세 집단보다 직업정보의 부족을 느끼는 수준이 높았으며 31~34세 집단은 18세~25세 집단보다 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4년제대학 졸업자집단이 전문대 졸업자 집단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설계시 참고할 만하다.

〈표 III-9〉 연령에 따른 진로장벽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진로 장벽	자기명확성 부족	18-20세	65	2.15	0.608	7.469 ***	c<a,b
		21-25세	1,001	2.07	0.529		
		26-30세	714	1.96	0.535		
		31-34세	167	1.97	0.577		
	직업정보 부족	18-20세	65	2.14	0.608	9.056 ***	c,d<b
		21-25세	1,001	2.21	0.557		
		26-30세	714	2.09	0.585		
		31-34세	167	2.03	0.591		
	경제적 어려움	18-20세	65	2.38	0.489	5.454 **	a,b<d
		21-25세	1,001	2.49	0.433		
		26-30세	714	2.52	0.455		
		31-34세	167	2.60	0.412		
	미래불안	18-20세	65	2.42	0.705	1.613	
		21-25세	1,001	2.57	0.542		
		26-30세	714	2.55	0.581		
		31-34세	167	2.52	0.590		
전 체			1,947				

p<0.05, *p<0.001

주: 1.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2. a. 18-20세, b. 21-25세, c. 26-30세, d. 31-34세

<표 III-10> 최종학력에 따른 진로장벽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진로 장벽	자기명확성 부족	고등학교졸업이하	147	2.16	0.624	5.676	**	c,d<a
		전문대졸업	319	2.07	0.518			
		4년제대학졸업	1,411	2.00	0.535			
		대학원졸업이상	70	1.93	0.508			
	직업정보 부족	고등학교졸업이하	147	2.21	0.609	1.601	*	d<a
		전문대졸업	319	2.12	0.590			
		4년제대학졸업	1,411	2.15	0.570			
		대학원졸업이상	70	2.01	0.560			
	경제적 어려움	고등학교졸업이하	147	2.59	0.478	2.025		
		전문대졸업	319	2.51	0.467			
		4년제대학졸업	1,411	2.50	0.434			
		대학원졸업이상	70	2.53	0.417			
	미래불안	고등학교졸업이하	147	2.54	0.620	4.542	**	c<b
		전문대졸업	319	2.45	0.581			
		4년제대학졸업	1,411	2.58	0.558			
		대학원졸업이상	70	2.50	0.522			
전 체			1,947					

*p<0.1, **p<0.05

주: 1.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2. a. 고등학교졸업이하, b. 전문대졸업, c. 4년제대학졸업, d. 대학원졸업이상

실업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인식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불안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4개월이상 미취업상태로 있는 집단이 6개월미만, 6개월이상~12개월미만,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집단에 비해서 경제적 어려움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미래불안 수준에 있어서도 24개월이상 미취업상태 집단은 6개월미만,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집단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장기실업자가 단기실업자보다 진로장벽을 더 느낀다는 선행 결과와 같은 결과(고지영, 2005)를 보였으며 실업기간이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다시한번 알 수 있다.

<표 III-11> 실업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진로 장벽	자기명확성 부족	6개월미만	783	2.01	0.530	0.919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2.00	0.514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2.02	0.562		
		24개월이상	335	2.06	0.562		
	직업정보 부족	6개월미만	783	2.14	0.567	0.097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2.14	0.571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2.13	0.565		
		24개월이상	335	2.15	0.603		
	경제적 어려움	6개월미만	783	2.48	0.448	7.826 ***	a,b,c<d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2.47	0.439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2.50	0.445		
		24개월이상	335	2.61	0.410		
	미래불안	6개월미만	783	2.48	0.566	8.723 ***	a<c,d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2.55	0.575		b<d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2.59	0.545		
		24개월이상	335	2.67	0.552		
전 체			1,880				

***p<0.001

주: 1.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2. a. 6개월미만, b. 6개월이상-12개월미만, c.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d. 24개월이상

바. 구직효능감

성별에 따른 구직효능감을 살펴보면 남성 참여자들의 평균값이 여성 참여자들의 평균값보다 구직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구직효능감의 경우 남녀 간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직업선택이나 구직활동이 남성에 비해 불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관행으로 인하여 자신감이 저하되고 낮은 심리적 안정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하위요인 중 실제적인 구직활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구직강도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여성참여자들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표 III-12> 성별에 따른 구직효능감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구직 효능감	구직목표	남	782	3.98	0.709	4.460 ***
		여	1,165	3.83	0.731	
	구직동기	남	782	3.71	0.598	7.318 ***
		여	1,165	3.51	0.592	
	구직강도	남	782	3.28	0.799	1.404
		여	1,165	3.23	0.757	
	구직기술	남	782	3.74	0.644	5.046 ***
		여	1,165	3.59	0.647	
전체			1,947			

***p<0.00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연령별로는 원하는 직무, 직업 등에 대하여 얼마나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구직목표에서 21~25세 집단에 비해 26~30세, 31~34세 집단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실제적으로 구직활동을 의미하는 구직강도에서 26~30세 집단이 18~25세 집단보다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 연령에 따른 구직효능감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구직 효능감	구직목표	18-20세	65	3.83	0.836	2.896**	b<c,d
		21-25세	1,001	3.83	0.733		
		26-30세	714	3.95	0.702		
		31-34세	167	4.01	0.702		
	구직동기	18-20세	65	3.50	0.650	1.884	
		21-25세	1,001	3.57	0.599		
		26-30세	714	3.61	0.600		
		31-34세	167	3.66	0.613		
	구직강도	18-20세	65	2.98	0.805	4.204***	a,b<c a<d
		21-25세	1,001	3.20	0.779		
		26-30세	714	3.32	0.762		
		31-34세	167	3.36	0.738		
	구직기술	18-20세	65	3.60	0.687	2.394	
		21-25세	1,001	3.62	0.657		
		26-30세	714	3.68	0.635		
		31-34세	167	3.69	0.653		
전 체			1,947				

p<0.05, *p<0.001

주: 1.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2. a. 18~20세, b. 21~25세, c. 26~30세, d. 31~34세

31~34세 집단 또한 18~20세 집단보다 구직강도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를 종합하면 26세~34세 집단이 구체적인 목표아래 적극적인 구직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종학력에 따른 구직효능감에 있어서 하위요인인 구직강도 요인에서 고등학교이하 졸업자보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최종학력에 따른 구직효능감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구직 효능감	구직목표	고등학교졸업이하	147	3.88	0.785	2.303	
		전문대졸업	319	3.83	0.776		
		4년제대학졸업	1,411	3.89	0.710		
		대학원졸업이상	70	4.08	0.637		
	구직동기	고등학교졸업이하	147	3.55	0.676	0.816	
		전문대졸업	319	3.57	0.646		
		4년제대학졸업	1,411	3.60	0.589		
		대학원졸업이상	70	3.67	0.495		
	구직강도	고등학교졸업이하	147	3.08	0.760	4.215 **	a<c
		전문대졸업	319	3.18	0.783		
		4년제대학졸업	1,411	3.28	0.773		
		대학원졸업이상	70	3.29	0.734		
	구직기술	고등학교졸업이하	147	3.64	0.693	0.417	
		전문대졸업	319	3.64	0.693		
		4년제대학졸업	1,411	3.64	0.636		
		대학원졸업이상	70	3.73	0.654		
전 체			1,947				

**p<0.05

주: 1.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2. a. 고등학교졸업이하, b. 전문대졸업, c. 4년제대학졸업, d. 대학원졸업이상

실업기간에 따른 구직효능감의 경우 24개월 이상 집단이 구직목표를 제외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직장 또는 직업을 찾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원동력인 구직 동기,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실제로 이행하는 구직활동의 정도를 뜻하는 구직강도 요인에서 6개월미만, 6개월이상~12개월미만,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구직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의 구직역량인 구직기술 항목에서는 24개월이상 미취업상태 집단이 6개월미만,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집단에 비해서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집단은 확고한 목표아래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나 2년 이상 실업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불안수준이 높아지며 반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표 III-15> 실업기간에 따른 구직효능감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구직 효능감	구직목표	6개월미만	783	3.86	0.750	0.906		
		6개월이상-12개월미만	459	3.90	0.727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303	3.92	0.672			
		24개월이상	335	3.93	0.701			
	구직동기	6개월미만	783	3.64	0.603	6.769 ***	d<a,b,c	
		6개월이상-12개월미만	459	3.61	0.579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303	3.59	0.599			
		24개월이상	335	3.46	0.609			
	구직강도	6개월미만	783	3.26	0.780	5.223 **	d<a,b,c	
		6개월이상-12개월미만	459	3.32	0.705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303	3.33	0.779			
		24개월이상	335	3.12	0.813			
	구직기술	6개월미만	783	3.67	0.666	3.264 **	d<a,b	
		6개월이상-12개월미만	459	3.68	0.625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303	3.65	0.647			
		24개월이상	335	3.55	0.641			
	전 체			1,880				

p<0.05, *p<0.001

주: 1.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2. a. 6개월미만, b. 6개월이상-12개월미만, c.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d. 24개월이상

사. 사회적지지 인식

성별에 따라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도를 살펴본 결과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등의 항목에서 남성의 평균값이 여성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직효능감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표 III-16> 성별에 따른 사회적지지 인식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사회적 지지	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남	782	3.38	1.020	0.760
		여	1,165	3.35	0.986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	782	3.69	1.036	2.677 **
		여	1,165	3.56	1.065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	782	4.07	0.787	5.930 ***
		여	1,165	3.84	0.868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	782	3.86	1.015	3.509 ***
		여	1,165	3.70	0.968	
전체			1,947			

p<0.05, *p<0.00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연령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지각정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값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항목에서는 21~25세 집단의 평균값이 26~30세 집단의 평균값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대 후반 청년들이 실제적인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현재의 상황을 더 절박하게 느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연령에 따른 사회적지지 인식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사회적 지지	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18-20세	65	3.48	1.133	2.535 *	
		21-25세	1,001	3.41	0.976		
		26-30세	714	3.30	1.007		
		31-34세	167	3.29	1.036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18-20세	65	3.86	1.059	1.938	
		21-25세	1,001	3.63	1.035		
		26-30세	714	3.57	1.071		
		31-34세	167	3.54	1.085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18-20세	65	4.02	0.893	0.663	
		21-25세	1,001	3.92	0.855		
		26-30세	714	3.93	0.827		
		31-34세	167	4.00	0.821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18-20세	65	3.98	0.927	3.253 **	c<b
		21-25세	1,001	3.81	0.942		
		26-30세	714	3.69	1.060		
		31-34세	167	3.78	0.966		
전 체			1,947				

*p<0.1, **p<0.05

주: 1.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2. a.18-20세, b.21-25세, c.26-30세, d.31-34세

실업기간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인식정도는 모든 질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질문에 24개월이상 집단이 6개월미만, 6개월이상~12개월미만,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에서는 24개월이상 미취업상태 집단이 6개월미만,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집단에 비해서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실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와의 유대감, 신뢰감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8〉 실업기간에 따른 사회적지지 인식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사회적 지지	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6개월미만	783	3.41	1.001	7.802 ***	d<a,b,c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3.42	1.013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3.40	0.929			
		24개월이상	335	3.12	1.005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6개월미만	783	3.67	1.037	7.977 ***	d<a,b,c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3.69	1.032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3.63	1.056			
		24개월이상	335	3.36	1.086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6개월미만	783	3.98	0.825	5.136 **	d<a,b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4.01	0.797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3.86	0.862			
		24개월이상	335	3.81	0.909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6개월미만	783	3.85	0.967	5.670 **	d<a,b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3.78	0.975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3.69	0.984			
		24개월이상	335	3.60	1.053			
	전 체			1,880				

p<0.05, *p<0.001

주: 1.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2. a. 6개월미만, b. 6개월이상-12개월미만, c.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d. 24개월이상

아. 취업스트레스

참여자들의 취업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나는 요즘 취업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두통약) 등의 복용이 늘었다’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보통이다(3)’ 이하의 값을 보여 비교적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19>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취업 스트레스	취업 불안	나는 요즘 취업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두통약) 등의 복용이 늘었다	남	782	1.98	1.188	0.289
			여	1,165	1.96	1.133	
		나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입맛도 잃을 정도이다	남	782	2.15	1.163	-3.030 **
			여	1,165	2.31	1.184	
	취업 압박	나는 취업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알지만 노력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	782	2.20	1.027	-2.737 **
			여	1,165	2.33	1.012	
		나는 실력(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남	782	2.26	1.054	-3.482 **
			여	1,165	2.43	1.057	
		내가 장차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성취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남	782	2.87	1.170	-3.840 ***
			여	1,165	3.07	1.113	
전체				1,947			

p<0.05, *p<0.00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연령별로는 ‘나는 취업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알지만 노력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내가 장차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성취가 쉽지 않은 것 같다’등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항목은 차이가 없었으나 ‘나는 요즘 취업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 등의 복용이 늘었다’, ‘나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입맛도 잃을 정도이다’와 같은 취업불안 스트레스 항목에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표 III-20> 연령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취업 스트레스	취업 불안	나는 요즘 취업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두통약) 등의 복용이 늘었다	18-20세	65	1.75	1.076	4.702 **	a,b<d
			21-25세	1,001	1.90	1.113		
			26-30세	714	2.03	1.215		
			31-34세	167	2.19	1.140		
		나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입맛도 없을 정도이다	18-20세	65	1.92	1.122	3.753 **	a<c,d
			21-25세	1,001	2.19	1.151		
			26-30세	714	2.32	1.220		
			31-34세	167	2.35	1.151		
	취업 스트레스	나는 취업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알지만 노력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8-20세	65	2.03	1.075	1.379	
			21-25세	1,001	2.28	1.002		
			26-30세	714	2.30	1.019		
			31-34세	167	2.25	1.102		
		나는 실력(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18-20세	65	2.38	1.182	0.311	
			21-25세	1,001	2.38	1.066		
			26-30세	714	2.34	1.047		
			31-34세	167	2.32	1.024		
		내가 장차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성취가 쉽지 않은 것 같다	18-20세	65	2.74	1.253	2.017	
			21-25세	1,001	3.02	1.107		
			26-30세	714	3.00	1.172		
			31-34세	167	2.87	1.149		
전 체				1,947				

**p<0.05

주: 1.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2. a. 18-20세, b. 21-25세, c. 26-30세, d. 31-34세

최종학력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알아본 결과 연령과는 반대로 취업불안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취업압박스트레스에서 차이를 보였다. ‘내가 장차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성취가 쉽지 않은 것 같다’ 항목의 경우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미래불안과 마찬가지로 전문대졸업 집단이 4년제대학 졸업 집단보다 더 낮게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자신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미래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1〉 최종학력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취업 스트레스	취업 불안	나는 요즘 취업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두통약) 등의 복용이 늘었다	고등학교졸업이하	147	2.04	1.260	0.865	
			전문대졸업	319	2.02	1.219		
			4년제대학졸업	1,411	1.96	1.134		
			대학원졸업이상	70	1.81	1.067		
		나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입맛도 없을 정도이다	고등학교졸업이하	147	2.32	1.293	1.071	
			전문대졸업	319	2.18	1.141		
			4년제대학졸업	1,411	2.26	1.178		
			대학원졸업이상	70	2.07	1.094		
	취업 스트레스	나는 취업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알지만 노력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등학교졸업이하	147	2.30	1.143	1.399	
			전문대졸업	319	2.33	1.047		
			4년제대학졸업	1,411	2.27	1.001		
			대학원졸업이상	70	2.06	0.991		
		나는 실력(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고등학교졸업이하	147	2.55	1.148	5.001 **	d<a,b,c
			전문대졸업	319	2.44	1.085		
			4년제대학졸업	1,411	2.34	1.042		
			대학원졸업이상	70	2.01	1.000		
내가 장차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성취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고등학교졸업이하	147	2.95	1.163	3.262 **	b<c		
	전문대졸업	319	2.85	1.090				
	4년제대학졸업	1,411	3.04	1.146				
	대학원졸업이상	70	2.79	1.166				
전 체				1,947				

**p<0.05

주: 1.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2. a. 고등학교졸업이하, b. 전문대졸업, c. 4년제대학졸업, d. 대학원졸업이상

실업기간별로 취업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취업불안스트레스 항목과 취업압박스트레스 항목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실업기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취업 스트레스	취업 불안	나는 요즘 취업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두통약) 등의 복용이 늘었다	6개월미만	783	1.93	1.135	4.293 **	a,b<c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1.88	1.077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2.13	1.246		b<c
			24개월이상	335	2.08	1.221		
		나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입맛도 없을 정도이다	6개월미만	783	2.13	1.136	9.642 ***	a,b<c,d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2.18	1.092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2.50	1.276		
			24개월이상	335	2.40	1.253		
	취업 스트레스	나는 취업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알지만 노력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6개월미만	783	2.21	1.020	3.652 **	a<c,d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2.24	0.978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2.38	1.015		
			24개월이상	335	2.39	1.057		
		나는 실력(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6개월미만	783	2.30	1.057	2.862 **	a<d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2.31	1.049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2.40	1.065		
			24개월이상	335	2.49	1.052		
		내가 장차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성취가 쉽지 않은 것 같다	6개월미만	783	2.93	1.132	4.326 **	a,b<c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9	2.90	1.144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303	3.17	1.143		
			24개월이상	335	3.05	1.139		
전 체				1,880				

p<0.05, *p<0.001

주: 1.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2. a. 6개월미만, b. 6개월이상-12개월미만, c.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d. 24개월이상

자. 생활만족도

삶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변수지만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같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미만인 비취업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주엽 외, 2016). 사전설문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III-23>과 같다. 측정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31~34세 집단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31~34세 집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불안스트레스가 높고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았던 집단이다. 좀 더 해당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2년 이상의 장기미취업자의 비율이 37.1%로 타 연령대(1.5%, 8.4%, 26.3%)에 비해 높았으며 기혼자의 비율도 24.6%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청년의 범주를 34세까지 확장하여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일로 보여진다.

<표 III-23> 생활 만족도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사후검증
전반적 만족도	성별	남	782	3.43	0.931	2.949 **	
		여	1,165	3.24	0.871		
	연령	18~20세	65	3.46	0.953	3.921 **	d<a,b
		21~25세	1,001	3.36	0.877		
		26~30세	714	3.28	0.920		
		31~34세	167	3.14	0.907		
	최종 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147	3.27	1.055	4.590 **	b<c,d
		전문대졸업	319	3.17	0.896		
		4년제대학졸업	1,411	3.34	0.883		
		대학원졸업이상	70	3.53	0.829		
	전 체		1,947				
	실업 기간	6개월미만	783	3.40	0.894	13.310 ***	a,b<c<d
		6개월이상-12개월미만	459	3.40	0.836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303	3.23	0.900		
		24개월이상	335	3.07	0.929		
	전 체		1,880				

p<0.05, *p<0.001

주: 1. 매우 불만족한다, 2. 대체로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학 졸업자 집단이 4년제대학 졸업자, 대학원이상 졸업자 집단보다 전반적인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업기간별로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6개월미만, 6개월이상~12개월이하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이후 구간에서는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차.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이상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성별, 연령, 최종학력, 실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이와 더불어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선정 시 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집중 평가되었던 목표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진로장벽, 구직효능감,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목표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높은 집단, 목표 명확성은 높으나 구직준비도가 낮은 집단, 목표 명확성이 낮고 구직준비도가 높은 집단, 목표 명확성과 구직준비도 모두 낮은 집단 등 총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24〉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에 따른 집단 분류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집단 구분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높음	866	44.5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낮음	452	23.2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높음	123	6.3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506	26.0
전 체		1,947	100.0

가장 먼저 진로장벽에 대해 살펴보고자 모형 1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실업기간 등을, 모형2에서는 취(창)업 준비 활동시간, 목표관련 일자리여부 등을 투입하였으며 모형3에서는 목표 명확성과 구직준비도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3은 참여자들의 진로장벽에 대해 24.9%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개인특성 요인만 투입한 모형1보다 19.3%, 모형2보다는 12.1% 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목표가 명확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체크하는 경우 진로장벽을 덜 인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목표는 명확하나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목표와 구직준비도 모두 낮은 집단과 진로장벽을 인식하는데 차이가 없었다.

<표 III-25>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개 인 특 성 변 인 I	성별		0.186	9.579 ***	0.181	0.019 ***	0.167	0.018 ***
	연령	18세-20세	-0.073	-1.280	-0.114	0.056 *	-0.102	0.052 *
		21세-25세	0.019	0.903	-0.005	0.021	-0.007	0.020
		31세-34세	-0.015	-0.437	-0.001	0.034	0.028	0.032
	최종 학력	고졸이하	0.091	2.447 **	0.066	0.036	0.059	0.034
		전문대졸	-0.019	-0.757	-0.038	0.025	-0.021	0.023
		대학원이상졸	-0.081	-1.643	-0.066	0.048	-0.042	0.044
	실업 기간	6개월이상-12개월미만	0.005	0.200	0.017	0.023	0.005	0.021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0.019	0.676	0.044	0.027	0.035	0.025
		24개월이상	0.085	3.074 **	0.110	0.027 ***	0.106	0.025 ***
개 인 특 성 변 인 II	취(창)업 구직 활동 시간	3시간~4시간미만			-0.055	0.027 *	-0.019	0.026
		4시간~5시간미만			-0.058	0.030	0.007	0.029
		5시간~6시간미만			-0.120	0.033 ***	-0.050	0.031
		6시간~7시간미만			-0.152	0.038 ***	-0.049	0.036
		7시간이상			-0.220	0.029 ***	-0.080	0.028 **
	목표 관련일자리 경험없음				0.060	0.019 **	0.027	0.018
	희망입사형태_경력				-0.012	0.029	-0.011	0.027
	직업훈련 비용부담	부모			-0.022	0.040	0.000	0.037
		정부 및 기타			-0.005	0.034	-0.014	0.032
	자격증 취득비용 부담	부모			0.031	0.023	0.023	0.022
		정부 및 기타			0.026	0.066	-0.042	0.062
	직업훈련경험 없음				0.001	0.025	-0.011	0.024
	자격증 없음				0.050	0.021 **	0.032	0.020

진로장벽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목표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높음					-0.246	0.035 ***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낮음					-0.023	0.037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높음					0.131	0.037 ***
N		1,947		1,947		1,947	
상수		2.156 ***		2.219 ***		2.273 ***	
R ²		0.061		0.139		0.260	
Adj R ²		0.056		0.128		0.249	
F		12.640 ***		12.382 ***		24.029 ***	

*p<0.05, **p<0.01, ***p<0.001

주: 기준 - 남성, 만26세 ~ 30세, 4년제대학교졸업, 6개월미만, 취(창)업 구직활동시간 3시간미만, 목표관련 일자리 경험있음, 희망입사형태_신입, 훈련비용부담_본인, 직업훈련 경험있음, 희망입사형태_신입, 직업훈련경험 있음, 자격증있음, 목표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목표의 명확성이 낮은 가운데 구직준비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는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낮은 집단보다 오히려 진로장벽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는 구체적인 목표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무작정 구직준비를 따라하는 것은 오히려 진로장벽을 인식하는데 있어 더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타.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목표 명확성과 구직준비도에 따라 구직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표 III-26>에 제시하였다. 모형3은 참여자들이 구직효능감에 대하여 39.7%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모형2보다도 21.4% 더 설명하는 것이다. 모형1에서는 성별, 연령, 실업기간이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나 모형2에서는 성별, 실업기간, 취(창업)구직활동시간, 목표 관련 일자리 경험여부, 직업훈련경험여부, 자격증소지여부가, 모형3에서는 성별과 실업기간, 취(창업)구직활동시간, 목표관련 일자리 경험여부, 직업훈련경험여부와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가 명확하고 구직준비도가 높은 집단은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구직효능감이 높은 반면 목표의 명확성이 낮고 구직준비도가 높은 집단은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 모두 낮은 집단에 비해 오히려 구직효능감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구직효능감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개 인 특 성 변 인 I	성별		-0.128	-4.868 ***	-0.116	0.024 ***	-0.091	0.021 ***	
	연령	18세-20세	-0.113	-1.462	-0.027	0.072	-0.048	0.062	
		21세-25세	-0.066	-2.284 **	-0.017	0.027	-0.011	0.024	
		31세-34세	0.060	1.285	0.054	0.044	0.008	0.038	
	최종 학력	고졸이하	-0.036	-0.715	0.020	0.047	0.036	0.040	
		전문대졸	-0.028	-0.833	0.018	0.032	-0.013	0.028	
		대학원이상졸	0.083	1.242	0.055	0.062	0.009	0.053	
	실업 기간	6개월이상-12개월미만	0.014	0.452	-0.019	0.029	-0.017	0.025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0.001	0.028	-0.048	0.034	-0.031	0.029	
24개월이상		-0.122	-3.257 **	-0.162	0.035 ***	-0.156	0.030 ***		
개 인 특 성 변 인 II	취(창)업 구직 활동 시간	3시간~4시간미만			0.185	0.035 ***	0.118	0.030 ***	
		4시간~5시간미만			0.280	0.039 ***	0.161	0.034 ***	
		5시간~6시간미만			0.320	0.043 ***	0.197	0.037 ***	
		6시간~7시간미만			0.334	0.049 ***	0.151	0.043 ***	
		7시간이상			0.445	0.037 ***	0.201	0.033 ***	
	목표 관련일자리 경험없음				-0.151	0.025 ***	-0.091	0.021 ***	
	희망입사형태_경력				-0.004	0.038	-0.006	0.033	
	직업훈련 비용부담	부모			0.046	0.052	0.008	0.045	
		정부 및 기타			-0.026	0.044	-0.011	0.038	
	자격증 취득비용 부담	부모			-0.007	0.030	0.007	0.026	
		정부 및 기타			-0.149	0.086	-0.024	0.074	
	직업훈련경험 없음				-0.117	0.033 ***	-0.096	0.028 **	
	자격증 없음				-0.059	0.028 *	-0.031	0.024	
	목 표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높음						0.416	0.041 ***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낮음						0.079	0.044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높음						-0.263	0.044 ***		
N			1,947		1,947		1,947		
상수			3.739 ***		3.629 ***		3.540 ***		
R ²			0.030		0.194		0.406		

구직효능감	모형1	모형2	모형3
Adj R ²	0.025	0.183	0.397
F	6.045 ***	18.493 ***	46.811 ***

*p<0.05, **p<0.01, ***p<0.001

주: 기준 - 남성, 만26세~30세, 4년제대학교졸업, 6개월미만, 취(창)업 구직활동시간 3시간미만, 목표관련일 자리 경험있음, 희망입사형태_신입, 훈련비용부담_본인, 직업훈련 경험있음, 희망입사형태_신입, 직업훈련 경험 있음, 자격증있음, 목표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파.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사회적지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 III-27>은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사회적지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표이다. 개인특성요인만 투입한 경우 성별, 연령, 실업기간, 취(창)업 구직활동시간, 목표 관련 일자리 경험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3에서는 성별, 연령, 실업기간,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창)업 구직활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한 아르바이트나 다른 활동대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곧 외부 지원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사회적지지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목표와 계획이 명확하고 그것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 취(창)업 구직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사회와의 유대감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참여자들의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표 III-28>에 제시하였다. 모형1에서는 성별, 연령, 실업기간이, 모형2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실업기간, 취(창)업 구직활동시간, 자격증유무가 영향을 미친 반면 모형3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실업기간과 함께 직업훈련경험유무,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 직업훈련경험이 취업스트레스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훈련 경험시 취업현장의 높은 장벽을 실감하고 취업에 대한 압박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취업 장벽을 넘기 위하여 훈련을 지속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윤경숙, 2014; 이정희, 2017).

<표 III-27>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사회적지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개 인 특 성 변 인 I	성별		-0.164	0.036 ***	-0.157	0.036 ***	-0.136	0.034 ***
	연령	18세-20세	0.217	0.105 *	0.261	0.106 *	0.242	0.101 **
		21세-25세	0.077	0.039	0.108	0.040 **	0.113	0.038 **
		31세-34세	0.053	0.064	0.052	0.065	0.011	0.062
	최종 학력	고졸이하	-0.027	0.069	0.004	0.069	0.017	0.066
		전문대졸	0.013	0.046	0.029	0.047	0.002	0.045
		대학원이상졸	0.111	0.091	0.088	0.090	0.049	0.086
	실업 기간	6개월이상-12개월미만	0.014	0.043	-0.006	0.043	0.011	0.041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0.050	0.050	-0.074	0.050	-0.060	0.048
		24개월이상	-0.216	0.051 ***	-0.237	0.051 ***	-0.231	0.049 ***
개 인 특 성 변 인 II	취(창)업 구직 활동 시간	3시간~4시간미만			0.031	0.052	-0.026	0.050
		4시간~5시간미만			0.191	0.058 **	0.089	0.055
		5시간~6시간미만			0.097	0.063	-0.010	0.061
		6시간~7시간미만			0.182	0.072 *	0.025	0.070
		7시간이상			0.221	0.054 ***	0.010	0.054
	목표 관련일자리 경험없음				-0.117	0.036 **	-0.065	0.035
	희망입사형태_경력				0.013	0.056	0.011	0.053
	직업훈련 비용부담	부모			-0.047	0.076	-0.081	0.073
		정부 및 기타			0.020	0.064	0.034	0.062
	자격증 취득비용 부담	부모			0.039	0.044	0.051	0.042
		정부 및 기타			0.022	0.125	0.129	0.120
	직업훈련경험 없음				-0.059	0.048	-0.041	0.046
	자격증 없음				-0.056	0.041	-0.031	0.039
목 표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높음						0.357	0.067 ***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낮음						0.054	0.071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높음						-0.226	0.071 **
N			1,947		1,947		1,947	
상수			3.753 ***		3.717 ***		3.645 ***	
R ²			0.028		0.059		0.144	

사회적지지	모형1	모형2	모형3
Adj R ²	0.023	0.046	0.132
F	5.606 ***	4.789 ***	11.533 ***

*p<0.05, **p<0.01, ***p<0.001

주: 기준 - 남성, 만26세~30세, 4년제대학교졸업, 6개월미만, 취(창)업 구직활동시간 3시간미만, 목표관련일 자리 경험있음, 희망입사형태_신입, 훈련비용부담_본인, 직업훈련 경험있음, 희망입사형태_신입, 직업훈련 경험 있음, 자격증있음, 목표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표 III-28>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취업스트레스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개 인 특 성 변 인 I	성별		0.155	0.038 ***	0.152	0.038 ***	0.135	0.037 ***
	연령	18세-20세	-0.288	0.113 **	-0.313	0.113 **	-0.298	0.109 **
		21세-25세	-0.052	0.042	-0.076	0.043	-0.077	0.042
		31세-34세	-0.008	0.068	0.028	0.069	0.073	0.067
	최종 학력	고졸이하	0.115	0.074	0.083	0.073	0.076	0.071
		전문대졸	0.006	0.050	-0.006	0.050	0.017	0.049
		대학원이상졸	-0.245	0.098	-0.231	0.097 **	-0.203	0.094 **
	실업 기간	6개월이상-12개월미만	-0.015	0.046	-0.003	0.046	-0.021	0.044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0.180	0.054 **	0.205	0.054 ***	0.193	0.052 ***
		24개월이상	0.132	0.054 **	0.163	0.055 **	0.155	0.053 **
개 인 특 성 변 인 II	취(창)업 구직 활동 시간	3시간~4시간미만			-0.052	0.055	-0.004	0.054
		4시간~5시간미만			0.007	0.062	0.093	0.060
		5시간~6시간미만			0.022	0.068	0.119	0.066
		6시간~7시간미만			-0.138	0.077	0.001	0.076
		7시간이상			-0.207	0.058 ***	-0.013	0.059
	목표 관련일자리 경험없음				0.031	0.039	-0.014	0.038
	희망입사형태_경력				-0.077	0.059	-0.077	0.058
	직업훈련 비용부담	부모			-0.018	0.081	0.014	0.079
		정부 및 기타			-0.062	0.069	-0.077	0.067

취업스트레스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자격증 취득비용 부담	부모			-0.011	0.047	-0.023	0.046
		정부 및 기타			0.098	0.134	0.012	0.130
	직업훈련경험 없음				-0.088	0.051	-0.106	0.050 *
	자격증 없음				0.103	0.043 **	0.076	0.042
목 표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높음						-0.318	0.073 ***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낮음						0.036	0.077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높음						0.185	0.078 **
N			1,947		1,947		1,947	
상수			2.265 ***		2.374 ***		2.422 ***	
R ²			0.026		0.058		0.119	
Adj R ²			0.021		0.046		0.106	
F			5.179 ***		4.726 ***		9.267 ***	

*p<0.05, **p<0.01, ***p<0.001

주: 기준 - 남성, 만26세~30세, 4년제대학교졸업, 6개월미만, 취(창)업 구직활동시간 3시간미만, 목표관련일 자리 경험있음, 희망입사형태_신입, 훈련비용부담_본인, 직업훈련 경험있음, 희망입사형태_신입, 직업훈련 경험 있음, 자격증있음, 목표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거.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III-29>는 참여자들의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표이다. 다른 요인들보다 설명력이 낮기는 하지만 모형3의 경우 참여자들의 생활만족도를 6.4%를 설명하고 있다. 7시간 이상의 긴 취(창)업 구직활동시간은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 여가생활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변인들의 분석과 다른 점은 자격증 취득비용을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생활만족도에 있어 부모님의 경제적지원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변인들의 경우 목표의 명확성이 낮고 구직준비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모두 낮은 집단에 비해 마이너스(-)값을 가진 반면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만족도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개 인 특 성 변 인 I	성별		-0.227	0.043 ***	-0.240	0.043 ***	-0.227	0.043 ***
	연령	18세-20세	0.282	0.126 *	0.278	0.128 *	0.267	0.127 *
		21세-25세	0.103	0.047 *	0.104	0.049 *	0.108	0.048 *
		31세-34세	-0.098	0.077	-0.128	0.078	-0.154	0.078 *
	최종 학력	고졸이하	-0.103	0.082	-0.078	0.083	-0.070	0.082
		전문대졸	-0.169	0.056 **	-0.175	0.057 **	-0.192	0.056 **
		대학원이상졸	0.250	0.109 **	0.252	0.110 *	0.227	0.109 *
	실업 기간	6개월이상-12개월미만	0.026	0.052	0.026	0.052	0.036	0.051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0.118	0.061	-0.113	0.061	-0.104	0.060
		24개월이상	-0.255	0.061 ***	-0.242	0.062 ***	-0.239	0.061 ***
개 인 특 성 변 인 II	취(창)업 구직 활동 시간	3시간~4시간미만			-0.001	0.063	-0.037	0.062
		4시간~5시간미만			-0.024	0.070	-0.088	0.070
		5시간~6시간미만			-0.083	0.077	-0.150	0.077
		6시간~7시간미만			0.092	0.088	-0.007	0.088
		7시간이상			-0.084	0.065	-0.216	0.068 **
	목표 관련일자리 경험없음				-0.024	0.044	0.008	0.043
	희망입사형태_경력				0.103	0.067	0.102	0.067
	직업훈련 비용부담	부모			-0.114	0.092	-0.135	0.091
		정부 및 기타			-0.102	0.078	-0.093	0.077
	자격증 취득비용 부담	부모			0.105	0.054	0.113	0.053 *
		정부 및 기타			-0.137	0.152	-0.069	0.151
	직업훈련경험 없음				0.022	0.058	0.034	0.058
	자격증 없음				-0.068	0.049	-0.052	0.049
목 표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높음						0.230	0.084 **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낮음						0.041	0.089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높음						-0.136	0.090
N			1,947		1,947		1,947	

생활만족도	모형1	모형2	모형3
상수	3.480 ***	3.510 ***	3.458 ***
R ²	0.043	0.054	0.077
Adj R ²	0.038	0.043	0.064
F	8.692 ***	4.394 ***	5.724 ***

*p<0.05, **p<0.01, ***p<0.001

주: 기준 - 남성, 만26세~30세, 4년제대학교졸업, 6개월미만, 취(창)업 구직활동시간 3시간미만, 목표관련일
 자리 경험있음, 희망입사형태_신입, 훈련비용부담_본인, 직업훈련 경험있음, 희망입사형태_신입, 직업훈련
 경험 있음, 자격증있음, 목표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IV. 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FGI

1 조사배경 및 조사방법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청년구직지원금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구직지원금에 대한 반응과 평가를 수집하고자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3그룹, 24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는 참여자 중 임의추출(Purposive Sampling)방식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3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청년구직지원금이 구직자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취업준비에 전념하는데 구직지원금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운영상의 문제나 전담상담사들의 일관성 있는 관리 등에 대한 니즈는 있었으나 지원금 자체의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참여자 FGI와 병행하여 참여자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의 운용을 맡고 있는 전담상담사들과의 FGI를 병행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	정성조사 : FGI																				
조사 대상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1차 참여자																				
그룹 구성	참여자 총 3그룹(24명) / 전담상담사 총 1그룹(8명) <table> <tr> <th>그룹</th> <th>구분</th> <th>참석자수</th> <th>진행기간</th> </tr> <tr> <td>1그룹</td> <td>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td> <td>10</td> <td>2017년 11월 11일 10시</td> </tr> <tr> <td>2그룹</td> <td>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td> <td>7</td> <td>2017년 11월 14일 10시</td> </tr> <tr> <td>3그룹</td> <td>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취업자)</td> <td>7</td> <td>2017년 12월 02일 10시</td> </tr> <tr> <td>4그룹</td> <td>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전담상담사</td> <td>8</td> <td>2017년 12월 05일 14시</td> </tr> </table>	그룹	구분	참석자수	진행기간	1그룹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10	2017년 11월 11일 10시	2그룹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7	2017년 11월 14일 10시	3그룹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취업자)	7	2017년 12월 02일 10시	4그룹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전담상담사	8	2017년 12월 05일 14시
	그룹	구분	참석자수	진행기간																	
	1그룹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10	2017년 11월 11일 10시																	
	2그룹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7	2017년 11월 14일 10시																	
	3그룹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취업자)	7	2017년 12월 02일 10시																	
	4그룹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전담상담사	8	2017년 12월 05일 14시																	
대상자 선정방법	참여자중 임의추출																				

2 조사내용

가. 현재 상황 및 애로사항

나. 참여 전 상황에 대한 리뷰

- 이미지
- 인지경로
- 기대요인

다.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제도에 대한 세부평가

- 대상조건(연령, 중위소득 80%미만,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실업기간)
- 지원금액/기간/방식(월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체크카드 지급)
- 선발 방식(자격요건 심사의 정량평가+구직활동계획서+오디션)
- 구직활동보고서 증빙활동 및 1주일 간격의 보고
- 지원항목(포괄적 구직활동)
- 전담상담사
- 취업성공수당

라.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의 효과

- 주사용처
- 참여 후 변화(성과, 구직활동빈도, 구직활동시간, 심리·정서적변화 등)
- 요구사항/개선사항/문제점

마.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제도의 장·단점 및 개선사항, 전반적인 평가

바. 취업자 추가질문

- 취업에 있어 청년구직지원금의 도움 여부와 가장 큰 도움이 된 점

사. 전담상담사 추가질문

-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 전담상담사로서의 업무 만족도
-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및 지원

3 조사결과

가. 참여자

미취업 참여자들은 현재 지원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일반기업 및 공기업, 외국계기업 등을 목표로 구직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구직활동 중에 있었다. 구직 지원금으로는 주로 자격증 취득, 교육 및 교재비, 구직활동을 위한 생활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신문구독료, 사진촬영비, 우편료, 창업관련 소모품 및 운영비, 면접용 정장구매, 지방에서 열리는 취업박람회 경비 등 취업과 관련하여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중 애로사항으로는 주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 중소기업기피로 인한 경쟁의 심화,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부족 등 외부의 환경적·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었다.

한편 취업을 한 참여자들은 공기업, 파견업체,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장거리 출퇴근을 가장 힘들어 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참여자들의 경우 경력을 쌓기 위한 경력 사다리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참여 전 상황에 대한 리뷰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해서는 SNS나 홈페이지, 지인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G버스의 광고 또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이 이슈가 되면서 찾아본 경우, 신문기사, 현수막, 취업포털의 배너 광고 등의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었다.

처음 제도에 대해 들었을 때 아주 가난해야 받을 수 있겠지, 지원자가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될까, 신청이나 구직활동 증명 절차가 까다롭지 않을까, 과연 300만원 지급이라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직지원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치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나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나 새롭게 진로를 모색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 보조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반가웠으며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도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하였다.

<표 IV-1> 참여 전 생각

긍정	“취업준비생에게 있어 금전적 문제가 심각해요. 또한 취업준비하는 일정이 인적성시험, 면접 등 일정이 규칙적이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든데, 구직지원금을 준다니 너무 좋았어요” “한줄기 빛 같았어요” “아르바이트하는 비용은 보통 생활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별도의 다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았어요.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 해줘서 좋았어요”
부정	“신문을 통해 접했는데, 구직 활동에 대한 증명과정이 까다롭게 느껴졌고, 서류도 많고, 너무 까다로울 것 같았어요. 보고서가 미흡하면 수령금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어 그거(청년구직지원금) 없어야(가난해야) 받는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고 그거 되도 기분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구직지원금이 취업하지 못 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치부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름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되고도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보는 구직사이트가 달라요. 미디어잡을 보는데 그쪽은 관련 정보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페이스북을 하시다가 해보라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2)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의 세부평가

① 대상조건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은 소득이라는 것에는 모든 참여자가 공감하였다. 하지만 참여자격에서 소득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신청을 받더라도 소득에 따른 선발방식이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선발될 것이기 때문에 지원 기회는 열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소득분위가 높다고 해도 그것은 부모님의 소득이므로 청년 개인이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은 마찬가지라는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

소득이 중요한 평가기준인 만큼 소득산정을 하는데 있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소득산정을 건강보험료로 하는데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중위소득 80%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정확히 얼마정도인지를 몰라 자신이 기준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지원을 포기하려고 하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경기도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현재 거주’나 ‘1년 이상 거주’보다 의무거주기간을 더 상향하여 경기도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야기 하였다.

연령과 실업기간은 참여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나이가 많은 경우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워 금전적이 도움이 더 간절하고 실업기간이 길어질 수록 금전적 자원이 고갈되므로 더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기는 하나 20대 초·중반의 참여자들은 경력이 없고 준비할 것이 많은 청년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IV-2〉 선발조건

소득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잘 사는 집은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취약 계층에게 이러한 혜택이 더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직지원금 대상자 선정을 선발방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소득이 낮은 가정과 소득이 높은 가정 중에서는 소득수준차로 소득이 낮은 가정이 선발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소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 중에 지원하지 못한 친구들이 아예 못살거나 잘살거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소득은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취업준비를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은 다 있어요. 어쨌든 소득 수준에 따른 선발이므로 굳이 소득 수준을 제시 하지 않음으로써 지원 기회를 좀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득분위 산정을 건강보험료로 하는데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같은 경우 1,2월 달까지는 근무를 했었고 2월 중순부터 입사취소가 돼서 근무를 그만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1월부터 3월까지의 건보료 기준으로는 소득분위 기준이 넘는 상황이었어요. 1-3월까지로 보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구직자이고 7월에 지원금을 받으니까 4-6월까지의 기준으로는 저는 적합한데, 이게 간극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도거주 기간	“구직지원금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건이므로 경기도에 오래동안 거주해왔던 사람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년보다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적으로 경기도에 오래 산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가는 이미지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이상으로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 및 실업 기간	“나이가 많은 경우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를 기대할 수 없어 더 간절하고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전적 자원이 고갈되므로 이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다는건 경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경력이 있으면 그래도 취업하기가 신입 보다는 나으니깐.. 준비할 것이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② 지원금액/기간/방식(체크카드)

지원금액(50만원)은 비교적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7월~12월까지 지원되는 것도 하반기 채용일정에 맞추어 매우 잘 짜여졌다는 반응이었다. 이는 경기도가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5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총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직계획에 따라 미리 당겨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학교졸업이후 평균 취업소요기간이 1년 정도되므로 금액을 줄이고 기간을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과 구직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작다는 비판을 생각할 때 금액을 30만원으로 줄이고 대상자를 늘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함은 없으나 후불로 지원되다보니 첫달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사용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예시와 함께 자세하게 제시되길 희망하였다.

<표 IV-3> 지원금액/기간/방식(체크카드)

지원 금액 및 기간	“상반기, 하반기 일정이 잘 맞추어서 지원금 일정이 짜여진 것 같고 기간이나 금액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을 잘하고 있는거 같아요” “타시도도 같은 제도가 있는데 그중 경기도의 지원금이 가장 많은 편이라서 만족스러웠어요” “구직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에 대한 비판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경기도 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부담감이 줄어들지 않나 싶어요. 가령 금액을 30만원으로 줄이고 대상자수를 확대함으로써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금액이 줄더라도 기간이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공채는 6개월에 한 번씩 뽑잖아요, 이거를 받으면 마음의 안정이 많이 생기면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지원을 받으면서 다음엔 뭘 해야지 이런 시험을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6개월이 끝나니까 다음엔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총 지원금액은 같지만 당겨쓸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직계획을 실행 하는데 월별 예산이 다룰 수 있고 5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달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원비도 한달에 딱 50만원이 아니라서 학원 신청을 위해 두 달간 돈을 모았다가 등록해야 하는 등 계획이 딜레이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체크 카드	“사용처를 관리자가 알 수 있고, 사용처 제한을 통해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요. 다만 사용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불 체크카드로 첫 달에는 4주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③ 선발방식

오디션 및 구직활동계획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본인의 구직목표와 계획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원해 주는 것이므로 구직활동계획서를 꼼꼼히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제시하기에 600자는 적다는 반응이었다.

오디션에 대하여 불편함을 토로하는 참여자들이 꽤 있었는데 이는 형식보다는 면접관들의 태도와 반응에 대한 불만이었다. 오히려 형식의 경우 금전적 혜택을 보는 만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복장 등에 대하여 좀 더 엄격한 분위기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한 반면 면접관들의 판단적이고 비난하는 듯한 태도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참여자들이 매우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특히나 면접관들이 청년층의 상황과 취업, 창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점은 제도 취지 자체에 대한 의구심까지 느끼게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표 IV-4〉 선발방식

구직 활동 계획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거니까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건 당연한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분량을 늘리거나 자유분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600자는 넘 적은거 같아요”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분량이나 쓰는데 있어 부담감이나 어려움은 없었어요. 나의 개인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이고, 자기검토가 가능한 계기도 되었구요” “계획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무엇을 어떻게 써야할지 예시가 더 구체적으로 주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계획서로 평가하는 것이라면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그렇다면 일정한 틀이 필요할 것 같고 쓰는 사람도 체계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디션	“오디션이 면접과 같이 조금은 엄한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인데 오디션을 좀 더 심층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50만원씩 받는데 본인도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발 기준이나 방식이 까다로운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 매주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거는 크게 불만이 없었는데, 오히려 구직지원금 하면서 제일 불편했던건 오디션이었어요” “면접관분들이 창업, 청년취업, 청년층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거 같아요” “청년심사위원도 괜찮지 않을까요? 청년 구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이후에는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어시스턴트처럼 활용하면 가서 사용했던 예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나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지원서를 볼 때 창업도 된다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오디션을 볼 때도 창업에 관해 어필을 했구요, 그런데 면접보시는 분들의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것 같아요”

④ 구직활동보고서

참가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구직활동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분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매주 자신의 구직활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1주일마다 보고서를 내야하기 때문에 구인광고나 취업정보를 하나라도 더 찾아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몇몇 참여자들의 경우 루틴한 일상으로 인하여 매주 비슷한 내용을 쓰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례들을 이야기 하였다.

구직지원금 사용과정에서 가장 많은 궁금증이 생겼던 부분이 바로 구직지원금 사용과 활동 증빙이었는데 포괄적 사용이라 하더라도 지원금 사용에 대한 세부항목, 사용하면 안 되는 사례나 사용처 예시에 대해 좀 더 다양하고 세세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가령 큰 금액만 증빙하라고 하였는데 큰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하였으며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전담상담사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상담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상담사들마다 안내해 주는 편차가 존재하여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IV-5〉 구직활동보고서

방식 (주1회)	“금전적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불편함이나 부담감은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매주 구직활동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어 좋은거 같아요” “매주 한번씩 쓰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1주일마다 내야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더 찾아보게 되었어요” “구직활동을 하다보면 루틴한 일상인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매주 비슷한 내용의 보고를 하게 되어서 걱정이 된다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내용	“증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일관성있고 체계적이면 좋겠어요” “지원금을 사용하면 안되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유롭게 쓰라고 포괄적으로 사용처를 제시한 것 같은데, 사소한 것은 아니어도 조금 더 촘촘하게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면 좋겠어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한 예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라는 제시는 아니어도 상한 금액 등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⑤ 전담상담사

전담상담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어서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방식이나 연락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사마다 운영방식의 큰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적하였다.

구직활동에 대한 설명이나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하는 상담사도 있는가 하면 매우 간단하게 처리하는 상담사도 있어 상대적으로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락의 횟수나 방법, 업무처리 등에 있어 운영기준이나 매뉴얼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되길 희망하였다.

일정안내나 변경사항, 공지사항 등의 경우는 개별적인 연락보다는 일괄/공통적으로 받기를 원하였다. 홈페이지의 경우 매주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한번 이상은 방문하므로 공지사항에 올려주면 놓치지 않고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의 FAQ나 게시판 등을 활성화하여 우수사례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경고사례 등을 올려놓는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표 IV-6〉 전담상담사

담당 제도	“궁금한게 있을 때 물어볼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상담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거 같아요” “오디션과 지원금지급 사이에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서 상담사님한테 문의를 많이 했어요” “전화가 오면 좀 겁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지금은 자주 통화하다보니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서로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운영 방식	“저는 상담사분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연락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여가지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되게 좋은데, 제 친구같은 경우는 상담사님이 연락을 거의 안주시는거 같아요. 제가 오히려 친구한테 너 메일 받았어? 하면 메일이 안왔다는 거예요, 우리 10주차에 내는거 있잖아요 그걸 안받았다고 해서 제가 알려줬어요” “저는 지금 여기와서 놀랐는데요, 저는 상담사 선생님이랑 연락을 안하는데 이렇게 연락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 “상담사별로 운영에 있어 개인차가 많은 것 같아요 엄격한 상담사의 경우 구매행위에 대한 설명이나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우는 편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니 좀 그랬어요”
일반 공지 연락	“공지사항이나 점검사항, 변경사항을 체크해 주는 것은 만족하지만 전화는 불편하고 메일이나 문자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알림)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직활동보고서를 업로드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은 꼭 들어가잖아요. 급한 사항이면 문자를 보내주면 공지사항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⑥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에 대한 의견은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의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미취업 참여자들의 경우 취업성공수당이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으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성공수당까지 주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오히려 남은 비용을 지원대상자에서 탈락한 차순위 지원자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취업성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함께 남은 금액을 다 주기보다 취업축하금으로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것도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취업성공수당이 없어진다면 취업을 한다하더라도 취업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같다고 하였다.

반면 취업자들의 경우 취업성공수당이 취업동기유발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취업성공수당이 취업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는 않더라도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었다.

〈표 IV-7〉 취업성공수당

미취업자 (폐지)	“구직지원금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성공수당까지는 오버아닌가요 남은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예산낭비인거 같습니다” “취업성공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굳이 취업성공수당을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준다 해도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취업의 여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여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지원 또는 준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취업자 (존치)	“빨리해서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매주 써야 되는 보고서도 안써도 되고, 목돈이 들어오니 저를 위해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별로 성공수당 때문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취업 후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6개월을 어떻게든 채우거나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씹씹이 자체가 다를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쓸 것 같습니다. 재원적으로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미취업자들을 다시 선정해서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본인에게 주어진 금액이 다른 분에게 가는 것은... 오디션도 보고 매주 구직활동보고서도 쓰고 나름 열심히 활동 한 사항에 대한 보상이라서”
개선	“남은 금액을 다 주는 것보다는 취업촉진금으로 금액을 정해서 한 50만원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직지원금은 취업에 큰 동기부여는 되지 않는거 같아요. 하지만 없어진다면 취업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할꺼 같네요”

(3) 참여 후 변화

심리적 안정감, 자신감, 취업전념 시간 및 활동 선택의 폭 확대, 스펙보완 등 정책 설계 시 기대했던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여주었다.

<표 IV-8> 참여 후 변화

심리적 안정감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집안의 지원을 받기 힘든 경우였는데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줘요. 친구들의 위로보다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저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보완해야 할 점 등은 알고 있는데, 이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인적성 합격률이 높아졌어요” “매월 월말 지불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구직지원금이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감, 든든함이 들어요. 많은 돈이 드는데, 한 부분을 메워주는 기분입니다”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안정감이 들어요. 아르바이트를 두 개 해야 하는 것을 한 개로 줄일 수 있고, 그 시간에 내가 취업준비를 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들구요” “오랜 기간 경찰 준비를 했는데 그만두고 구직활동하면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책사고 독서실 다니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원금 때문에 그런 마음을 덜 수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게 제 스스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신감 적극성 추진력	“금전적/물리적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자신감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내가 취업준비를 하는데 있어 만족감이나 자신감을 얻었다고 할까요. 취업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떨어졌어도 다음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만족감이나 자심감을 얻었어요. 또한 그러한 만족감이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구직지원금 덕에 적극성과 추진력이 생긴거 같아요. 우선순위에 밀려 계획만 가지고 있던 일을 실행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기회가 생겨나 매우 만족해요”
구직 활동 전념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강, NCS준비 등에 돈이 많이 필요해요.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 병행하기가 힘들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현재는 취업준비에 전념하고 있어요”

	“이력서에 필요한 경험사항이나 활동은 무보수인 경우가 많아서 아르바이트와 병행해야 했어요. 구직지원금을 받은 이후로 경험, 경력개발에 몰입할 수 있었어요” “졸업 후 부모님께 손 벌리기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데 취업준비하면서 뒤쳐지는 기분, 능률이 떨어지는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지속성도 떨어지고. 일을 하면서도 까먹지 않을까 불안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서 능률이 떨어졌는데, 지원금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면접보는 횟수도 많아지고 성적도 향상됐어요”
스펙 보완	“예체능 대학을 나왔는데, 사무직을 희망하고 있어요. 관련 경력이나 기술이 부족했는데, 배우지 않은 분야에 대해 보완할 기회를 얻었어요. 경력이 부족해서 지원금으로 직업학원가서 회계, 세무를 배웠고 이를 이력서나 면접에 어필할 수 있어서 자신감도 생겼고 서류합격률도 상승했어요. 목표를 가지고 계획에 따라 준비했다, 노력했다는 말을 하면 면접에도 긍정적이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자소서 인적성 단계별로 준비에 충실할 수 있어서 질적으로 달라진 기분이 들어요. 서류 합격률이 낮아서 첨삭, 학원을 다니고 이를 통해 보완하고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어서 과정별로 준비된 느낌. 나아진 느낌이에요”
부모님과 관계 개선	“책 사는 것, 토익 인강 등 부모님께 받았는데 부모님 카드를 편하게 쓰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부모님께 담당할 수 있었구요” “저도 좋은 한데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잔소리가 줄었어요. 알아보고 하고 있구나, 뭔가 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인정을 받았다고 할까요” “어머님의 권유로 했는데 받아 보니 부모님의 만족감이 높아요. 용돈달라는 얘기를 안하니까”
기타	“지원금 의존으로 안일한 마음이 생겨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감소된거 같기도 해요. 경제적 지원이 끝나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서를 체크해주셔서 경각심을 주는 자극이 필요해요”

(4) 청년구직지원금의 취업도움 여부

청년구직지원금은 취업에 커다란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취업자들은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구직준비 및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으며, 취업컨설팅, 학원비 등을 해결함으로써 취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IV-9> 취업에 도움 여부

도움 여부	“공기업준비, 인강 등에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직지원금 받기 전에는 아르바이트와 취업준비 병행했었는데 취업준비에 전념하기로 했지만 걱정이 되었는데 지원금을 받아서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지원금으로 받은 취업컨설팅이 취업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집중이 가능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더 준비 할 수 있었어요 학원수업 없을 때도 스터디 할 수 있었고, 돈으로 시간을 샀다고 봐요. 시기적으로 학원비를 해결한 순간 고민이 해결이 됐죠. 학원비가 (고가라) 걱정 있었는데 실행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경쟁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안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병행했으면 늦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봐요”
------------------	--

(5) 기타 요구사항

- 맞춤형 지원 : 희망자들에게 금전적 지원 외에 교육훈련이나 전문 프로그램, 정보제공 메일링 서비스와 같은 맞춤형 정보제공
- 사후관리 : 1회성 경제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만을 위한 박람회 개최, 컨설팅 진행 등 지속적 관심과 관리 필요
-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속을 위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패널티 강화하고 엄격한 운영과 함께 암행어사제도나 신문고 등 신고창구 도입 필요
- 운영의 통일성 및 세부 지침 확립 : 상담사에 따라 다른 운영이나 각 사항에 대한 세부적 예시 필요
- 사용처 확대 : 청년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 이자 납부 허용
- 보고서에 대한 보상 : 질 높은 보고서에 대하여 포상을 한다면 과정과 결과의 질적 상승 및 동기부여 가능
- 추가지원 : 6개월 지원이후 계획과 사용여부 등을 평가하여 한번 더 기회를 준다면 제도의 홍보와 운영에 도움이 될 것

나. 전문상담사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들의 인식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참여자 FGI와 병행하여 전담상담사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상담사들은 청년구직지원금을 통한 참여자들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으며 청년구직지원금제도가 청년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상담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많고 관리에 치우친 업무로 인하여 참여자들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맞춤형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는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FGI에서 나왔던 이야기 외에 운영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위주로 기술하였다.

(1) 선발

① 대상조건 및 대상자

전담상담사들은 최근 취업의 트렌드를 반영하듯 공무원·공기업 준비생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30%정도) 이들의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제고해 봐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쿼터를 두어 전담상담사를 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졸업예정자의 경우도 학업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표시하였다.

실업기간의 경우 소득분위가 낮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기간이 짧아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② 선발기준 및 방식

오디션은 아니더라도 꼭 지원이 필요한 참여자인지 가려내기 위하여 면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배점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오디션 시 심사위원들의 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하여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안내가 되어 사업초기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③ 포괄적 지원

취업과 구직과 관련된 활동에 지원해 주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참여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담사들의 적합한 판단을 통해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청년참여자들이 가장 개선되어야한다고 이야기 한 상담사마다 운영방식의 큰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상담사마다의 스타일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은 하지만 사례가 너무도 다양하여 일괄적인 적용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사례를 공유하여 정확한 내용을 참여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표 IV-10> 선발(전담상담사)

대상조건 및 대상자	“제 쪽에 참여자의 경우 공무원 준비생의 비율이 높아서 연락도 되지 않고 매주 제출한 구직활동보고서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인강비나 대주고, 우리가 공무원 만들라고 이일 하나 싶기도 하구요. 우리 사업이 좀 더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따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았어요” “장기간 준비한 참여자 같은 경우는 경제적 문제로 공무원 준비에 몰입하기가 어려웠는데 구직지원금으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다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요” “아무래도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구직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관련 비용도 학용품을 사는데 쓰는 경우가 있어서 졸업예정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급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선발기준 및 방식	“기간이 월 50만씩 6개월인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1년을 30만원을 하거나 해서 장기간으로 진행하게 어떨까 싶기도 하구요” “공무원 준비하는 참여자는 지원금을 잘 쓰지도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리니 금액을 적게 주거나 다르게 하는게 어떨까 해요” “대상자가 취업이 아니고 상급학교에 지원한다고 오디션 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안된다고 하니 화부터 났어요.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게 아닌가? 하니까 ‘이미 면접 통과 했는데’라고 해서 황당했지요” “합격 후 취업의 의지가 없는데도 통과한 대상자가 있었어요. 제대로 선발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예비 합격자를 뒤서 부정사용자 경고 후 제제 조치를 하거나, 구직의사가 없는 학생들은 제외하고 예비합격자를 합격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포괄적 지원	“구직지원금으로 생활비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정말 어려운 친구들은 임대료나 고시원 등 삶이 더 급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또

학원비가 고가라 월 50만원이 넘으면 이체를 허용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준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환경이라 매뉴얼이 있다면 이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서 올해와 같이 상담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참여자들끼리 밴드나 카톡방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는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잘못된 카더라 통신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저한테 따지더라구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일일이 사정을 알 수 없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 구직과 관련된 비용 외에 학원비, 장소대여비 등을 지원해 주는 포괄적 지원이야말로 다른 제도와 차별화된 청년구직지원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 보여집니다”

(2) 구직활동보고

1주마다 제출하는 구직활동보고서의 경우 참여자 FGI에서는 구직활동과 계획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었던 반면 전담상담사들은 매주 같은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고 관리상의 이유를 들어 2주의 한번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되면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어 시간적 여유 생길 것이며 그 시간에 대상자에 필요한 지원 업무가 가능해질 것 같다고 하였다.

(3) 취업성공수당

미취업자와 취업자의 의견이 달랐던 취업성공수당의 경우 전담상담사들은 관리와 지원금의 목적을 들어 대기자를 두어 구직활동이 어려운 다른 지원자를 돕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미취업자들의 의견과 같았다.

(4) 사후관리

전담상담사들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참여자들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을 수 있을뿐더러 모든 참여자의 사후관리는 업무과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참여자들에 한하여 지원할 것을 희망하였다. 또한 지원 방법으로는 기존의 프로그램 및 직업정보 제공,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원하는 방법 등이 좋은 것 같다는 방법일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5) 청년구직지원금의 구직활동 및 취업 도움 여부

〈표 IV-11〉 구직활동 및 취업 도움 여부(전담상담사)

자신감과 의욕고취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어 의욕적으로 구직활동에 매진하는거 같아요. 그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도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목말라 있었던거죠” “참여자 중에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35세이고 부모는 별거상태로 3년전 히키코모리 상태로 지낸 친구가 페이스북을 보고 지원했는데, 지원금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지원금으로 주얼리 디자인 전문교육과정도 듣고.. 11월 취업이 되었지요. 지원금 덕분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구직 활동의 빈도 증가	“저희 상담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았는데 지원서 제출 건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구직지원금이 구직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취업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정보	“사용처 안내나 사용방법의 안내 중에 자연스럽게 취업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는거 같아요. 몇 주후에는 제가 얘기한대로 그대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디에 쓸 줄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참여자들에게 사용가능한 교육기관이나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면, 그런곳이 있나요? 라며 알아보고 준비하더라구요”

(6) 애로사항

〈표 IV-12〉 애로사항(전담상담사)

업무강도	“7월에 1차 참여자를 배정받고 돌아가던 중 9월에 2차 대상자의 서류접수가 시작되면서 1차 참여자의 요청사항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어요. 막 친해지려던 무렵이었는데 관계 형성이 잘 되지 않고 인원이 많아져서 심층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지원이 되려면 인원을 줄여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싶으나 매주 참여자의 구직활동보고서 취합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미비한 서류에 대한 피드백 작업이 많아 다른 업무는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시스템상의 세부페이지가 너무 많고 한 업무를 할때도 이 메뉴 저 메뉴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해요. 페이지 간소화, 피드백기능, 일괄공지기능 등이 추가되면 업무가 한결 수월할 것 같아요”
------	--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하는 친구들은 낮에는 연락이 되지 않고, 다른 학생들도 초기에는 연락을 잘 받다가 최근에는 잠수타는 참여자들이 늘기도 하고요”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 초반에는 방어적이고 고압적인 참여자들이 많았어요. 라포형성을 위해서라도 참여자들과 대면하는 기회가 있으면 업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업무만족도

참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심층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청년구직지원금 상담사 업무에 매우 만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이 경기도내 정책 중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가장 큰 만족요인은 참여자들의 변화로, 사업의 종료가 가까워오며 따라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아쉬움과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으며 일부 참여자의 경우는 누군가 자신을 응원해 주고 있다는 것에 감동하여 구직활동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전담상담사들을 가슴 뭉클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초반이나 최종시점에서 통일된 양식의 부재나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적 대응 등으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된 면은 수정되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재단 내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 참여자들에게 추천해 주면 좋을 사업이 있는데 충분하게 공유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웠다고 하였다.

(8) 기타 제안사항

- 지원기간동안 직접적인 상담이나 프로그램, 행사를 기획하여 상담사와 참여자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임.
- 현재의 상담사의 역할은 관리에 치우쳐 있는 면이 있으므로 좀 더 내실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원이나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함.
- 심리상담이나 금전지원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전담상담사 배정 시 참여자들을 지역으로 묶어서 전담상담사를 배정하여 지역 내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임.
- 사업기간 종료 후 재지원이 필요한 지원자들이 있음. 공정한 절차를 거쳐 2차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 있음.
- 취업을 성과로 보기에 사업이 단기임. 단기에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시도보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상담사의 역할이라 생각함.

4 소결

참여자들은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해 이제껏 그 어떤 지원정책보다 체감적으로 와닿는 정책으로 잘 정착되어 많은 청년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이유로 참여자들이 꼽는 청년구직지원금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별 구직계획에 따른 지원금의 자유로운 사용이었다. 구직에 필요한 활동비, 자기개발비, 학원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좋으며,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기존 창업지원금이 사업비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구직지원금은 창업준비를 위한 활동비, 제반 경비 등에 사용이 가능해 다른 어떤 지원금보다 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사용을 허용할 경우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와는 달리 애초 정책의 의도에 부합하는 용도로 지원금은 사용되고 있었다. 오히려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보다 참여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는 항목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자신들이 받은 혜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지원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스스로들 원하고 있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지원금을 통하여 개인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목적을 달성하는 1차적 효과 외에, 경제적인 도움이 시간적 여유로, 또 이러한 여유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 생활비와 취업자금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그 시간동안 뒤쳐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는데 구직지원금이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준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여유에 전담상담사의 지원까지 더해져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구직활동에 자신감과 적극성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었다는 평가는 청년구직지원금 설계 시 기대한 가장 큰 효과라 할 수 있으며 청년구직지원금이 퍼주기식 청년정책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기회와 선택의 폭 확대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청년구직지원금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구직지원금은 청년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포기해야했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활동들을 과감히 시도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져 성취감과

자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취업으로 이어졌다.

반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점으로는 현재 월별로 정해져 있는 지원금액이나 지원방식으로, 구직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한 달이 있는데 월별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구직계획 실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였다. 구직지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직계획에 맞게 월별로 금액을 조정하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기를 희망하였지만 이는 행정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이 안정화되면 전담 상담사의 엄격한 판단아래 적합한 신청절차를 통하여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직하다.

한편 청년구직지원금의 인식과 관련하여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나 실업자를 지원한다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었다. 제도를 홍보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홍보해야 할 것이다.

운영에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지원금의 사용, 전달체계 등의 체계화이다. 상담사의 성향이 다르고 3,000여명이 넘는 청년들을 지원하다보니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대응은 참여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운영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의 사용처, 증빙방법, 전달체계 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례들을 참여자들과도 공유함으로써 오해를 방지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자 측에서는 구직계획과 목표에 따라 인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결과만으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정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주 소수이기는 하나 부정직한 참여자들은 청년구직지원금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점진적으로 사후관리와 함께 질 높은 보고서에 대한 포상이나 참여자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제도의 홍보뿐만 아니라 이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도 동기부여와 함께 구직계획 수립이나 구직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거듭된 실패로 좌절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인생의 실패로 생각되면서 부모님께 미안함을 느끼고 사회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50만원은 경제적 의미를 넘어 관심과 지지로 다가갔고 세상을 향해 뒤통수를 맞고 '나도 해보야겠다'는 동기를 심어주었다. 이는 취업에 긍정적인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6개월 내의 취업으로는 이어지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 청년구직지원금 효과 분석

1 조사개요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의사가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시행되었다. 청년구직지원금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지원(1차) 종료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구직관련 특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설문은 사전설문 응답자 1,947명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 20일 ~ 2018년 1월 7일까지 메일과 문자로 링크를 배포하여 조사하였으며 1,456명이 응답하였다. 이중 통계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1,45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 대상자 현황은 <표 V-1>과 같다.

<표 V-1> 사전사후설문 최종분석대상자의 특성

구 분		전체참여자		사전설문분석대상자		최종분석대상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자	1,318	41.7	782	40.2	556	38.3
	여자	1,839	58.3	1165	59.8	894	61.7
연령별	18-20세	118	3.7	66	3.4	44	3.0
	21-25세	1,596	50.6	1001	51.4	760	52.4
	26-30세	1,146	36.3	639	32.8	531	36.6
	31-34세	297	9.4	241	12.4	115	7.9
최종 학력	고등학교졸업 이하	292	9.2	147	7.6	89	6.1
	전문대졸업	561	17.8	319	16.4	231	15.9
	4년제대학 졸업	2,199	69.7	1411	72.5	1,071	73.9
	대학원이상 졸업	109	3.3	70	3.6	59	4.1
실업 기간	6개월미만	1,599	50.6	783	40.2	584	40.3
	6개월이상-12개월미만	361	11.4	459	23.6	341	23.5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478	15.1	303	15.6	222	15.3
	24개월이상	601	19.0	335	17.2	258	17.8
	무응답	118	3.7	67	3.4	45	3.1

구 분		전체참여자		사전설문분석대상자		최종분석대상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 준비도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높음			866	44.5	649	44.8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낮음			452	23.2	342	23.6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높음			123	6.3	90	6.2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낮음			506	26.0	369	25.4
전 체		3,157		1,947		1,450	

2 조사도구

사후설문지는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하여 사전설문과의 비교를 요하는 내용이므로 사전설문과 동일한 척도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구직지원금의 사용 및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을 받는 6개월 동안 취업한 참여자들에 대하여 취업과 관련된 사항과 함께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한편 3,157명중 사전설문 응답자 1,947명을 제외한 1,210명에게도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작성하여 설문조사(B타입)를 병행 하였으며 총 378명의 자료를 회수하여 분석에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표 V-2> 응답자 특성(B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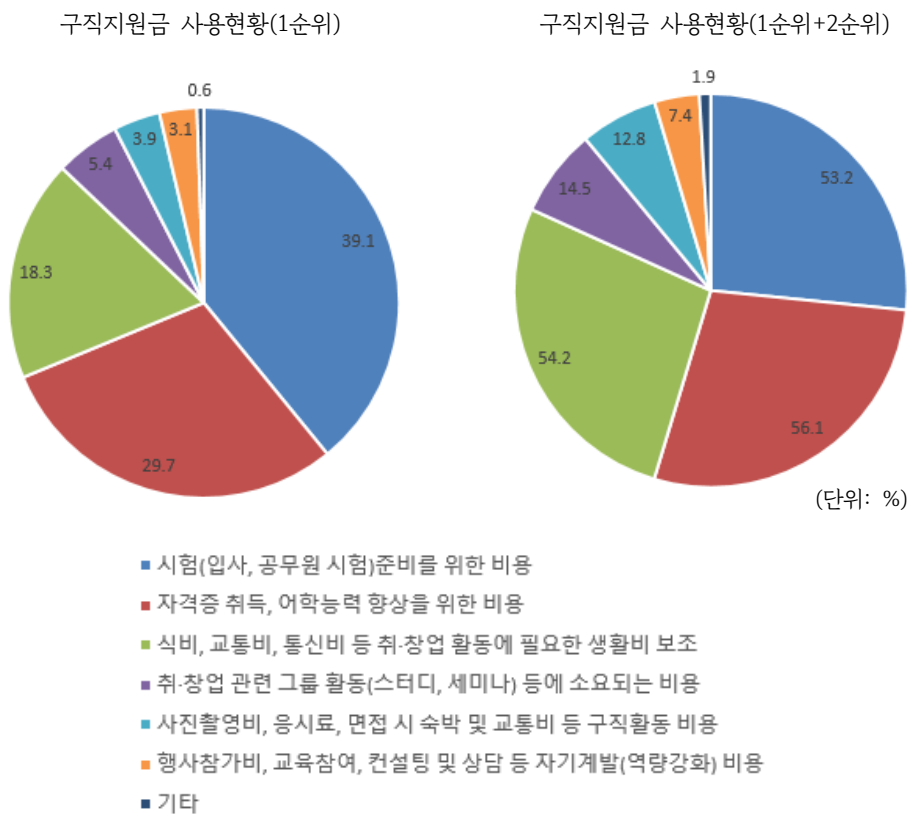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자	149	39.4
	여자	229	60.6
연령별	18-20세	14	3.7
	21-25세	188	49.7
	26-30세	133	35.2
	31-34세	43	11.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	7.1
	전문대 졸업	72	19.0
	4년제 대학 졸업	265	70.1
	대학원 이상 졸업	14	3.7
전 체		378	100.0

3 조사결과

가. 구직지원금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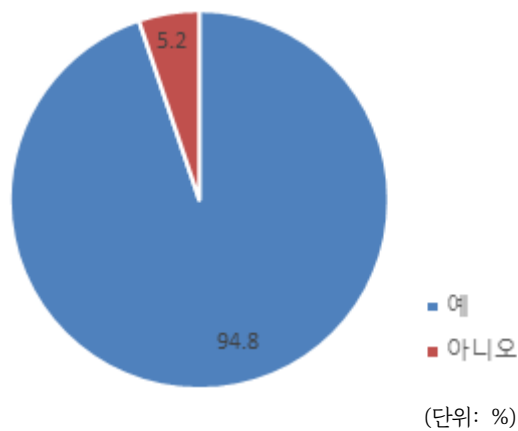
청년구직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입사시험(공무원준비 포함)을 위한 교재비 학원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응답자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 취득,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식비·교통비·통신비 등 생활비의 순으로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2순위를 모두 포함하면 자격증 취득,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식비·교통비·통신비 등 생활비, 입사시험(공무원준비 포함)을 위한 비용 등의 순으로, 생활비 보조로 사용한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그림 V-1] 구직지원금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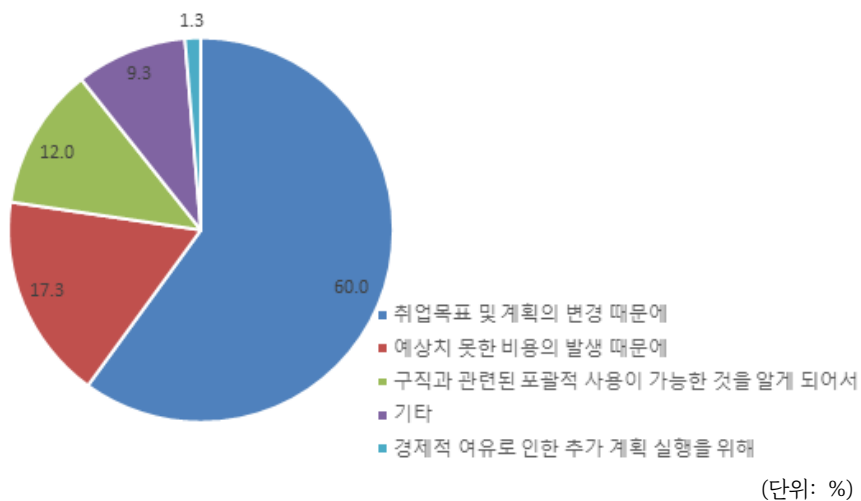


청년구직지원금 신청 시 계획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94.8%가 계획대로 사용하였으며 5.2%는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취업목표 변경에 따라 계획이 변경된 경우가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의 발생을 꼽았다. 기타 답변으로는 건강 등의 사정으로 취업활동을 못하게 된 경우, 체크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여 지불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림 V-2] 계획에 따른 사용 여부



[그림 V-3]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



나. 취업자 현황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기간 동안 취업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 응답자 1,450명중 39.0%인 56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현황은 <표 V-3>과 같다.

<표 V-3> 취업자 현황

구 분		N	취업		미취업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556	223	40.1	333	59.6
	여	894	343	38.4	551	61.6
연령	18-20세	44	14	31.8	30	68.2
	21-25세	760	299	39.3	461	60.7
	26-30세	531	211	39.7	320	60.3
	31-34세	115	42	36.5	73	63.5
최종 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89	37	41.6	52	58.4
	전문대졸업	231	102	44.2	129	55.8
	4년제대학졸업	1,071	397	37.1	674	62.9
	대학원졸업이상	59	30	50.8	29	49.2
실업 기간	6개월미만	584	258	44.2	326	55.8
	6개월이상-12개월미만	341	130	38.1	211	61.9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222	78	35.1	144	64.9
	24개월이상	258	83	32.2	175	67.8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 준비도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높음	649	273	42.1	376	57.9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낮음	342	127	37.1	215	62.9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높음	90	36	40.0	54	60.0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369	130	35.2	239	64.8
전 체		1,450	566	39.0	884	61.6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한 일자리가 자신이 목표로 설정했던 일자리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76.9%가 목표했던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목표 일자리 취업여부

구 분		N	목표일자리		목표일자리 아님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223	182	81.6	41	18.4
	여	343	253	73.8	90	26.2
연령	18-20세	14	9	64.3	5	35.7
	21-25세	299	224	74.9	75	25.1
	26-30세	211	170	80.6	41	19.4
	31-34세	42	32	76.2	10	23.8
최종 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37	27	73.0	10	27.0
	전문대졸업	102	80	78.4	22	21.6
	4년제대학졸업	397	304	76.6	93	23.4
	대학원졸업이상	30	24	80.0	6	20.0
실업 기간	6개월미만	258	199	77.1	59	22.9
	6개월이상-12개월미만	130	98	75.4	32	24.6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78	60	76.9	18	23.1
	24개월이상	83	65	78.3	18	21.7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 준비도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높음	273	212	77.7	61	22.3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낮음	127	102	80.3	25	19.7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높음	36	30	83.3	6	16.7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130	91	70.0	39	30.3
전 체		566	435	76.9	131	23.1

목표 일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취업한 131명에게 목표 일자리에 취업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묻은 결과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염려되어서, 학력,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취업한 일자리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4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기업,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기타의 순이었다. 기타에는 중견기업과 병원이 주를 이루었고 아웃소싱업체, 학습지 교사, 골프장 등이 있었다.

[그림 V-4] 목표일자리에 취업하지 않은 주된 이유



[그림 V-5] 취업일자리 유형



현재 취업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에 대한 결과는 정규직이 63.8%, 계약직이 21.0%, 인턴 9.2%, 창업 및 프리랜서 6.0%였으며 기타에는 일용, 특수고용직 등의 소수 답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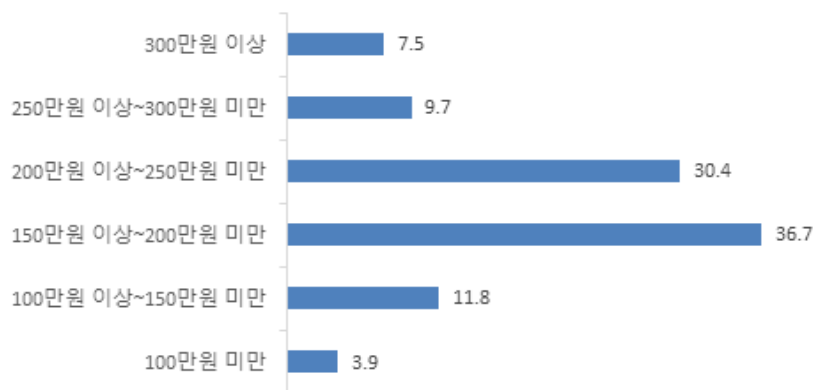
[그림 V-6] 취업일자리 종사상 지위



(단위: %)

취업한 일자리에서 받는 월평균 임금은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6.7%,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30.4%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192.94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7] 취업일자리 월평균임금



(단위: %)

다. 취·창업 준비 및 구직활동

(1) 노력정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후의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전검사 시 노력정도는 3.33점, 사후검사의 노력정도는 3.37점으로 나타났다. 청년구직지원금을 받으면서 노력의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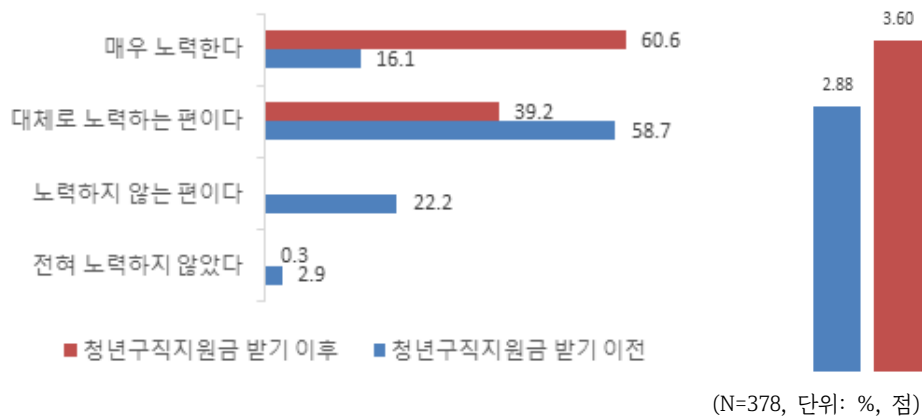
<표 V-5>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정도 사전사후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노력정도	1,450	3.33	0.548	-2.663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노력정도	1,450	3.37	0.535	

**p<0.01

한편 사전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집단은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후의 노력정도에 대하여 각각 2.88, 3.60으로 응답하였다. 즉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받기 전에는 ‘노력하지 않는 편이었다’ 에서 ‘대체로 노력하는 편이었다’ 사이였다면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받는 동안은 ‘대체로 노력하는 편이다’ 에서 ‘매우 노력한다’ 사이로 나타나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 받는 동안 자신들의 노력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림 V-8]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정도 사전사후비교(B그룹)



(2) 지출비용

월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사전·사후 설문조사 그룹은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받기 이전보다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받는 동안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직활동 비용을 실제적으로 덜 사용했다기 보다는 청년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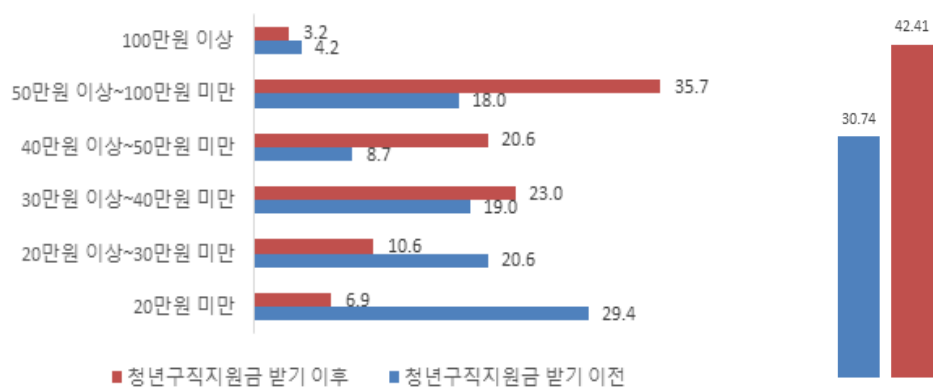
지원금을 지원받으면서 구직활동보고서 등을 통하여 매주 실제 쓴 비용에 대하여 관리하게 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자신의 취(창)업 준비 및 구직활동 비용을 수치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답할 수 있도록 한 집단에서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이전 월평균지출비용은 30.74만원, 이후의 월평균지출비용은 42.41만원으로 대답한 것을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표 V-6>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한 지출비용 사전사후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지출비용	1,450	44.04	21.53	2.286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지출비용	1,450	42.66	22.27	

*p<0.5

[그림 V-9]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한 지출비용 사전사후비교(B그룹)



(N=378, 단위: %, 만원)

(3) 투자시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후의 취(창)업 및 구직활동을 위하여 하루에 투자하는 평균 시간을 살펴본 결과는 <표 V-7>과 같다. 2시간미만은 246명에서 164명으로 5.7% 줄어든 반면 2시간이상~4시간미만은 2.9%, 6시간이상은 3.1% 증가하였다.

한편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답한 B집단의 경우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이전 투자시간이 평균 3.85시간, 지원기간동안은 평균 5.61시간을 취(창)업 및 구직 활동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구직지원금이 취(창)업 준비 및 구직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한 투자시간 사전사후 빈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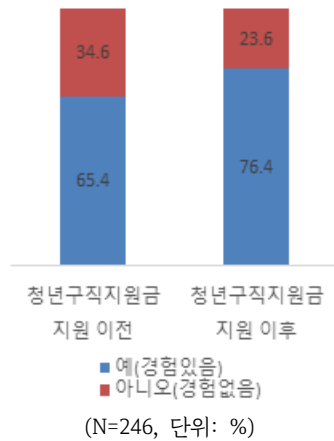
구 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투자 시간	2시간미만	246	17.0	164	11.3
	2시간이상~4시간미만	372	25.7	415	28.6
	4시간이상~6시간미만	379	26.1	374	25.8
	6시간이상	453	31.2	497	34.3
전 체		1,450	100	1,450	100

(4) 구직활동 경험여부 및 일자리 직접 지원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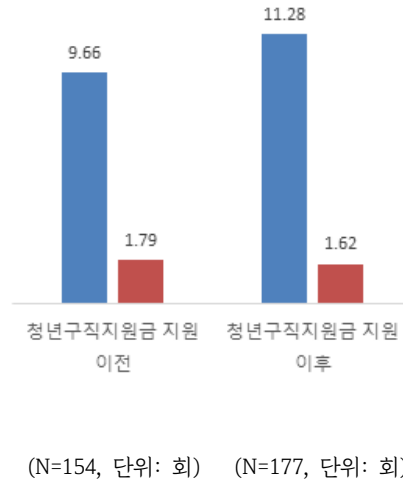
구직활동 경험여부 및 일자리 직접 지원횟수의 경우 사전·사후 검사에서는 취업자로 인하여 표본의 수와 기간이 상이하여 비교가 어려워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답한 B집단을 통하여 변화를 측정하였다.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받기 이전 6개월 동안과 지원받는 동안의 구직활동 경험여부를 비교한 결과 지원받기 이전 65.4%보다 11% 증가한 76.4%가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95.7%, 94.1%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었다.

또한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이전 6개월 이내에 취업을 위하여 일자리에 직접 지원한 횟수는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이전 평균 9.66회였으나 청년구직지원금 지원기간 동안은 11.28회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이 직접 지원횟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종면접까지 도달한 횟수는 지원이전이 1.79회, 지원이후가 1.62회로, 오히려 지원기간 동안 횟수가 줄어 들었다.

[그림 V-10] 구직활동 경험여부 비교



[그림 V-11] 일자리직접지원 및 최종면접 횟수 비교



라. 심리적 요인

(1) 진로장벽

사전·사후조사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진로장벽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자기명확성부족, 직업정보부족, 미래불안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자 집단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표 V-8> 진로장벽 사전사후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
자기명확성 부족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1,450	2.01	0.538	3.911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1,450	1.96	0.554	
직업정보 부족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1,450	2.14	0.580	6.354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1,450	2.06	0.554	
경제적 어려움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1,450	2.50	0.444	-16.694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1,450	2.75	0.633	
미래불안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1,450	2.55	0.568	6.290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1,450	2.47	0.608	

***p<0.00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표 V-9> 진로장벽 사전사후 비교(미취업자)

		N	평균	표준편차	t
자기명확성 부족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884	2.02	0.538	2.200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884	1.99	0.548	
직업정보 부족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884	2.15	0.572	5.475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884	2.07	0.547	
경제적 어려움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884	2.52	0.451	-17.132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884	2.83	0.592	
미래불안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884	2.61	0.559	2.461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884	2.56	0.588	

*p<0.5, ***p<0.00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 평균값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실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 압박이 증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6개월간의 구직지원금 지원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별도의 것임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청년구직지원금의 방향성이 복지의 성격이 아닌 구직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기명확성부족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데 비하여 연령에 있어 18~20세 집단에서는 오히려 평균값이 증가하였으며 그룹간의 시간 차이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18~20세 집단은 사전조사에서도 타 연령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평균값이 낮은 가운데 사후조사를 통해서도 자기명확성 부족의 정도가 더 심화되었다는 것은 이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이외에 다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탐색이나 의사결정기술 등에 대한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표 V-10> 연령에 따른 자기명확성 부족 사전사후 비교

구 분		사전	사후	변량	자유도	F
자기명확성 부족	18~20세	2.07	2.11	0.291	3	3.087 *
	21~25세	2.06	1.98			
	26~30세	1.95	1.94			
	31~34세	1.95	1.90			
전 체		2.01	1.96			

*p<0.5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2) 구직효능감

구직효능감의 사전·사후 조사결과, 전체집단과 미취업자 집단 모두 하위요인 중 구직목표와 구직동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반면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에 있어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이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실제로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직무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구직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의 구직역량을 키우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V-11> 구직효능감 사전사후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
구직목표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1,450	3.91	0.718	0.194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1,450	3.90	0.718	
구직동기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1,450	3.59	0.603	-0.673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1,450	3.60	0.619	
구직강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1,450	3.27	0.774	-4.491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1,450	3.35	0.740	
구직기술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1,450	3.66	0.650	-5.438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1,450	3.74	0.662	

***p<0.00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표 V-12> 구직효능감 사전사후 비교(미취업자)

		N	평균	표준편차	t
구직목표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884	3.90	0.717	-.783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884	3.91	0.712	
구직동기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884	3.55	0.600	.608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884	3.54	0.590	
구직강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884	3.13	0.772	-5.443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884	3.25	0.717	
구직기술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884	3.63	0.647	-3.988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884	3.71	0.645	

***p<0.00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자기명확성 부족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직효능감 중 구직강도에 있어 연령에 따라 그룹간의 시간 차이가 유의한 값을 보였는데 18~20세, 21~25세 집단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증가의 폭이 컸으며 31~34세 집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0세 집단의 경우 자기명확성과 구직강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으나 금전적 지원 외에 다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 V-13> 연령에 따른 구직강도 사전사후 비교

구 분		사전	사후	변량	자유도	F
구직강도	18-20세	2.97	3.07	0.715	3	3.014 *
	21-25세	3.21	3.34			
	26-30세	3.35	3.37			
	31-34세	3.35	3.35			
전 체		3.27	3.35			

*p<0.5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3) 사회적지지

사후조사에서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들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식은 3.74점으로 사전조사에서의 3.68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항목의 값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취업자 집단만을 분석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년구직지원금이 청년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14> 사회적지지 인식 사전사후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
사회적 지지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1,450	3.68	0.746	-3.530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1,450	3.74	0.739	

***p<0.00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표 V-15〉 사회적지지 인식 세부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
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1,450	3.36	1.012	-4.751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1,450	3.49	0.967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1,450	3.63	1.053	-4.474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1,450	3.75	1.014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1,450	3.94	0.849	0.520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1,450	3.93	0.843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1,450	3.77	0.981	-.401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1,450	3.78	0.963	

***p<0.00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표 V-16〉 사회적지지 인식 세부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미취업자)

		N	평균	표준편차	t
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884	3.31	1.014	-4.152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884	3.45	0.945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884	3.57	1.070	-2.352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884	3.65	1.038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884	3.91	0.850	0.843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884	3.89	0.854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884	3.72	1.005	0.608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884	3.70	1.001	

*p<0.5, ***p<0.00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4)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의 경우 문항의 특성상 미취업자 집단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하위요인 중 취업불안의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미취업상태가 길어짐에 따라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사후설문의 시기가 6개월간의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이 끝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지원의 종료로 불안감을 더 증가시켰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므로 금전적 지원 종료이후 이들 미취업자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후적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표 V-17> 취업스트레스 사전사후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
취업불안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884	2.08	1.027	-4.206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884	2.21	1.027	
취업압박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884	2.55	0.877	-1.528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884	2.59	0.864	

***p<0.00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5) 생활만족도

사전·사후조사에 나타난 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의 생활만족도는 3.32점에서 3.47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생활만족도의 상승은 취업자를 제외한 미취업자 집단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표 V-18> 전반적 생활만족도 사전사후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
생활 만족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1,450	3.32	0.881	-7.296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1,450	3.47	0.869	

***p<0.001

주: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표 V-19> 전반적 생활만족도 사전사후 비교(미취업자)

		N	평균	표준편차	t
생활 만족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	884	3.30	0.863	-4.289 ***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후	884	3.40	0.844	

***p<0.001

주: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표 V-20〉 최종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 사전사후 비교

구 분		사전	사후	변량	자유도	F
생활 만족도	고등학교졸업이하	3.27	3.22	0.987	3	3.541 *
	전문대졸업	3.16	3.35			
	4년제대학졸업	3.35	3.51			
	대학원졸업이상	3.56	3.53			
전 체		3.32	3.47			

*p<0.5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한편 생활만족도에 있어 최종학력에 따라 시간차 반복측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룹간의 시간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조사에서 전문대 졸업 집단은 4년제 대학졸업집단과 대학원 졸업이상 집단보다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였는데 사후조사에서는 전문대졸업 집단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원 졸업이상 집단은 사후조사의 평균값이 더 낮아졌다.



Ⅵ. 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만족도

사후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대한 만족도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2017년 1차 참여자 3,157명 중 사전사후설문 응답자 1,450명과 B타입 설문 조사 응답자 378명 등 총 1,828명(57.9%)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조사내용

문항은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의 도움여부, 항목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기대충족도, 개선사항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 VI-1>과 같다.

<표 VI-1> 만족도 조사내용

번호	설문문항	보 기
1	귀하께서는 청년구직지원금이 구직활동 및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3. 보통 4. 다소 도움이 됨 5. 매우 도움이 됨
1-1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으로 귀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심리적 안정감 2. 자신감, 적극성, 추진력 상승 3. 구직활동 전념 4. 스펙 보완 5. 선택의 폭 확대 6.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 7. 기 타
1-2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주관식
2	다음은 청년구직지원금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2-1	선발기준 (연령, 소득, 경기도거주기간, 실업기간)	5점 척도 1. 매우 불만족
2-2	구직활동계획서	2. 불만족
2-3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50만원씩 6개월)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번호	설문문항	보 기
2-4	지원금 지급방식(체크카드)	
2-5	구직활동보고서	
2-6	지원금의 사용가능 범위(포괄적 구직활동)	
2-7	취업성공수당	
2-8	전담상담사	
2-9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귀하는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귀하께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받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	귀하께서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원 대상자 확대 2. 총 금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월 지원 금액의 유연한 운영 3. 지원금 사용처 확대(학자금 대출 이자 납입 등) 4. 경제적 지원 외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등) 5.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패널티 강화 6. 우수 구직활동보고서 등에 대한 포상 7. 일관성있는 행정처리 및 운영 8. 기타

2 응답자 특성

응답자 1,828명의 특성은 <표 VI-2>와 같다.

<표 VI-2> 응답자 특성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자	705	38.6
	여자	1,123	61.4
연령별	18-20세	59	3.2
	21-25세	948	51.9
	26-30세	663	36.3
	31-34세	158	8.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7	8.0
	전문대 졸업	296	16.2
	4년제 대학 졸업	1,322	72.3
	대학원 이상 졸업	63	3.4
취업여부	취업	698	38.2
	미취업	1,130	61.8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준비도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높음	899	49.2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낮음	387	21.2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높음	99	5.4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낮음	443	24.2
구직활동 계획서	S등급	822	45.0
	A등급	808	44.2
	B등급	198	10.8
전 체		1,828	100.0

3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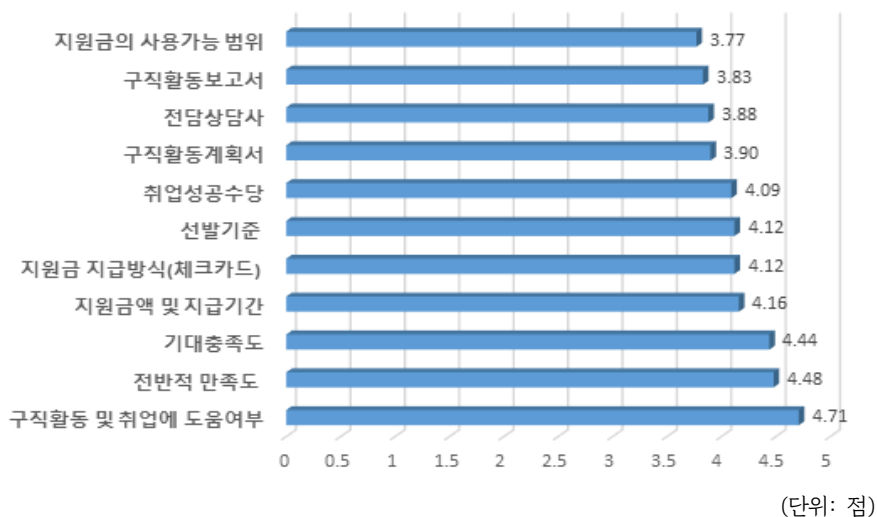
가. 참여자 만족도 요약

전체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여 <표 VI-3>과 <그림 VI-1>에 제시하였다.

<표 VI-3> 참여자 만족도 요약

문항		만족도 (5점 만점)
구직활동 및 취업에 도움 여부		4.71
항목별 만족도	선발기준(연령, 소득, 경기도거주기간, 실업기간)	4.12
	구직활동계획서	3.90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50만원씩 6개월)	4.16
	지원금 지급방식(체크카드)	4.12
	구직활동보고서	3.83
	지원금의 사용가능 범위	3.77
	취업성공수당	4.09
	전담상담사	3.88
	전반적 만족도	4.48
기대충족도		4.44

[그림 VI-1] 참여자 만족도 요약



나. 구직활동 및 취업에 도움 여부

청년구직지원금이 구직활동이나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대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82.2%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VI-4> 구직활동 및 취업에 도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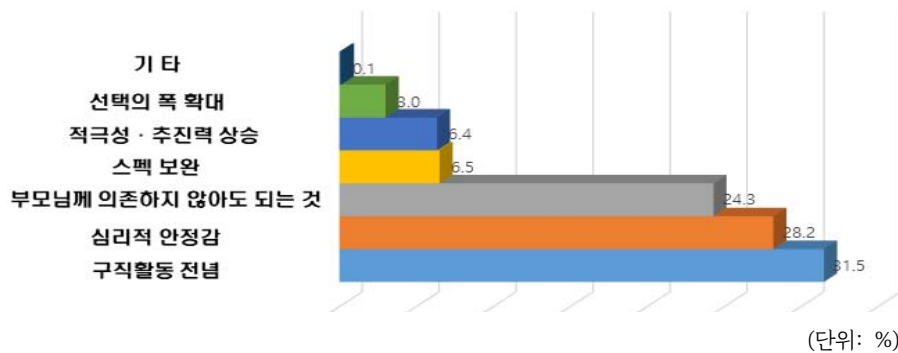
(단위: %, 점)

구 분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만족도
성별	남자	0.0	0.1	2.7	19.0	78.2	4.75
	여자	0.0	0.1	2.3	26.2	71.4	4.69
연령별	18-20세	0.0	0.0	5.1	23.7	71.2	4.66
	21-25세	0.0	0.1	1.8	24.3	73.8	4.72
	26-30세	0.0	0.2	3.0	20.2	76.6	4.73
	31-34세	0.0	0.0	3.2	31.6	65.2	4.6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0.0	0.0	4.1	27.9	68.0	4.64
	전문대 졸업	0.0	0.0	3.4	25.7	70.9	4.68
	4년제 대학 졸업	0.0	0.2	2.1	22.4	75.3	4.73
	대학원 이상 졸업	0.0	0.0	1.6	23.8	74.6	4.73
취업 여부	취업	0.0	0.0	2.4	24.6	72.9	4.70
	미취업	0.0	0.2	2.5	22.7	74.7	4.72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 준비도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높음	0.0	0.0	1.6	16.2	82.2	4.81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낮음	0.0	0.3	3.4	26.9	69.5	4.66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높음	0.0	0.0	1.0	20.2	78.8	4.78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낮음	0.0	0.2	3.8	35.7	60.3	4.56
구직 활동 계획서	S등급	0.0	0.1	1.8	21.7	76.4	4.74
	A등급	0.0	0.1	2.6	23.9	73.4	4.71
	B등급	0.0	0	4.5	28.8	66.7	4.62
전 체		0.0	0.1	2.5	23.4	74.0	4.71

다. 지원에 따른 가장 큰 도움 사유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구직활동에 전념 - 심리적 안정감 -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의 순으로 나타났다(1순위). 하지만 18세~20세, 31~34세, 전문대 졸업,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모두 낮은 집단의 경우 구직활동 전념보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꼽은 참여자가 더 많았다.

[그림 VI-2] 지원에 따른 가장 큰 도움 사유



그런데 18~20세 집단의 경우는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심리적 안정감 - 구직활동 전념의 순으로 응답의 수가 많았으며,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집단은 심리적 안정감 -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구직활동 전념의 순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다.

라.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례는 총 2건으로 이유와 응답자 특성은 <표 VI-5>와 같다.

<표 VI-5>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이유	응답자 특성
내가 원하는 기업 취업, 기술획득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 부족하다	남자, 26~30세, 4년제 대학졸업, 미취업기간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낮음,
처음에 금전적인 지원받고 상담도 해줄 것처럼 조사하다가 한번도 실행한 적이 없다	여자, 21~25세, 4년제 대학졸업,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마. 항목별 만족도

(1) 선발기준(연령, 소득, 경기도 거주기간, 실업기간)

선발기준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집단은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높음, 18~20세 집단이며,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집단은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31~34세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6〉 선발기준

(단위: %, 점)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
성별	남자	0.6	2.4	15.0	43.4	38.6	4.17
	여자	0.6	1.8	18.6	45.5	33.5	4.09
연령	18~20세	0.0	0.0	23.7	32.2	44.1	4.20
	21~25세	0.4	1.7	17.1	43.0	37.8	4.16
	26~30세	0.5	2.3	16.4	48.0	32.9	4.11
	31~34세	2.5	3.8	19.0	45.6	29.1	3.9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	3.4	21.8	38.1	34.7	4.00
	전문대 졸업	0.3	1.7	20.9	41.2	35.8	4.10
	4년제 대학 졸업	0.5	2.0	15.6	46.4	35.6	4.15
	대학원 이상 졸업	1.6	1.6	23.8	41.3	31.7	4.00
취업 여부	취업	0.6	1.9	17.6	46.8	33.1	4.10
	미취업	0.6	2.1	17.0	43.4	36.9	4.14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 준비도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높음	0.7	1.6	13.6	39.2	45.1	4.26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낮음	0.8	2.3	16.3	52.7	27.9	4.05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높음	0.0	1.0	13.1	54.5	31.3	4.16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낮음	0.5	2.9	26.4	46.7	23.5	3.90
구직 활동 계획서	S등급	0.4	1.7	15.7	43.9	38.3	4.18
	A등급	0.6	2.6	17.8	45.5	33.4	4.09
	B등급	1.5	1.0	21.2	44.4	31.8	4.04
전체		0.6	2.0	17.2	44.7	35.4	4.12

(2) 구직활동계획서

구직활동계획서는 신청 시 자신의 구직목표와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높음 집단의 만족도 값이 가장 높았다. 반면 비교적 작성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집단의 만족도 값이 가장 낮았고 그다음이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낮음,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7> 구직활동계획서

(단위: %, 점)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
성별	남자	0.7	4.5	20.1	43.8	30.8	3.99
	여자	1.1	4.0	27.7	43.9	23.3	3.84
연령	18~20세	0.0	5.1	33.9	27.1	33.9	3.90
	21~25세	0.7	3.8	26.2	43.8	25.5	3.90
	26~30세	1.1	4.2	21.9	46.2	26.7	3.93
	31~34세	1.9	6.3	25.3	41.1	25.3	3.8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	7.5	27.9	34.0	27.9	3.77
	전문대 졸업	0.7	3.4	28.7	38.5	28.7	3.91
	4년제 대학 졸업	0.7	3.9	23.8	46.1	25.4	3.92
	대학원 이상 졸업	3.2	6.3	19.0	44.4	27.0	3.96
취업부	취업	1.0	4.4	23.6	46.0	24.9	3.89
	미취업	0.9	4.1	25.5	42.6	27.0	3.91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 준비도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높음	1.0	3.0	18.5	42.6	34.9	4.07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낮음	1.0	5.2	30.0	46.3	17.6	3.74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높음	0.0	4.0	19.2	50.5	26.3	3.99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낮음	0.9	5.9	34.3	42.9	16.0	3.67
구직 활동 계획서	S등급	0.7	3.9	22.0	46.8	26.5	3.95
	A등급	1.1	4.8	26.4	40.3	27.4	3.88
	B등급	1.0	3.0	29.8	46.0	20.2	3.81
전체		0.9	4.2	24.8	43.9	26.2	3.90

(3)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6개월간 50만원씩 총 300만원이 지급되는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에 대한 만족도 값은 전반적으로 4점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31~34세, 고등학교 졸업이하,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집단이 3점대를 기록하였다.

<표 VI-8>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단위: %, 점)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
성별	남자	1.4	5.4	11.3	37.4	44.4	4.18
	여자	0.7	4.0	15.0	40.9	39.4	4.14
연령	18-20세	0.0	6.8	8.5	30.5	54.2	4.32
	21-25세	0.8	3.0	13.0	38.5	44.7	4.23
	26-30세	1.1	5.6	13.6	41.2	38.6	4.11
	31-34세	1.9	8.9	19.6	42.4	27.2	3.8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	8.2	15.0	38.1	36.7	3.99
	전문대 졸업	1.7	4.7	14.9	35.8	42.9	4.14
	4년제 대학 졸업	0.6	3.9	13.2	40.9	41.4	4.19
	대학원 이상 졸업	3.2	7.9	14.3	31.7	42.9	4.03
취업 여부	취업	1.1	4.0	12.6	40.4	41.8	4.18
	미취업	0.9	4.9	14.2	39.0	41.0	4.14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 준비도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높음	0.9	4.6	11.3	35.2	48.1	4.25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낮음	0.3	3.6	13.4	46.0	36.7	4.15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높음	1.0	6.1	11.1	36.4	45.5	4.19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낮음	1.8	5.0	19.0	43.6	30.7	3.96
구직 활동 계획서	S등급	1.0	3.8	11.3	40.0	43.9	4.22
	A등급	1.1	5.2	14.6	39.1	40.0	4.12
	B등급	0.5	5.1	19.2	39.4	35.9	4.05
전체		1.0	4.5	13.6	39.6	41.3	4.16

(4) 지원금 지급방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만족도 값은 4.12점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표 VI-9> 지원금 지급방식

(단위: %, 점)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
성별	남자	1.1	5.0	14.0	35.5	44.4	4.17
	여자	0.9	4.5	16.7	41.2	36.8	4.09
연령	18-20세	0.0	3.4	15.3	27.1	54.2	4.32
	21-25세	0.6	4.1	15.3	37.9	42.1	4.17
	26-30세	1.2	4.5	15.5	41.9	36.8	4.09
	31-34세	2.5	8.9	18.4	38.0	32.3	3.8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	6.1	15.6	37.4	38.8	4.05
	전문대 졸업	1.7	3.4	15.9	40.2	38.9	4.11
	4년제 대학 졸업	0.7	4.8	15.7	39.0	39.9	4.13
	대학원 이상 졸업	1.6	4.8	14.3	38.1	41.3	4.13
취업 여부	취업	1.0	4.2	15.3	42.1	37.4	4.11
	미취업	1.0	5.0	15.8	37.1	41.2	4.12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 준비도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높음	1.2	4.6	13.1	33.5	47.6	4.22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낮음	1.0	4.9	17.1	42.1	34.9	4.05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높음	0.0	1.0	8.1	51.5	39.4	4.29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낮음	0.7	5.4	21.2	44.7	28.0	3.94
구직 활동 계획서	S등급	1.3	5.0	13.6	38.9	41.1	4.14
	A등급	0.9	4.2	15.8	38.9	40.2	4.13
	B등급	0.0	5.1	23.2	39.9	31.8	3.98
전체		1.0	4.6	15.6	39.0	39.7	4.12

(5) 구직활동보고서

매주 자신의 구직활동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구직활동보고서의 경우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높음 집단의 만족도 값이 가장 높은 가운데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낮음,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 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활동계획서의 만족도와 같은 분포이다.

<표 VI-10> 구직활동계획서

(단위: %, 점)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
성별	남자	1.4	6.7	21.0	39.7	31.2	3.93
	여자	1.2	6.9	26.8	43.5	21.5	3.77
연령	18~20세	0.0	10.2	28.8	22.0	39.0	3.90
	21~25세	0.9	6.3	25.1	42.6	25.0	3.84
	26~30세	2.0	6.9	23.8	42.8	24.4	3.81
	31~34세	1.3	7.6	22.8	43.0	25.3	3.8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	10.2	23.8	35.4	26.5	3.70
	전문대 졸업	1.7	7.1	29.1	35.5	26.7	3.78
	4년제 대학 졸업	0.9	6.3	23.8	44.4	24.6	3.85
	대학원 이상 졸업	1.6	7.9	20.6	39.7	30.2	3.89
취업 여부	취업	1.3	7.2	24.8	40.8	25.9	3.83
	미취업	1.3	6.5	24.4	42.8	24.9	3.83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 준비도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높음	1.3	6.0	19.9	38.7	34.0	3.98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낮음	2.1	8.5	26.9	44.7	17.8	3.68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높음	0.0	6.1	22.2	43.4	28.3	3.94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낮음	0.9	7.0	32.5	46.3	13.3	3.64
구직 활동 계획서	S등급	1.6	5.8	21.0	46.1	25.4	3.88
	A등급	1.0	7.4	26.9	38.4	26.4	3.82
	B등급	1.5	8.1	29.8	40.4	20.2	3.70
전체		1.3	6.8	24.6	42.1	25.3	3.83

(6) 지원금 사용범위

구직과 관련된 포괄적 사용을 허용했음에도 각 항목별 만족도 값 중 가장 낮은 3.77점을 기록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였으며,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모두 낮은 집단이 만족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표 VI-11> 지원금 사용범위

(단위: %, 점)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
성별	남자	3.8	9.2	18.7	34.5	33.8	3.85
	여자	2.0	13.4	21.5	37.0	26.0	3.72
연령	18-20세	1.7	10.2	22.0	28.8	37.3	3.90
	21-25세	1.7	13.0	19.1	37.2	29.0	3.79
	26-30세	3.8	10.3	21.7	35.6	28.7	3.75
	31-34세	4.4	12.0	22.8	33.5	27.2	3.6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4	10.9	27.9	25.9	29.9	3.64
	전문대 졸업	3.7	14.9	21.6	34.8	25.0	3.63
	4년제 대학 졸업	2.2	11.2	19.4	37.7	29.5	3.81
	대학원 이상 졸업	1.6	12.7	19.0	31.7	34.9	3.86
취업 여부	취업	2.7	11.6	21.9	36.1	27.7	3.74
	미취업	2.7	11.9	19.6	36.0	29.8	3.78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 준비도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높음	2.4	10.0	18.2	34.9	34.4	3.89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낮음	3.4	13.4	20.7	35.9	26.6	3.69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높음	4.0	11.1	19.2	40.4	25.3	3.72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낮음	2.3	14.2	25.1	37.5	21.0	3.61
구직 활동 계획서	S등급	2.6	11.3	17.2	37.8	31.1	3.84
	A등급	2.6	11.9	22.8	34.7	28.1	3.74
	B등급	3.5	13.6	24.7	34.3	23.7	3.61
전체		2.7	11.8	20.5	36.1	29.0	3.77

(7) 취업성공수당

취업자에게 지급되는 취업성공수당의 경우 만족도에 있어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미취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학교졸업 이하, 18~20세, 31~34세,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낮음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만족도 값이 낮은 편이었다.

<표 VI-12> 취업성공수당

(단위: %, 점)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
성별	남자	2.1	1.4	22.4	30.4	43.7	4.12
	여자	0.6	2.2	25.5	32.8	38.9	4.07
연령	18~20세	1.7	0.0	37.3	23.7	37.3	3.95
	21~25세	0.6	2.5	23.9	32.0	40.9	4.10
	26~30세	1.8	1.4	22.6	31.7	42.5	4.12
	31~34세	1.9	1.3	28.5	34.8	33.5	3.9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	0.7	32.0	27.2	36.7	3.93
	전문대 졸업	1.0	2.0	26.0	31.1	39.9	4.07
	4년제 대학 졸업	1.0	2.0	23.4	32.1	41.6	4.11
	대학원 이상 졸업	1.6	3.2	17.5	41.3	36.5	4.08
취업 여부	취업	1.6	3.0	14.3	28.8	52.3	4.27
	미취업	1.0	1.2	30.4	33.7	33.6	3.98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 준비도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높음	1.8	1.8	20.6	26.9	48.9	4.19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낮음	0.8	2.1	27.4	34.4	35.4	4.02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높음	0.0	2.0	24.2	31.3	42.4	4.14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낮음	0.7	2.0	29.1	39.7	28.4	3.93
구직 활동 계획서	S등급	1.2	1.9	22.0	30.4	44.4	4.15
	A등급	1.4	2.1	25.9	32.2	38.5	4.04
	B등급	0.5	1.0	27.3	36.4	34.8	4.04
전체		1.2	1.9	24.3	31.8	40.8	4.09

(8) 전담상담사

전담상담사에 대한 만족도는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높은 집단이 4.05점으로 가장 높았고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 집단이 3.63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VI-13> 전담상담사

(단위: %, 점)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
성별	남자	1.4	5.1	26.2	27.1	40.1	3.99
	여자	2.0	5.3	32.3	30.5	29.9	3.81
연령	18-20세	0.0	1.7	35.6	20.3	42.4	4.03
	21-25세	2.0	6.1	30.5	28.7	32.7	3.84
	26-30세	2.0	4.7	29.3	30.2	33.9	3.89
	31-34세	0.6	3.2	27.8	31.0	37.3	4.0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	5.4	31.3	20.4	41.5	3.95
	전문대 졸업	1.4	4.1	25.3	31.1	38.2	4.01
	4년제 대학 졸업	2.0	5.4	30.8	29.6	32.2	3.85
	대학원 이상 졸업	1.6	4.8	31.7	31.7	30.2	3.84
취업 여부	취업	1.1	4.2	25.8	30.9	38.0	4.00
	미취업	2.2	5.8	32.6	28.1	31.3	3.80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 준비도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높음	1.6	2.8	26.6	27.3	41.8	4.05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낮음	1.3	6.7	33.9	33.1	25.1	3.74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높음	2.0	8.1	16.2	35.4	38.4	4.00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낮음	2.7	8.1	36.6	28.2	24.4	3.63
구직 활동 계획서	S등급	2.2	5.6	29.6	28.3	34.3	3.87
	A등급	1.5	5.4	30.1	30.3	33.0	3.88
	B등급	1.5	2.5	31.3	29.3	35.4	3.94
전체		1.8	5.2	30.0	29.2	33.9	3.88

바. 전반적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8점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높음 집단이 4.60점으로 가장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남성 참여자들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반면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모두 낮은 집단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점수를 보였다.

<표 VI-14> 전반적 만족도

(단위: %, 점)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
성별	남자	0.1	0.6	3.8	34.9	60.6	4.55
	여자	0.2	0.4	6.0	42.7	50.8	4.43
연령	18-20세	0.0	0.0	6.8	33.9	59.3	4.53
	21-25세	0.1	0.5	4.7	40.3	54.3	4.48
	26-30세	0.3	0.3	5.3	38.8	55.4	4.49
	31-34세	0.0	1.3	6.3	41.8	50.6	4.4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0.7	0.7	11.6	38.1	49.0	4.34
	전문대 졸업	0.0	1.0	4.7	41.6	52.7	4.46
	4년제 대학 졸업	0.2	0.4	4.5	39.3	55.7	4.50
	대학원 이상 졸업	0.0	0.0	4.8	42.9	52.4	4.48
취업 여부	취업	0.1	0.3	4.0	40.4	55.2	4.50
	미취업	0.2	0.6	5.8	39.2	54.2	4.47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 준비도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높음	0.1	0.6	3.0	32.3	64.1	4.60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낮음	0.3	0.3	6.7	42.1	50.6	4.43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높음	0.0	0.0	3.0	42.4	54.5	4.52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낮음	0.2	0.7	8.6	51.9	38.6	4.28
구직 활동 계획서	S등급	0.1	0.4	4.5	37.7	57.3	4.52
	A등급	0.2	0.6	5.6	40.3	53.2	4.46
	B등급	0.0	0.5	6.1	44.9	48.5	4.41
전체		0.2	0.5	5.1	39.7	54.5	4.48

사. 기대충족도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물어본 결과 만족도 수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만족도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

<표 VI-15> 기대충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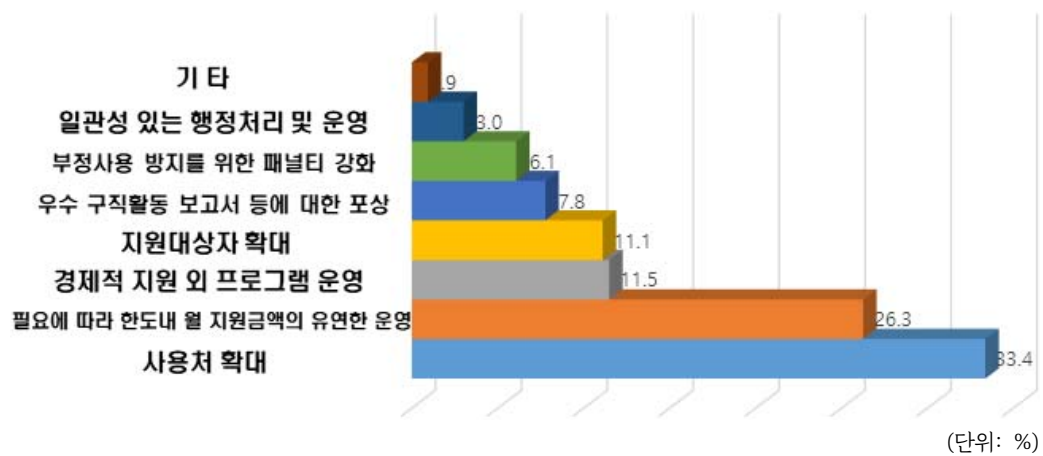
(단위: %, 점)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
성별	남자	0.4	0.7	5.8	33.3	59.7	4.51
	여자	0.1	1.0	8.8	39.5	50.6	4.40
연령	18~20세	0.0	0.0	10.2	32.2	57.6	4.47
	21~25세	0.1	0.9	7.5	36.3	55.2	4.45
	26~30세	0.5	0.9	7.8	37.4	53.4	4.42
	31~34세	0.0	0.6	7.0	43.0	49.4	4.4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	0.7	10.9	36.7	50.3	4.34
	전문대 졸업	0.0	1.7	9.1	35.5	53.7	4.41
	4년제 대학 졸업	0.2	0.8	7.0	37.4	54.7	4.46
	대학원 이상 졸업	0.0	0.0	7.9	39.7	52.4	4.44
취업 여부	취업	0.4	0.6	7.0	36.1	55.9	4.46
	미취업	0.1	1.1	8.1	37.8	53.0	4.43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 준비도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높음	0.3	0.9	4.2	30.5	64.1	4.57
	목표의 명확성 높음/ 구직준비도 낮음	0.0	0.8	10.3	40.3	48.6	4.37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높음	0.0	0.0	4.0	44.4	51.5	4.47
	목표의 명확성 낮음/ 구직준비도 낮음	0.2	1.1	13.1	46.3	39.3	4.23
구직 활동 계획서	S등급	0.0	0.7	6.6	34.9	57.8	4.50
	A등급	0.5	1.1	7.9	38.7	51.7	4.40
	B등급	0.0	0.5	11.1	39.9	48.5	4.36
전체		0.2	0.9	7.7	37.1	54.1	4.44

아. 개선 사항

참여자들이 꼽은 개선사항은 학자금 대출 이자 납입 등 사용처 확대 - 총 금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월 지원 금액의 유연한 운영 - 경제적 지원 외 프로그램 운영 - 지원 대상자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I-3]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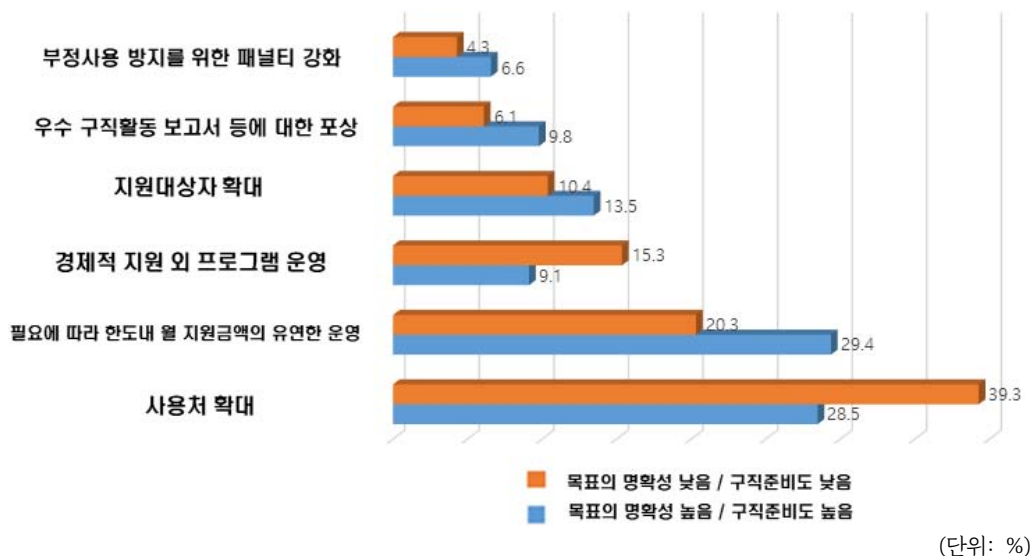


한편 집단별로 응답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인 가운데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모두 높은 집단과 목표의 명확성과 구직준비도가 모두 낮은 두 집단은 <그림 V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4 요약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만족도 조사 결과 도움정도, 전반적 만족도 4.48점, 기대충족도 4.44점을 기록함으로써 ‘만족’과 ‘매우 만족’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만족도 설문에서 ‘매우 만족한다’보다 ‘만족한다’의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인데 본 만족도 평가에서는 ‘매우 만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참여자들이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I-4] 개선사항_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준비도에 따른 집단비교



개인별 특성으로 보았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등학교졸업 이하’보다는 ‘4년제 대학교 졸업’,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보다는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높음’ 집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명확성 낮음/구직준비도 낮음’집단에 비해 ‘목표의 명확성 높음/구직준비도 높음’ 집단의 만족도가 상당부분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취업이나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이 있는 참여자들에게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은 참여자 선발 시 구직활동계획서를 통하여 동기와 의지, 목표와 계획 등을 평가하였는데 전담상담사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S(상)-A

(중)-B(하)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목표의 명확성 및 구직 준비도’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구직활동 계획서의 평가는 대상자 선발에 있어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상별로 만족도나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향후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청년층 내에서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의 참여자를 분석해 봄으로써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 제도의 보완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유사사례 분석, 사전사후 설문조사, FGI 등을 실시하여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취업과 직접적인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직활동과 관련한 심리·정서, 인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참여자 분석 및 참여전후 비교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전후 비교결과 노력의 정도, 구직준비 시간과 비용, 직접적인 구직활동, 준거요인으로 설정한 진로장벽, 구직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인식, 생활만족도 등에서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사회로의 이행과정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시간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생활비가 구직 및 구직준비를 위한 지출보다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다시 구직준비기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되고 자신감과 의지가 꺾이게 된다. 하지만 구직지원금의 수혜를 받게 되면서 경제적인 도움은 시간적 여유로 이어지고 또 이렇게 생겨난 여유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해주었으며 더 나아가 자신감, 해보고자 하는 의지 등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과 의지는 실질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졌으며 사회와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에게 시간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여 구직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회와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청년구직지원금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정책시행 초기 일부에서 제기된 퍼주기식 청년정책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공감정책 1위로 선정된 가운데 지원을 통하여 가장 큰 효과와 만족도를 보인 집단은 자신의 구직목표와 그에 따른 계획이 명확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간적·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청년들이었다. 조사 항목 전체에서 목표가 명확하고 실제적인 구직계획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타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와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선발과정에 있어

지원자들의 구직목표와 동기, 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와 사회는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구직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연구 결과 구직준비도는 높지만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집단이 타집단에 비하여 진로장벽과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고 구직효능감, 사회적지지 인식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의 빈곤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목표가 명확하게 되면 구직준비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걱정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설정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부분 중 하나는 청년들이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구직지원금 지원에 따라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이유로 심리적 안정감, 구직활동 전념과 함께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꼽았으며 FGI에 참여한 거의 모든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의견을 내었다. 이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가족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미안함과 함께 그에 따른 부모님과의 갈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구직지원금을 통하여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게됨에 따라 관계가 개선되고 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으며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청년구직지원금의 커다란 성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직지원금의 종료시점까지 취업을 못한 경우 취업에 대한 불안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금전적 지원이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막막함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이나 타 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민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자의 42.4%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전체 평균 임금은 192.94만원으로 응답자의 67.1%가 150만원에서 2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기관에서 조사하여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대졸 평균 초임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조사대상이나 평균의 특성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고려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임금이라 발표되는 내용은 청년들로 하여금 상실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할 것이며 이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채 취업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2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참여자들이 꼽는 청년구직지원금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구직계획에 따라 필요한 활동비, 자기개발비, 학원비 등을 자유롭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기존 창업지원금이 사업비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구직지원금은 창업 준비를 위한 활동비, 제반 경비 등에 사용이 가능해 다른 어떤 지원금보다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포괄적인 사용을 허용할 경우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와는 달리 극소수를 제외하고 애초 정책의 의도에 부합하는 용도로 지원금은 사용되고 있었다. 오히려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보다 참여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는 항목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21회나 청년고용종합대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간접지원 방식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청년구직지원금의 효과는 새로운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 시점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을 새롭게 조명하고 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시도가 매우 유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들의 미스매치로 인한 취업준비의 장기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식의 조언보다는 그들이 처한 여건이나 교육에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수혜에 대한 체감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기존의 정책들이 무조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은 기회의 제공과 경력형성, 소득격차해소 등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고 이행과정에 있어서도 청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을 달리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년정책이 청년의 범위를 18~34세로 설정하고 있으나 연령별로도 처한 어려움과 니즈가 다르다. 18세~20세 집단의 경우 고졸학력으로 대부분이 좋지 않은 성적이나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진학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한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진로를 탐색할 기회는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저임금/비숙련 노동에 종사하게 되고 이는 잦은 이직으로 연결되면서 자기명확성과 구직에 대한 목표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금전적인 지원과 더불어 진로탐색, 이직을 위한 정보제공,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경력관리에 대한 상담이나 정책지원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1~34세의 경우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대상은 장기실업자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실업률에도 잡히지 않는 청년들로서 실업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낮아지며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함은 물론 진로장벽과 취업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지고 구직효능감과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식, 생활만족도 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준비의 과정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오랜 기간 취업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사회로의 복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및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제공,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8).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 고지영(2005). 청년실업자의 진로타협 요인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도균·최석현·유보배(2017).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연구원.
- 김명옥(201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16).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9(2), 89-107.
- 김병숙(2007). 직업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김보인(2009). 대학생의 취업비용 지불의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중(2015). 4년제 대학생의 취업목표설정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1), 7293-7299.
- 김은영(2001).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희(2010). 진로역할지향성에 따른 진로장벽 인식과 타협과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경·김영숙·이현림(2008). 여대생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27(2), 1-26.
- 박윤주(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2009). 진로선택과정에서 우연 혹은 기회의 역할 고찰. 상담학연구. 10(1), 385-397.
- 서복경(2017).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연구.
- 안주엽·길현종·김주영·김지경·오선정·정세은(2016). 일과 행복(II). 한국노동연구원.
- 양지윤·백광호·최석현·고희원(2016).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과 민간위탁사업 발전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윤경숙(2014). 학습지속의향 관련 변수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옥순(2011). 가족친화제도와 남성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직무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애·최웅용(2010). 사회인지 진로이론 관점에서의 대학생의 진로목표 추구활동 분석. 상담학연구. 11(2), 685-699.
- 이정희(2017).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의 구조적 관계: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패션전공생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희정·김민영·이혜민·강승규(2017). 일하는 청년시리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도일자리재단.
- 장용희·이재신·신의수(2016). 지방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종합연구. 14(3), 163-184
- 정준영(2016).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월간 복지동향 207호, 15-21.
- 차아름(2011). 심리적 진로장벽,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성원(1998).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Locke, E. A. (1968). Toward a theory of task motivation and incentiv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 157-189.

부록

※ 휴학 및 방학기간 동안의 일자리 경험도 포함됩니다.

- 1) 예 2) 아니오 → 문4로 이동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5) 9개월 이상~12개월 미만 6) 12개월 이상

※ **구직활동**이란 이력서 제출, 입사시험 응시, 구직사이트 등록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스펙을 쌓기 위한 준비(외국어 시험 준비, 봉사활동 등)는 제외합니다

※ **창업**을 위한 준비는 구직활동에 포함됩니다.

1) 예 2) 아니오 → 문5로 이동

1) 취업 2) 창업 → 문5로 이동

▶ soft: $Q4-1 \geq 90\%$

▶ soft: Q4-2 ≥ 20 회]

1) 1시간미만 2) 1시간~2시간미만 3) 2시간~3시간미만 4) 3시간~4시간미만
5) 4시간~5시간 미만 6) 5시간~6시간미만 7) 6시간~7시간미만 8) 7시간 이상

마의
예

▶ soft: Q6 $\geq$ 월평균 50만원

1)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2)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3) 대체로 노력하는 편이다 4) 매우 노력한다

다음은 귀하께서 희망하는 취(창)업 조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8-1. 다음 중 어떤 형태의 직장(일자리)에 취업하기를 원하십니까? 희망하는 조건을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1) 대기업
- 2)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 3) (재단, 사단) 법인단체
- 4) 중소기업
- 5) 외국계기업
- 6)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7)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 8) 연구기관(국립/사립)
- 9)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창업 포함)
- 10) 기타()

Programmer: 각 순위별로 Q8-1번에서 응답한 보기 제시

8-2. [Q8-1번 응답]에서 가장 희망하는 직무(분야)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직업(보기)		
1. 관리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2. 경영·회계 사무 관련직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도판직
3. 금융·보험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24. 군인
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6. 보건·의료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Programmer : Q8-1번에서 순위별 모두 보기 9번에 응답한 경우만 Q8-3번 문항 SKIP

8-3. 귀하께서 현재 희망하는 입사 형태는 무엇입니까?

- 1) 신입
- 2) 경력

8-4. 귀하께서 취(창)업을 희망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8-5. 귀하께서 현재 가장 희망하는 근무(창업)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서울특별시
- 2) 부산광역시
- 3) 대구광역시
- 4) 인천광역시
- 5) 광주광역시
- 6) 대전광역시
- 7) 울산광역시
- 8) 경기도
- 9) 세종/충북/충남
- 10) 전남/전북
- 11) 경남/경북
- 12) 강원/제주
- 13) 지역에 관계없다

8-6. 귀하께서 향후 일자리에서 받고 싶은 희망연봉은 얼마입니까?

※ 연평균(연봉)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또는 개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는 생각하시는 희망 연평균 순수입을 응답하여 주세요.

▶ soft: Q8-6 ≥ 연 평균 10,000만원

연 평균(연봉)_____만원

0만원 입력 못함

9. 귀하께서는 학교 졸업 이후의 미취업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 졸업 이후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다면, 마지막 일자리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미취업 기간을 응답해 주세요.

- | | | |
|--------------------|------------------|-------------------|
| 1) 3개월 미만 | 2)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3)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 4)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5) 24개월 이상 | 6) 해당 없음 |

10. 귀하는 학교입학 후 지금까지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은 취업 전후 실시한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교양이나 평생학습차원에서 받은 교육 및 훈련은 제외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과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교생실습포함)도 제외되며, 정규학교교육의 학업과 관련한 학원수강 및 과외도 제외됩니다.

※ 고시, 공무원, 공사(공단) 등의 시험준비와 인턴경험은 제외됩니다.

- 1)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
2) 받아본 적이 없다 → **문11로 이동**

10-1.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을 총 몇 번 받으셨습니까? 총 _____ 회

▶ soft: Q10-1 ≥ 20회

0회 입력 못함

10-2. 직업능력향상 교육 및 훈련의 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합니까?

- 1) 본인 2) 부모님, 가족, 친지 3) 정부부담 4) 기타(_____)

11. 귀하는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운전면허의 경우는 1종 대형 및 특수차량 면허만 포함되고 1종 보통과 2종은 자격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예 2) 아니요 → **문12로 이동**

11-1. 소지하신 자격증은 총 몇 개 입니까? _____ 개

▶ soft: Q11-1 ≥ 15개

0개 입력 못함

11-2. 귀하가 소지하신 자격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응답]

- 1) 국가전문자격 2) 국가기술자격 3) 민간자격 4) 외국자격

▶ 국가전문자격 : 국가전문자격증은 주로 전문서비스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 정부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각 부처별로 법적근거가 있으며 면허적 성격을 가진 자격증이 대부분이며,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규정된 국가자격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종에 한해 운영되는 자격증입니다. 국가기술자격종의 등급에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및 기초/전문사무 분야 등이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등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 :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외 법인 · 단체 · 개인이 운영하는 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외국자격 : 운영, 시행주체가 외국인 경우를 말합니다.

11-3.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합니까?

- 1) 본인 2) 부모님, 가족, 친지 3) 정부부담 4) 기타(_____)

12. 귀하께서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1) 학원 등록, 시험 응시 등의 취업준비에 대한 자금이 부족해서
- 2) 아르바이트와 취업준비 병행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3) 나의 적성을 잘 알지 못해서
- 4) 인턴 등 직무경험 기회가 부족해서
- 5) 사회봉사 또는 해외연수 기회가 부족해서
- 6) 직무 관련 자격증이 부족해서
- 7)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 8) 입사 준비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을 잘 몰라서
- 9) 구직활동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 10)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 11) 기타(_____)

[진로장벽]

13. 다음은 여러분이 직업을 결정하거나 탐색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현재 느끼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지금 자신들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또 앞으로 예상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유부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어렵다.	1	2	3	4
2)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를 잘 모르겠다.	1	2	3	4
3)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의 취업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1	2	3	4
4)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1	2	3	4
5)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1	2	3	4
6) 나는 일하는데 필요한 주장성이 부족하다.	1	2	3	4
7)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1	2	3	4
8)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	1	2	3	4
9)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가정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1	2	3	4
10) 나는 좋지 않은 성격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다.	1	2	3	4
11)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내리고 난 후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12)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1	2	3	4
13)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가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1	2	3	4
14)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1	2	3	4
15) 나는 취업이 잘 안될 것이다.	1	2	3	4
16) 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1	2	3	4
17)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1	2	3	4
18) 경기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	1	2	3	4
19)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1	2	3	4
20)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피하고 싶다.	1	2	3	4
21)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 얻기가 어렵다.	1	2	3	4
22) 시대흐름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	2	3	4
23) 나는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1	2	3	4

[구직효능감]

14. 다음의 각 문항을 잘 읽어보고,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성공적인 구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1	2	3	4	5
2)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취업에 자신이 있다.	1	2	3	4	5
3)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1	2	3	4	5
4) 취업 행사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1	2	3	4	5
5) 직업을 얻기 위해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7) 구직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다.	1	2	3	4	5
8)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9) 취업정보 사이트와 기업홈페이지를 수시로 살펴본다.	1	2	3	4	5
10) 직업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1) 직업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관련서적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보고 있다.	1	2	3	4	5
12)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13) 내가 취직하고 싶은 직업이 확실하다.	1	2	3	4	5
14)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자주 만난다.	1	2	3	4	5
15) 나의 부족한 능력은 개발시키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6) 나는 매사에 자신감 있게 임한다.	1	2	3	4	5
17) 밤늦도록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는 날이 많다.	1	2	3	4	5
18)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19)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취업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1	2	3	4	5
20) 취업지원기관을 자주 방문한다.	1	2	3	4	5

15.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현재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2)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3)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4)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취업 스트레스]

16.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현재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요즘 취업 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두통약) 등의 복용이 늘었다	1	2	3	4	5
2) 나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입맛도 잃을 정도다	1	2	3	4	5
3) 취업 자리를 놓칠까봐 많은 시간을 취업정보센터나 취업사이트의 구인정보를 찾아보는데 사용한다	1	2	3	4	5
4) 나는 취업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알지만 노력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5) 나는 취업준비를 하느라 학점관리를 제대로 못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	2	3	4	5
6) 나는 실력(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1	2	3	4	5
7) 내가 장차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성취가 쉽지 않은 것 같다	1	2	3	4	5

다음은 기타 인적사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18.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2년제) 졸업

3) 대학(4년제) 졸업

4) 대학원 이상 졸업

19.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미혼

2) 기혼

3) 기타

20. 현재(2017년 8월 기준) 귀하는 누구와 거주하고 있습니까?

1) 부모님/형제자매와 함께 본가에서 거주

2) 친척 또는 지인 집에 거주

3) 혼자 자취

4) 형제자매/지인과 자취

5) 배우자/자녀와 함께 본가에서 거주

6) 셰어하우스, 기숙사, 하숙, 고시원 등 공동 거주 공간에 거주

7) 기타()

21. 귀 덕의 생활비는 주로 누가 부담합니까?

1) 부모님

2) 본인

3) 배우자

4) 배우자와 공동 부담

5) 부모님과 본인 공동부담

6) 가족 모두가 공동부담

7) 본인을 제외한 형제, 자매 부담

8) 기타()

22.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1) 주거환경	1	2	3	4	5
2) 가족 관계	1	2	3	4	5
3) 사회적 친분관계(친구 및 지인과의 관계)	1	2	3	4	5
4) 건강	1	2	3	4	5
5) 가족의 수입	1	2	3	4	5
6) 여가생활	1	2	3	4	5
7) 그럼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귀하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1	2	3	4	5

23.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불필요	② 대체로 불필요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필요	⑤ 매우 필요
1) 스터디 공간 대여	1	2	3	4	5
2) 면접정장 대여	1	2	3	4	5
3) 증명사진 촬영	1	2	3	4	5
4) 취·창업 캠프 (1박2일 등 외부 연수시설에서 집중취업역량)	1	2	3	4	5
5) 심리정서지원 상담 (자신감 회복 등 5~15시간 집단/개인상담)	1	2	3	4	5
6) 직무스쿨 (마케팅, NCS면접, 인적성 등 2~4시간 특강)	1	2	3	4	5
7) 취업스킬강화 (이력서, 면접, 이미지메이킹 등 5~15시간 특강)	1	2	3	4	5

24. 앞에서 응답한 항목 이외에 귀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2. 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사후조사 설문지
(A타입_사전설문 참여자대상)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A타입
--------------------------------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향후 청년정책 수립 및 청년구직지원금 사업과 관련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소요시간은 약 10~15분입니다.

2017. 12.

재단 담당자 : 경기도일자리재단 정책연구팀, 031-270-9643

먼저, 청년구직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청년구직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2017년 7월~12월) 취업(창업 포함)을 하셨습니까?

1) 예→ 문1-1로 이동

2) 아니오

1-1. 그럼, 취업 시기는 언제입니까?

1) 7월

2) 8월

3) 9월

4) 10월

5) 11월

6) 12월

2. 귀하께서는 청년구직지원금을 주로 어떤 활동에 사용하셨습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시험(입사,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한 비용(교재비, 학원비, 시험응시료 등)

2) 자격증 취득,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교재비, 학원비, 시험응시료 등)

3) 취 · 창업 관련 그룹 활동(스터디,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비용(장소 대여, 식사 등)

4) 사진촬영비, 응시료, 면접 시 숙박 및 교통비 등 구직활동 비용

5) 행사참가비, 교육참여, 컨설팅 및 상담 등 자기계발(역량강화) 비용

6)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취 · 창업 활동에 필요한 생활비 보조

7) 기타 ()

3. 귀하께서는 청년구직지원금을 사전에 계획한대로 쓰셨습니까?

1) 예→ 문4로 이동

2) 아니오

3-1. 그럼, 귀하께서 청년구직지원금을 사전에 계획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취업목표 및 계획의 변경 때문에

2) 예상치 못한 비용의 발생 때문에

3) 구직과 관련된 포괄적 사용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어서

4) 경제적 여유로 인한 추가 계획 실행을 위해

5) 기타 ()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취업계획이 확실한 편인 것 같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직업에 대한 선택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1	2	3	4	5
4)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취업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나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였다	1	2	3	4	5
6) 나는 내가 설정한 취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한다	1	2	3	4	5
7) 나는 내가 설정한 취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취업목표는 현재 희망하고 있는 미래의 일자리 또는 직업을 말합니다.

1) 예 2) 아니오 → 문7로 이동

있습니까?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 → 문6-2로 이동 2) 아니오 → 문6-1로 이동

- 1) 임금과 근로조건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 2) 목표로 설정했던 분야의 장애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 3) 학력, 능력(스펙, 자격증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 4)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5)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염려되어서
- 6) 목표로 설정했던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 7) 더 좋은 곳에 취업이 되어서
- 8) 기타()

- 1) 대기업
- 2)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 3) (재단, 사단) 법인단체
- 4) 중소기업
- 5) 외국계기업

- 6)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7)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 8) 연구기관(국립/사립)
- 9)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창업 포함)
- 10) 기타(_____)

6-3. [문1 보기① 취업자만] 현재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1) 정규직 → 문6-6으로 이동
- 2) 계약직
- 3) 인턴
- 4) 기타(_____)

6-4. [문1 보기① 취업자만] 현재 일자리에서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습니까?

- 1) 정해져있다 → 문6-5로 이동
- 2) 정해져 있지 않다

6-5. [문1 보기① 취업자만] 정하였다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1) 4개월 미만
- 2) 4개월 이상 ~ 1년 미만
- 3) 1년 이상

6-6. [문1 보기① 취업자만] 귀하께서 현재 일자리에서 받는 월평균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 창업 또는 개인 사업인 경우, 월평균 순수입을 응답하여 주세요.

▶ soft: Q6-6 ≥ 월 평균 1,000만원

0만원 입력 못함

평균_____만원

월

다음은 구직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 **구직활동**이란 이력서 제출, 입사시험 응시, 구직사이트 등록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스펙을 쌓기 위한 준비(외국어 시험 준비, 봉사활동 등)는 제외합니다
 ※ 창업을 위한 준비는 구직활동에 포함됩니다.

7. [문1 보기② 미취업자만] 귀하께서는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받는 기간(7월~12월) 중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문8로 이동

7-1. [문1 보기② 미취업자만] 그럼, 어떤 분야의 구직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 1) 취업
- 2) 창업 → 문8로 이동

7-2. [문1 보기② 미취업자만] 청년구직지원금을 받는 기간 중 일자리에 직접 지원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 soft: Q7-2 ≥ 90회 _____회

7-3. [문1 보기② 미취업자만] 청년구직지원금을 받는 기간 중 최종 면접까지 본 경우는 몇 번입니까?

▶ soft: Q7-3 ≥ 20회 _____회

8. 귀하께서는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해, 하루 평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문1 보기① 취업자: 투자하였습니까? Programmer: 취업자의 경우, 문구 변경하여 제시]

- | | | | |
|---------------|---------------|---------------|---------------|
| 1) 1시간 미만 | 2) 1시간~2시간 미만 | 3) 2시간~3시간 미만 | 4) 3시간~4시간 미만 |
| 5) 4시간~5시간 미만 | 6) 5시간~6시간 미만 | 7) 6시간~7시간 미만 | 8) 7시간 이상 |

9. 귀하께서는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문1 보기① 취업자: 지출하였습니까?]

Programmer: 취업자의 경우, 문구 변경하여 제시

월 평균 _____만원

▶ soft: Q6 ≥ 월평균 50만원

10. 귀하께서는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 보기① 취업자: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Programmer: 취업자의 경우, 문구 변경하여 제시

- 1)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2)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3) 대체로 노력하는 편이다 4) 매우 노력한다

[문1 보기① 취업자의 경우: 1)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2)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3) 대체로 노력한 편이다 4) 매우 노력하였다] 문구 변경하여 제시

[문1 보기② 미취업자만] 다음은 귀하께서 희망하는 취(창)업 조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1. 다음 중 어떤 형태의 직장(일자리)에 취업하기를 원하십니까? 희망하는 조건을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1) 대기업
2)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3) (재단, 사단) 법인단체
4) 중소기업
5) 외국계기업
6)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7)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8) 연구기관(국립/사립)
9)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창업 포함)
10) 기타(_____)

12. [문1 보기② 미취업자만] 귀하께서 향후 일자리에서 받고 싶은 희망연봉은 얼마입니까?

※ 연평균(연봉)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또는 개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는 생각하시는 희망 연평균 순수입을 응답하여 주세요.

▶ soft: Q12 ≥ 연 평균 10,000만원

연 평균(연봉) _____만원

0만원 입력 못함

13. 귀하는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7월~12월)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은 취업 전후 실시한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교양이나 평생학습차원에서 받은 교육 및 훈련은 제외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과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교생실습포함)도 제외되며, 정규학교교육의 학업과 관련한 학원수강 및 과외도 제외됩니다.

※ 고시, 공무원, 공사(공단) 등의 시험준비와 인턴경험은 제외됩니다.

- 1)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
2) 받아본 적이 없다 → 문14로 이동

13-1. 청년구직지원금 지원기간(7월~12월) 중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을 총 몇 번 받으셨습니까?

총 _____ 회

▶ soft: Q13-1 ≥ 20회

0회 입력 못함

14. 귀하께서는 청년구직지원금 지원기간(7월~12월) 동안 취득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 운전면허의 경우는 1종 대형 및 특수차량 면허만 포함되고 1종 보통과 2종은 자격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예

2) 아니오 → 문15로 이동

14-1. 청년구직지원금 지원기간(7월~12월) 동안 취득하신 자격증은 총 몇 개입니까? 총 _____ 개

▶ soft: Q14-1 ≥ 15개

0개 입력 못함

14-2. 청년구직지원금 지원기간(7월~12월) 동안 취득하신 자격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응답]

1) 국가전문자격

2) 국가기술자격

3) 민간자격

4) 외국자격

▶ 국가전문자격 : 국가전문자격증은 주로 전문서비스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 정부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각 부처별로 법적근거가 있으며 면허적 성격을 가진 자격증이 대부분이며,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규정된 국가자격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종에 한해 운영되는 자격증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등급에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및 기초/전문사무 분야 등이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등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 :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외 법인 · 단체 · 개인이 운영하는 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외국자격 : 운영, 시행주체가 외국인 경우를 말합니다.

[진로장벽]

15. 다음은 여러분이 직업을 결정하거나 탐색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현재 느끼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지금 자신들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또 앞으로 예상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유부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어렵다.	1	2	3	4
2)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를 잘 모르겠다.	1	2	3	4
3)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의 취업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1	2	3	4
4)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1	2	3	4
5)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1	2	3	4
6) 나는 일하는데 필요한 주장성이 부족하다.	1	2	3	4
7)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1	2	3	4
8)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	1	2	3	4
9)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가정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1	2	3	4
10) 나는 좋지 않은 성격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다.	1	2	3	4
11)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내리고 난 후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12)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1	2	3	4
13)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가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1	2	3	4
14)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1	2	3	4
15) 나는 취업이 잘 안될 것이다.	1	2	3	4
16) 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1	2	3	4
17)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1	2	3	4
18) 경기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	1	2	3	4
19)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1	2	3	4
20)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피하고 싶다.	1	2	3	4
21)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 얻기가 어렵다.	1	2	3	4
22) 시대흐름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	2	3	4
23) 나는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1	2	3	4

[구직효능감]

16. 다음의 각 문항을 잘 읽어보고,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성공적인 구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1	2	3	4	5
2)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취업에 자신이 있다.	1	2	3	4	5
3)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1	2	3	4	5
4) 취업 행사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1	2	3	4	5
5) 직업을 얻기 위해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7) 구직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다.	1	2	3	4	5
8)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9) 취업정보 사이트와 기업홈페이지를 수시로 살펴본다.	1	2	3	4	5
10) 직업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1) 직업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관련서적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보고 있다.	1	2	3	4	5
12)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13) 내가 취직하고 싶은 직업이 확실하다.	1	2	3	4	5
14)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자주 만난다.	1	2	3	4	5
15) 나의 부족한 능력은 개발시키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6) 나는 매사에 자신감 있게 임한다.	1	2	3	4	5
17) 밤늦도록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는 날이 많다.	1	2	3	4	5
18)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19)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취업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1	2	3	4	5
20) 취업지원기관을 자주 방문한다.	1	2	3	4	5

17.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현재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2)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3)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4)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취업 스트레스]

18.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현재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요즘 취업 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두통약) 등의 복용이 늘었다	1	2	3	4	5
2) 나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입맛도 잃을 정도다	1	2	3	4	5
3) 나는 취업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알지만 노력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4) 나는 실력(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1	2	3	4	5
5) 내가 장차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성취가 쉽지 않은 것 같다	1	2	3	4	5

19. 귀하께서는 청년구직지원금이 구직활동에[문1 보기① 취업자의 경우: 구직활동 및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Programmer: 취업자의 경우, 문구 변경하여 제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2	3	4	5

→ 보기 ①, ②번 응답자는 문19-2로 이동

19-1.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으로 귀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1) 심리적 안정감
- 2) 자신감, 적극성, 추진력 상승
- 3) 구직활동전념
- 4) 스펙보완
- 5) 선택의 폭 확대
- 6)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
- 7) 기타 ()

19-2. [문19 보기①, ② 응답자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20. 다음은 청년구직지원금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1) 선발기준 (연령, 소득, 경기도거주기간, 실업기간)	1	2	3	4	5
2) 구직활동계획서	1	2	3	4	5
3)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50만원씩 6개월)	1	2	3	4	5
4) 지원금 지급방식(체크카드)	1	2	3	4	5
5) 구직활동보고서	1	2	3	4	5
6) 지원금의 사용가능 범위(포괄적 구직활동)	1	2	3	4	5
7) 취업성공수당	1	2	3	4	5
8) 전담상담사	1	2	3	4	5

20-1. 귀하께서는 앞서 평가해 주신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다?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21. 귀하께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받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다?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22. 귀하께서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1) 지원 대상자 확대
- 2) 총 금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월 지원 금액의 유연한 운영
- 3) 지원금 사용처 확대 (학자금대출 이자 납입 등)
- 4) 경제적 지원 외 프로그램 운영(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
- 5)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패널티 강화
- 6) 우수 구직활동보고서 등에 대한 포상
- 7)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 및 운영
- 8) 기타()

다음은 자료처리를 위한 기타 인적사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4.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떻습니까?

-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2년제) 졸업 3) 대학(4년제)졸업 4) 대학원 이상 졸업

25.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1) 주거환경	1	2	3	4	5
2) 가족 관계	1	2	3	4	5
3) 사회적 친분관계(친구 및 지인과의 관계)	1	2	3	4	5
4) 건강	1	2	3	4	5
5) 가족의 수입	1	2	3	4	5
6) 여가생활	1	2	3	4	5
7) 그럼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귀하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1	2	3	4	5

부록 3. 청년구직지원금 참여자 사후조사 설문지
(B타입_사전설문 미참여대상)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8타입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향후 청년정책 수립 및 청년구직지원금 사업과 관련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소요시간은 약 10~15분입니다.

2017. 12.

재단 담당자 : 경기도일자리재단 정책연구팀, 031-270-9643

먼저, 청년구직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청년구직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2017년 7월~12월) 취업(창업 포함)을 하셨습니까?

1) 예 → 문1-1로 이동

2) 아니오

1-1. 그럼, 취업 시기는 언제입니까?

1) 7월

2) 8월

3) 9월

4) 10월

5) 11월

6) 12월

2. 귀하께서는 청년구직지원금을 주로 어떤 활동에 사용하셨습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시험(입사,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한 비용(교재비, 학원비, 시험응시료 등)

2) 자격증 취득,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교재비, 학원비, 시험응시료 등)

3) 취 · 창업 관련 그룹 활동(스터디,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비용(장소 대여, 식사 등)

4) 사진촬영비, 응시료, 면접 시 숙박 및 교통비 등 구직활동 비용

5) 행사참가비, 교육참여, 컨설팅 및 상담 등 자기개발(역량강화) 비용

6)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취 · 창업 활동에 필요한 생활비 보조

7) 기타 ()

3. 귀하께서는 청년구직지원금을 사전에 계획한대로 쓰셨습니까?

1) 예 → 문4로 이동

2) 아니오

3-1. 그럼, 귀하께서 청년구직지원금을 사전에 계획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취업목표 및 계획의 변경 때문에

2) 예상치 못한 비용의 발생 때문에

3) 구직과 관련된 포괄적 사용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어서

4) 경제적 여유로 인한 추가 계획 실행을 위해

5) 기타 ()

4. 다음의 각 문항을 잘 읽어보고,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취업계획이 확실한 편인 것 같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직업에 대한 선택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1	2	3	4	5
4)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취업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나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였다	1	2	3	4	5
6) 나는 내가 설정한 취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한다	1	2	3	4	5
7) 나는 내가 설정한 취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5. [문1 보기② 미취업자만] 귀하께서는 현재 설정한 취업목표가 있습니까? 취업목표는 현재 희망하고 있는 미래의 일자리 또는 직업을 말합니다.

※ 단, 설정한 취업목표는 단순히 희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대한 정보탐색 이상의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예 2) 아니오 → 문7로 이동

5-1. 귀하께서는 목표로 설정한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 및 방학기간 동안의 일자리 경험도 포함됩니다.

5-1-1.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전(2017년 6월 이전) 목표로 설정한 직무와 관련된 일 경험 여부	
5-1-2. 청년구직지원금 받는 기간(7월~12월) 중 목표로 설정한 직무와 관련된 일 경험 여부	

6. [문1 보기④ 취업자만] 귀하께서 현재 취업을 하셨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현재 취업한 일자리는 귀하께서 목표로 설정했던 일자리에 해당합니까?

1) 예 → 문6-2로 이동 2) 아니오 → 문6-1로 이동

6-1. [문1 보기④ 취업자만] 그럼, 귀하께서 목표로 설정했던 일자리에 취업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임금과 근로조건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 목표로 설정했던 분야의 장래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 학력, 능력(스펙, 자격증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염려되어서
- 목표로 설정했던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 더 좋은 곳에 취업이 되어서
- 기타(_____)

6-2. [문1 보기① 취업자만] 그럼 귀하께서 현재 일하시는 곳(사업체)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1) 대기업
- 2)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 3) (재단, 사단) 법인단체
- 4) 중소기업
- 5) 외국계기업
- 6)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7)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 8) 연구기관(국립/사립)
- 9)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창업 포함)
- 10) 기타(_____)

6-3. [문1 보기① 취업자만] 현재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1) 정규직 → 문6-6으로 이동
- 2) 계약직
- 3) 인턴
- 4) 기타(_____)

6-4. [문1 보기① 취업자만] 현재 일자리에서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습니까?

- 1) 정해져있다 → 문6-5로 이동
- 2) 정해져 있지 않다

6-5. [문1 보기① 취업자만] 정하였다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1) 4개월 미만
- 2) 4개월 이상 ~ 1년 미만
- 3) 1년 이상

6-6. [문1 보기① 취업자만] 귀하께서 현재 일자리에서 받는 월평균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 창업 또는 개인 사업인 경우, 월평균 순수입을 응답하여 주세요.

▶ soft: Q6-6 ≥ 월 평균 1,000만원
0만원 입력 못함

월 평균 _____만원

다음은 구직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 ※ **구직활동**이란 이력서 제출, 입사시험 응시, 구직사이트 등록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스펙을 쌓기 위한 준비(외국어 시험 준비, 봉사활동 등)는 제외합니다
 ※ 창업을 위한 준비는 구직활동에 포함됩니다.

7-1. [문1 보기② 미취업자만] 귀하께서는 취(창)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7-1-1.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전(2017년 6월 이전) 구직활동 경험 여부	
7-1-2. 청년구직지원금 받는 기간(7월~12월) 중 구직활동 경험 여부	

- 1) 예
- 2) 아니오

Programmer: 문7-1-1~2 모두 보기 2번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문8로 이동

7-2. [문1 보기② 미취업자만] 그럼, 어떤 분야의 구직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Programmer: 문7에서 '경험 있다'라고 한 기간에 대해서만 제시

7-2-1.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전(2017년 6월 이전) 구직활동 경험	
7-2-2. 청년구직지원금 받는 기간(7월~12월) 중 구직활동 경험	

1) 취업

2) 창업

Programmer: 문7-2-1, 7-2-2 응답 모두 보기 2 창업인 경우에는, 문8로 이동

문7-2-1, 7-2-2 중 어느 하나만 보기 1 취업인 경우에는 문7-3 ~ 7-4는 해당 기간만 제시

7-3. [문1 보기② 미취업자만] 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에 직접 지원한 횟수는 총 몇 번입니까?

▶ soft: Q7-3-1, 2 ≥ 90회

7-3-1.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전(2017년 6월 이전) 일자리 직접 지원 횟수	회
7-3-2. 청년구직지원금 받는 기간(7월~12월) 중 일자리 직접 지원 횟수	회

7-4. [문1 보기② 미취업자만] 구직활동 기간 중 최종 면접까지 본 경우는 몇 번입니까?

▶ soft: Q7-4-1, 2 ≥ 20회

7-4-1.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전(2017년 6월 이전) 최종 면접 횟수	회
7-4-2. 청년구직지원금 받는 기간(7월~12월) 중 최종 면접 횟수	회

8. 귀하께서는 구직활동 기간 중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해, 하루 평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문1 보기① 취업자의 경우: 투자하였습니까?] Programmer: 취업자의 경우, 문구 변경하여 제시

8-1-1.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전(2017년 6월 이전) 하루 평균 투자 시간	
8-1-2. 청년구직지원금 받는 기간(7월~12월) 중 하루 평균 투자 시간	

1) 1시간 미만

2) 1시간~2시간 미만

3) 2시간~3시간 미만

4) 3시간~4시간 미만

5) 4시간~5시간 미만

6) 5시간~6시간 미만

7) 6시간~7시간 미만

8) 7시간 이상

9. 귀하께서는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문1 보기① 취업자의 경우: 지출하였습니까?]

Programmer: 취업자의 경우, 문구 변경하여 제시

▶ soft: Q9 ≥ 월평균 50만원, 0만원 입력 못함

9-1-1.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전(2017년 6월 이전) 월 평균 비용	월 평균	만원
9-1-2. 청년구직지원금 받는 기간(7월~12월) 중 월 평균 비용	월 평균	만원

10. 귀하께서는 취(창)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 보기① 취업자의 경우: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Programmer: 취업자의 경우, 문구 변경하여 제시

10-1-1.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전(2017년 6월 이전) 노력 정도	
10-1-2. 청년구직지원금 받는 기간(7월~12월) 중 노력 정도	

- 1)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2)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3) 대체로 노력하는 편이다 4) 매우 노력한다

[문1 보기① 취업자의 경우: 1)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2)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3) 대체로 노력한 편이다 4) 매우 노력하였다] 문구 변경하여 제시

[문1 보기② 미취업자만] 다음은 귀하께서 희망하는 취(창)업 조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1. 다음 중 어떤 형태의 직장(일자리)에 취업하기를 원하십니까? 희망하는 조건을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1) 대기업
2)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3) (재단, 사단) 법인단체
4) 중소기업
5) 외국계기업
6)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7)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8) 연구기관(국립/사립)
9)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창업 포함)
10) 기타()

12. [문1 보기② 미취업자만] 귀하께서 향후 일자리에서 받고 싶은 희망연봉은 얼마입니까?

※ 연평균(연봉)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또는 개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는 생각하시는 희망 연평균 순수입을 응답하여 주세요.

▶ soft: Q12 ≥ 연 평균 10,000만원

연 평균(연봉) _____만원

0만원 입력 못함

13-1. 귀하는 학교입학 후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은 취업 전후 실시한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교양이나 평생학습차원에서 받은 교육 및 훈련은 제외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과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교생실습포함)도 제외되며, 정규학교교육의 학업과 관련한 학원수강 및 과외도 제외됩니다.

※ 고시, 공무원, 공사(공단) 등의 시험준비와 인턴경험은 제외됩니다.

13-1-1.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전(2017년 6월 이전)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 경험여부	
13-1-2. 청년구직지원금 받는 기간(7월~12월) 중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 경험여부	

- 1)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
2) 받아본 적이 없다

13-2. 그렇다면,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을 총 몇 번 받으셨습니까?

▶ soft: Q13-2-1, 2 ≥ 20회

0회 입력 못함

Programmer: 문13-1에서 보기 1번 '경험있다'는 기간만 제시

13-2-1.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전(2017년 6월 이전)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 횟수	총	회
13-2-2. 청년구직지원금 받는 기간(7월~12월) 중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 횟수	총	회

14-1. 귀하는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운전면허의 경우는 1종 대형 및 특수차량 면허만 포함되고 1종 보통과 2종은 자격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1-1.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전(2017년 6월 이전) 자격증 보유 여부	
14-1-2. 청년구직지원금 받는 기간(7월~12월) 중 자격증 보유 여부	

1) 예

2) 아니오

14-2. 그럼, 귀하께서 소지하신 자격증은 총 몇 개입니까?

▶ soft: Q14-2-1, 2 ≥ 15개, 0개 입력 못함

Programmer: 문14-1에서 보기 1번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간만 제시

14-2-1.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전(2017년 6월 이전) 소지한 자격증 개수	총	개
14-2-2. 청년구직지원금 받는 기간(7월~12월) 중 소지한 자격증 개수	총	개

14-3. 그럼 귀하께서 취득하신 자격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응답]

Programmer: 문14-1에서 보기 1번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간만 제시

14-3-1.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기 전(2017년 6월 이전) 취득한 자격증 유형	
14-3-2. 청년구직지원금 받는 기간(7월~12월) 중 취득한 자격증 유형	

1) 국가전문자격

2) 국가기술자격

3) 민간자격

4) 외국자격

▶ 국가전문자격 : 국가전문자격증은 주로 전문서비스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 정부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각 부처별로 법적근거가 있으며 면허적 성격을 가진 자격증이 대부분이며,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규정된 국가자격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종에 한해 운영되는 자격증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등급에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및 기초/전문사무 분야 등이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등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 :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외 법인·단체·개인이 운영하는 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외국자격 : 운영, 시행주체가 외국인 경우를 말합니다.

[진로장벽]

15. 다음은 여러분이 직업을 결정하거나 탐색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현재 느끼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지금 자신들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또 앞으로 예상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유부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어렵다.	1	2	3	4
2)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를 잘 모르겠다.	1	2	3	4
3)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의 취업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1	2	3	4
4)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1	2	3	4
5)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1	2	3	4
6) 나는 일하는데 필요한 주장성이 부족하다.	1	2	3	4
7)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1	2	3	4
8)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	1	2	3	4
9)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가정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1	2	3	4
10) 나는 좋지 않은 성격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다.	1	2	3	4
11)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내리고 난 후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12)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1	2	3	4
13)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가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1	2	3	4
14)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1	2	3	4
15) 나는 취업이 잘 안될 것이다.	1	2	3	4
16) 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1	2	3	4
17)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1	2	3	4
18) 경기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	1	2	3	4
19)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1	2	3	4
20)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피하고 싶다.	1	2	3	4
21)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 얻기가 어렵다.	1	2	3	4
22) 시대흐름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	2	3	4
23) 나는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1	2	3	4

[구직효능감]

16. 다음의 각 문항을 잘 읽어보고,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성공적인 구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1	2	3	4	5
2)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취업에 자신이 있다.	1	2	3	4	5
3)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1	2	3	4	5
4) 취업 행사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1	2	3	4	5
5) 직업을 얻기 위해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7) 구직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다.	1	2	3	4	5
8)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9) 취업정보 사이트와 기업홈페이지를 수시로 살펴본다.	1	2	3	4	5
10) 직업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1) 직업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관련서적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보고 있다.	1	2	3	4	5
12)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13) 내가 취직하고 싶은 직업이 확실하다.	1	2	3	4	5
14)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자주 만난다.	1	2	3	4	5
15) 나의 부족한 능력은 개발시키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6) 나는 매사에 자신감 있게 임한다.	1	2	3	4	5
17) 밤늦도록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는 날이 많다.	1	2	3	4	5
18)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19)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취업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1	2	3	4	5
20) 취업지원기관을 자주 방문한다.	1	2	3	4	5

17.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현재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2)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3)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4)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취업 스트레스]

18.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현재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요즘 취업 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두통약) 등의 복용이 늘었다	1	2	3	4	5
2) 나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입맛도 잃을 정도다	1	2	3	4	5
3) 나는 취업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알지만 노력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4) 나는 실력(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1	2	3	4	5
5) 내가 장차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성취가 쉽지 않은 것 같다	1	2	3	4	5

19. 귀하께서는 청년구직지원금이 구직활동에[문1 보기① 취업자의 경우: 구직활동 및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Programmer: 취업자의 경우, 문구 변경하여 제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2	3	4	5

→ 보기 ①, ②번 응답자는 문19-2로 이동

19-1.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으로 귀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1) 심리적 안정감
- 2) 자신감, 적극성, 추진력 상승
- 3) 구직활동전념
- 4) 스펙보완
- 5) 선택의 폭 확대
- 6)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
- 7) 기타 ()

19-2. [문19 보기 ①, ② 응답자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20. 다음은 청년구직지원금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1) 선발기준 (연령, 소득, 경기도거주기간, 실업기간)	1	2	3	4	5
2) 구직활동계획서	1	2	3	4	5
3)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50만원씩 6개월)	1	2	3	4	5
4) 지원금 지급방식(체크카드)	1	2	3	4	5
5) 구직활동보고서	1	2	3	4	5
6) 지원금의 사용가능 범위(포괄적 구직활동)	1	2	3	4	5
7) 취업성공수당	1	2	3	4	5
8) 전담상담사	1	2	3	4	5

20-1. 귀하께서는 앞서 평가해 주신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21. 귀하께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받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22. 귀하께서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1) 지원 대상자 확대
- 2) 총 금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월 지원 금액의 유연한 운영
- 3) 지원금 사용처 확대 (학자금대출 이자 납입 등)
- 4) 경제적 지원 외 프로그램 운영(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
- 5)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패널리 강화
- 6) 우수 구직활동보고서 등에 대한 포상
- 7)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 및 운영
- 8) 기타()

다음은 자료처리를 위한 기타 인적사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4.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떻습니까?

-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2년제) 졸업 3) 대학(4년제)졸업 4) 대학원 이상 졸업

25. [문1 보기 ㉔ 미취업자만] 귀하께서는 학교 졸업 이후의 미취업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 졸업 이후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다면, 마지막 일자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미취업 기간을 응답해 주세요.

- 1) 3개월 미만 2)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4)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5) 24개월 이상 6) 해당 없음

26.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1) 주거환경	1	2	3	4	5
2) 가족 관계	1	2	3	4	5
3) 사회적 친분관계(친구 및 지인과의 관계)	1	2	3	4	5
4) 건강	1	2	3	4	5
5) 가족의 수입	1	2	3	4	5
6) 여가생활	1	2	3	4	5
7) 그럼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귀하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1	2	3	4	5

■ 연구진

임희정 경기도일자리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운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원

김효경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원

현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원

경기도청연구직지원금 효과성 연구

발행인 김화수

발행일 2018. 3.

발행처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14566)
전화: 031-970-9600 FAX: 031-270-9734
홈페이지: www.gjf.or.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2가길 16-5 (03673)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